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090-1091 1983년 3월 25일(금) & 26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Friday & Saturday, March 25 & 26,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MAR 25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5S 1A5

거물실업인 대거 토론토에

한·카 경제인협회 연례회의 참석차

국교 수립이후 최대규모…총1백여명

한국과 캐나다의 실업인 80여명이 참가하는 한·카 경제인협회 회의가 오는 4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토론토 포·시즌즈호텔(Four Seasons)에서 개최된다.

경제협력을 통한 양국의 우의증진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한·카국교 개설이후 캐나다에서 열리는 최대규모의 양국경제인 회의이며, 한국측에서는 중진급 경제인 약40명이 동 회의 참석차 토론토로 집결한다.

동 회의는 총회와 제조업, 서비스업, 에너지산업, 임업, 농산업등 업종별 분과회의, 초청인사의 연설과 만찬, 리셉션등으로 진행된다.

초청연사중에는 윌리엄·데이비스 온타리오주 수상, 이규현 오타와주재 대사, 폴·코스그로브 연방재무담당 국무장관, 연방 외무성 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 차관보, 장·맥클로스키여사, 최종악 한국수출입은행이사등이 포함돼 있다.

동 회의에 참석할 경제인들의 한국측 대표는 한·카경협 한국측 의장인 구평회 호남정유 사장이며, 캐나다측 의장은 바실·베네토(Basil Beneteau) 노던·텔레콤·캐나다 사장이다.

베네토사장은 22일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양국 경제인들이 이끄는 회사들의 연 수익이 90억달러이상인 것으로 감안할 때, 한·카양국 무역이 확대될 잠재력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토론토회의는 이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 회의 캐나다측 실무자인 존·베네이(John Benet)씨는 23일, 이번회의 기간중 캐나다측이 베푸는 공개행사에 주재상사원, 은행간부 및 교민대표등 모두 약20명이 초청됐다고 밝혔다.

캐나다측 주관 행사로는 11일의 데이비스수상 연설오찬과, 12일의 코스그로브장관 연설만찬등이 있으며, 한국측은 12일 만찬을 마련한다.

회의 마지막날인 14일(목) 참석자들은 골프및 야구게임관전으로 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들이 관전할 야구게임은 익시비션·스태디엄에서 있을 밀워키·브루어즈와 블루제이스와의 대전이다.

82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동안 한국은 총5억4천120만달러어치의 상품을 캐나다에 수출한 반면, 캐나다는 4억4천940만 달러어치를 한국에 수출했었다.

81년 1월22일 서울에서 발족된 한·카경협은 그해 9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양국 경제인 연석회의를 가졌고, 82년 8월 전대통령 캐나다 방문당시 오타와에서 1일회의가 열렸었다.

내년도 연석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카 경협의 한국측 대표 구평회씨(왼쪽)와 캐나다측 대표 바실·베네토씨가 양측의 기념품을 교환한뒤 기념촬영했다.

"지원자수 관계없이 불어교육"

『온』주 문교성 개정교육법안 제출

온타리오주는 주내 모든 어린이들이 숫적 제한없이 자유로이 불어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획기적인 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이미 각료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베티·스티븐슨 문교장관이 발표했다.

74년 통과되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법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각 국민학교는 최소 25명, 하이스쿨은 최소 20명의 지원자가 있어야 영어대신 불어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 불어권자들에게 사실상 영어권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개정교육법은 이같은 인원상의 제한을 폐지, 지원학생이 단 1명이라도 불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까운 학교에서 불어로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불어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까지의 매일 교통편과 필요한 경우 기숙사 제공과 주1회 교통편을 스쿨·버스가 제공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주의 전 학부형은 원할 경우 자녀를 주니어·킨더가든(유치원)부터 하이스쿨(고등학교)과정까지 불어로 자유로이 교육시킬 수 있게 되었다.

스티븐슨장관은 이 개정안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의회를 통과, 적어도 85년 전에는 실행될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약1천명의 학생들이 이법안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법안에 따르면 불어사용학생이 500명이상인 스쿨·보드(School board)는 최소 4명이상의 불어사용 교육위원들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스·욕과 토론토 스쿨·보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현재 509명의 불어사용학생인구를 가진 26명의 토론토 스쿨·보드는 4명의 불어사용 교육위원을 추가, 총스쿨·보드 위원수는 30명이 돼야한다.

바니 클락씨 112일만에 사망

세계최초 인공심장 이식수술받은 미국인

(솔트레이크씨티)세계최초로 영구인공심장 이식수술을 받았던 바니·클락(61세)씨가 수술후 112일만인 23일밤 10시2분 유타대학병원에서 투병끝에 사망했다.

병원 대변인 죤·드윈씨는 클락씨가 "순환계의 퇴행과 복합기관 조직파괴에 의한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은퇴한 치과의사인 클락씨는 작년12월2일 유타대학의료센터에서 제작한 플라스틱 인공심장JARVICK 7형을 닥터·윌리암·데브라이스씨의 집도로 이식받았다.

수술받기전 클락씨는 심장근육의 퇴행질환으로 인한 협심증세로 고통을 받으며 사경을 헤매었다.

이에따라 의료진은 정부의 재가를 얻어 주먹만한 크기의 심장에 1.8미터나되는 2개의 고무호스를 통해 콤프레셔(압축기)에서 들어오는 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장치의 인공심장을 7시간의 수술끝에 이식하였다.

수술후 클락씨는 특별시설에 의해 약170킬로그램이나 되는 심장보조기구를 달고 간호를 받고 있었다.

이 수술로 사경에서는 일단 벗어났으나, 그간 고비고비 많은 어려움을 넘겨왔고, 최근에 점점 소생가능성이 희박해 의료팀도 어떤 다른 조치를 연구하고 있었다.

수술받기전 클락씨 부부는 이 수술이 성공하던 안하던 " 인류에게 가장 고귀한 기회를 주기 위해" 수술받기로 결정했다.

수화물처리 신속화

토론토 국제공항

토론토 국제공항 터미날 I을 통해 들어오는 승객들이 금주부터는 자신들의 여행가방및 수화물을 찾을 때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되었다.

이는 공항당국이 2,800만달러를 들여 Inbound Baggage System을 최신식으로 개수했기 때문이다.

터미날 I은 1950년대말 대형여객기가 없던 시대에 설계됨으로 그동안 폭주하는 승객으로 언제나 복잡하고 폭발직전의 상태였다.

마감은 25일 밤11시

상금 3백만달러의 로토(Lotto) 6/49

3월26일(토)밤 추첨하는 로토(Lotto) 6/49의 상금이 비과세 복권으로 북미 최대 금액인 3백만달러에 달하게 되자, 이를 구입하기 위해 수천명의 복권(Lottery)팬들이 캐나다전역의 복권매표소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23일(수) 온타리오주에서는 로토 6/49외에 매주 수요일 전에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로타리오의 얼리·버드(Early Bird) 마감까지 겹쳐 주내의 1,900개 콤퓨터·터미날은 대 혼란을 이루었다.

다운타운·토론토의 일부 로타리오 판매점은 밀려오는 손님때문에 차라리 문을 닫아 버렸다.

이톤·센타에 있는 「로타리오·월드」 지배인 질·하긴스씨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밀리는 것은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면서 즐거운 비명을 올렸다.

토요일 추첨하는 로토 6/49 복권을 살 수 있는 마감시간은 25일(금) 밤11시이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주가 참가하는 로토 6/49의 당첨확률은 1천3백만대 1이다.

오늘의 예금금리(3 10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파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5%		7.5%
90일	9.0%		7.5%
180일	9.0%	8.75%	7.5%
365일	9.0%	8.7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세계 45개국이 재래식 戰鬪나 게릴라戰 교전

미「방위정보센터」조사

〈워싱턴-UPI〉 지구상의 1백64개국중 45개국이 현재 재래식전투나 게릴라전에 휘말려 있으며 각분쟁지역에서 약4백만명의 군인이 직접 교전하고있다고 한전쟁보고서가 밝혔다.

워싱턴의 사설연구기관인 방위정보센터가 지난3년간 조사한 「전쟁중인 세계(World at War)」라는 연구서는 『미국은 분쟁중인 20개국에, 소련은 13개국에 각각 주요군사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구서에 따르면 또 이러한 전쟁으로 지금까지 1백만~5백만명이 사망했으며 주요8개 분쟁지역에 파견된 외국군대는 50만명에 이르고있다.

가판함은 지역에서 가판함이 없어지고 있읍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2천년까지 癌정복"

14種의 획기적 치료방법연구

테일러 癌협회장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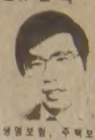
〈샌디에고-UPI〉 서기2천년까지는 암이 정복될 것이라고 아메리컨암협회 윌리스·테일러회장이 21일 밝혔다.

이날 제25차연례과학기자세미나에 참석한 테일러회장은 『적어도 14종류의 암치료에 획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면서 『특히 유방암등 10개암치료에도 큰 진전을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암환자들의 50%가 치료될수 있을 정도로 연구와 치료가 실적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 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B. 536-1692
R. 245-1539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화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은하 보석
관광화장품
대리점
ROLEX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회소재업체
오메가시계 45% ~ 50%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TEC
전자계산기
저 울

＊전자계산기…
$395부터
＊저울……
$795부터
■계산기 종이(Paper Rolls)
특별쎄일 4800 per 100
＊모든 기계에 써비스합니다.
TECHNIC CASH
REGISTER LTD.
1368 Kennedy Rd.
☎: 757-9209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회원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PLAZA
JOHN ST.
PEAK-O-DAWN RD.
DUNDAS ST. HWY 5
Q.E.W.
HWY 10 HURONTARIO ST.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 457-1234
정 창 헌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신제품
$395
(파나소닉제)
PAPER -SERVICE- REPAIR
(2년 보증)
각종 저울, 계산기
특별세일
안 수 일
252-7377 (R)762-4536
822 THE QUEENS WAY
(퀸스웨이×이스링톤)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불법이민 사기단 검거

아시아인 상대…중국계변호사·이민국 직원등

토론토에 거주하는 변호사와 이민국 직원을 포함한 6명의 중국계 케네디언들이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이민을 둘러싼 사기음모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메트로·토론토 경찰 정보과와 연방경찰(RCMP)은 1년이상의 잠복수사끝에 지난2월중 던다스·스트릿·웨스트에 사는 중국인 인쇄소 차이니즈·메디아를 덮쳐 수백장의 위조 이민서류를 압수하고 일당 6명중 3명을 체포했으며, 다른 3명에게는 수배령을 내렸다고 23일 메트로경찰의 배리·힐경사가 발표했다.

수배된 사람 가운데는 작년11월 시총선에서 제6구(Ward 6)의 시의원으로 출마했다가 죤·스웰 현시의원과 차점자 잭·메이든에 밀려 낙선된 변호사 오스카·윙(36)씨도 끼어 있다.

선거당시 윙씨는 현 제5지구 시의원 잉·호프와 낙선된 고든·청씨에 이은 제3의 중국계 캐네디언 정치지망생으로 각광을 받았었다.

배리·힐경사는 이들이 관련된 사건중에는 아시아 학생들및 메트로·토론토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려는 아시아인들의 케이스가 포함됐으며, 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차를 밟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을 뻔한 일부 이민자들의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주로 자신의 이민을 성공시키기 위해 이들 혐의자들에게 12,000달러까지의 현금및 뇌물을 주어왔다고 밝히면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정부상대 사기혐의로 체포된 캐나다 고용·이민성 인사과 직원 션·허버트·풀록(52)씨는, 업무상배임혐의및 뇌물 수수혐의도 받고 있다.

차이니즈·메디아 인쇄소 직원 슈이·추엔모(36)씨는 연방이민서류에 사용되는 위조마크를 소지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현재 홍콩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 윙씨는 28일 토론토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입건된 사람들은 블루어·스트릿·웨스트의 이민관씨(50), 인쇄소직원 와이·힝·찬(29)씨, 역타리(29)씨 등이다.

◆불법이민 알선사건과 관련, 입건된 중국계 변호사 오스카·윙씨. 그는 지난해 시의원에 출마했다 낙선됐었다.

범죄증가율 감소

TTC안전보고서 발표

TTC는 작년도에 승객수가 9백만이상이나 증가한데 비해 지하철과 버스내의 범죄증가는 경미했다고 발표했다.

21일 TTC는 연례안전보고서를 통해 82년도에는 총881건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43건이 증가한 숫자라고 밝혔다.

이 범죄는 대부분 대기소, 내의 추행및 각 스테이션(역) 주차장의 자동차를 상대로 한 도난사건들로서 6건의 절도, 3건의 강도, 4건의 추행등이 증가한 반면 폭행은 14건, 부상 3건등으로 줄어든 현상을 나타냈다.

또한 작년도 지하철 비상경보는 모두 445회 사용되었는데 183회가 보안이유, 257회는 환자응급, 5회는 화재위험에 의한 비상때문이었다고 밝혔다.

TTC대변인 윌리암·헤이워드씨는 이같이 줄어든 범죄율은 그간 증가된 정복경관의 감독강화 및 TTC요원의 기동적인 순찰, 그리고 지하철내에 장치된 경보시설의 사용증가라고 풀이했다.

제5계절 소리없는 아우성

김종환

(토론토 Knox 신학대 석사과정)

◆김종환씨

앞으로 10년후면 한인2세들이 한인사회 주역이 되기 시작한다. 앞으로 이들이 이민사를 편찬할 때 1세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1세 자신들이 바라는 평가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고국에서 지녔던 모든 지위와 명예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오직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 성공시키겠다는 일념하에 낯설고 물설은 땅에 온 이민1세들. 그들은 언어장벽과 인종차별등 소수민족이 당해야 하는 온갖 어려움을 이를 악물어 참아냈으며, 버라이어티, 코너스토아등에서 하루14시간 중노동을 하며 자녀들 위해 희생했다. 그들에게 변치 않는 영광있으리!」

그러나 1세들이 생각하는 만큼 2세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들의 가상적 평가를 들어보자.

「우리들의 부모(1세)들은 우리들의 교육과 장래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생색내지만 별반 그런 인상을 받지 못했지요. 돈이 있어야 인간행세를 할 수 있다며 아침에 나가 밤늦게 자정까지 돈버는데만 열중하고, 어쩌다 드물게 얼굴이 마주치면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누구때문에 이런 고생하는줄 아니? 너희들이야, 너희들……" 고작 이런 정도가 부모와 우리들의 대화였읍니다. 학교를 마치고 아무도 반기는 이 없는 텅빈집에 왔을때의 그 쓸쓸함과 서러움을 그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들은 아무런 취미활동도 하지 않았읍니다. 고작 취미라는 것이 돈세는 재미였읍니다」

극단적인 예라고 실소에 부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이민가정에 이같은 부모 자녀간의 문제의 씨앗이 배동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민1세인 부모들은 2세 자녀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주장하지만, 그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

지난2월 노년회, 대학생회, 대학생동창회가 공동주최한 「노인과 젊은이와의 대화」에서도 많은 가정 문제의 주원인이 1세부모들에게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1세들은 그들의 부모인 노인들과 자녀인 젊은이들에게 협공을 당했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애정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이것이 2세들이 1세들에게 바라는 소리없는 아우성이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98>

어머니와 아들 ⑤

"내 어머니는 이집서 목매달아 죽었어…"

노파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무슨일을 하면서 살아왔지?』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했지요.』

『궂은일을 해은 모양이구나?』

『네, 그런 셈이지요.』

『쯧쯧…얼마나 이 에미를 원망했을까?』

노파가 다시 눈물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를 원망한 적은 한번도 없읍니다.』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를 많이 원망했을거야. 이 에미는 원망을 받아 싸. 어린 너를 갖다 버렸으니까. 나는 나쁜 에미였어. 그런 내가 네 신세를 지다니.』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요.』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

『그렇게 고생했으면서 돈도 벌지 못했니?』

『네, 항상 입에 풀칠하기 바빴지요.』

『모든게 내 탓이었지.』

『아닙니다.』

방문이 바람에 덜컹 거렸다. 그의 눈이 잠시 허공을 머뭄었다.

그는 어느새 회상에 잠겨들고 있었다. 그것은 쓰라린 과거에의 회상이었다. 두번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쓰라린 과거—.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쓰라렸던 과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입에 떠올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어머니에게 괴로움을 끼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녀는 대부호의 외동딸로 태어났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젊은 어머니는 남편이 죽자 외간 남자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불장난을 벌였고, 그러다보니 가산이 탕진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어머니를 미워했지. 그래서 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려고 서울로 올라가 여학교에 들어갔단다.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마을 풍기가 하도 문란해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를 마을에서 쫓아냈다는 소문이 서울까지 들려왔어. 얼마 있다가 학교로 누가 찾아왔다기에 나가보니까 어머니였어. 어머니는 그때 몹쓸 병에 걸려 병색이 완연했어. 보따리 하나를 안고 서있는 모습이 몹시 초라하고 불쌍해보였지만 나는 어머니가 미웠어. 한 마디도 하지않고 도로 교실로 들어가 버렸지. 그뒤 어머니는 고향으로 도로 내려가 바로 이 집에서 목 매달아 돌아가셨어. 내가 그때 따뜻이 맞아주었더라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거야. 난 아주 모질었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울지도 않았지. 학교를 중도 퇴학하고 간 곳이 어느 중국인 부자가 경영하는 한약방이었지. 처음에는 잔심부름이나 하는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었어. 주인 되는 중국영감이 홀몸이었는데 나를 항상 안방으로 불러서는 어깨를 주물러달라, 다리를 주물러달라 하면서 나를 무슨 강아지 새끼처럼 어루만졌지.』

그의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흡사 남의 이야기하듯 스스럼없이 꺼내놓는다. 아들 보기가 부끄럽다거나 그런 기색이 조금치도 없다.

朴男 그림

「온」주 복합문화자문위

이민자 정책등 검토…자격 규정 없어

온타리오 복합문화및 시민권 자문위원회(The Ontario Advisory Council on Multiculturalism)는 1972년 온타리오 헤리티지 컨퍼런스(Ontario Heritage Conference)의 추천에 의해 이듬해인 73년 창설되었다.

복합문화자문위의 역할은 소수민족, 원주민 및 새로 정착하는 이민자들에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계획과 정책을 검토한다.

79년 동 자문위는 시민권과 동등권, 기회및 책임균등보장문제까지 관심을 확대시키기로 정책을 변경시켰다.

오더·인·카운슬(Order-in-Council)이 임명하는 자문위는 1명의 풀타임 위원장과 최고 60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위원들은 각 민족을 대변, 복합문화및 시민권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시민권및 문화성장관을 통해 온타리오정부에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1개 집행위와 수개의 소위원회가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소위원회별로 스케쥴이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교육·청소년문제위는 복합문화주의에 입각한 교육, 학교에서의 제3언어교육 도입문제, 성인교육및 도서관에 소수민족언어로 된 도서비치문제등으로 아주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다.

그외에 이민·피난민소위원회, 인권·인종관계 소위원회, 사회개발 소위원회등이 있으며 자문위는 주정부와 각급관계 부처및 타주의 자문위와 정기적인 연락을 갖고 있다.

오더·인·카운슬은 온타리오주 수상으로 하여금 자문위 명단을 발표케 하고 있는데, 인선은 주로 주정계에 알려진 사람들을 주수상이 심사 임명한다. 특별한 자격규정은 없으며, 임기는 1년, 재임할 수 있다.

이 위원회에는 교민 홍종표씨가 포함되어 있다.

주차위반 벌금 잘 안내

오타와 주재 외교관들

(오타와) 오타와 경찰당국은 21일 오타와에 거주하고 있는 각국 외교관들이 주차위반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 골치라고 불평했다.

비엔나조약에 의한 외교관면책특권을 악용, 벌금지불을 거부하는 이들은 작년도 총 5,062건의 외교관 주차위반중에 단지 167건만 벌금을 물어 3.3%의 지불율을 기록했다.

이 숫자는 81년도의 4.3%보다도 저하된 기록이다.

나이제리아 공관원의 경우 271건의 주차위반에 2건만 물었으며, 알제리 외교관과 소말리아는 각각 237건과 205건의 위반을 했으나 모두 한건도 지불치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내용을 보면 프랑스(188건에 6건지불), 에집트(166건에 1건지불), 세네갈(139건에 무지불), 미국(146건에 31건지불), 이스라엘(121건에 무지불), 항가리, 이락(각119건에 무지불), 카메룬(114건에 무지불)등의 순이다.

한편 엘살바돌은 1건위반에 1건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제리아의 한 외교관은 이 기록을 불명예로 여겼으며, 이 같은 이유가 운전수들의 잦은 이동탓이라고 해명했다.

2년간 80만명 줄어

중소기업 고용원

현재 중소기업에 고용된 케네디언의 수는 81년 1월이후 약 80만명이 줄어 전국실직자수의 절반이 이에 해당한다고 캐나다 독립비즈네스연맹(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ant Business)이 보고했다.

캐나다 통계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83년 2월중 전국의 실직자수는 158만명으로 전체노동인구의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CFIB의 집계는 2월중 실시된 각 기업대상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14,171명의 응답자중 51%가 지난 2년간 총 42,479명의 종업원을 감축했다고 답변했고, CFIB는 이 숫자를 전체 기업수와의 비율로 따져 볼때, 80만명이 감축됐다고 추산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고용이나 투자를 증대할 계획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상만 건축설계 사무실
SANG-MAN YOUN ARCHITECT
161 EGLINTON AVE. E. SUITE 702
484-4895 · 484-6110(B), 492-7472(R)

"직장을 달라"

400여『온』주 대학생 데모

온타리오주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대표 400여명이 23일낮 온타리오주 정부청사인 퀸즈 팍(Queen's Park)에 모여 학생들의 실직문제 및 교육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데모를 벌였다.

킹스턴의 퀸즈 유니버시티에서 온 이언·프렌들리군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바란다"고 외쳤다.

데모학생들은 온타리오주 문교성이 보다 많은 예산을 학생들의 여름 직장(Summer Job)에 투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데모는 23만명의 학생 조직체인 온타리오 학생연맹(Ontario Federation of Students)가 주관한 것으로 학생들은 작년 여름 8만2천명 이상의 학생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했으며, 올해는 구직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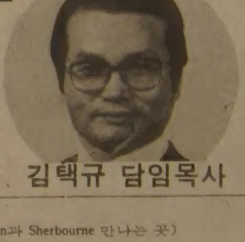
한편 데모소식을 들은 베티·스티븐슨 문교장관은 "온타리오주의 온타리오·커리어·액션·프로그램(Ontario Career Action Program)은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학생및 청소년 취업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구독신청
533-2361

◆"직장을 달라,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외치며 23일 낮 퀸즈·팍 앞에서 데모를 벌인 온타리오주 각지에서 모인 400명의 대학생 대표들.

중앙한인 연합교회 안내

할렐루야! 중앙한인연합교회는 하나님의 선히 인도하심과 은혜로, 미국 텍사스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던 김택규 목사님을 담임목사로 모신 이래 나날이 부흥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드리오며, 아래와 같이 본 교회의 집회와 활동을 안내하오니 누구시던지 참여하셔서, 창조적이고도 축복된 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옵니다.



김택규 담임목사

집회 및 활동

예배 주일대예배 : 주일 오후12시30분
제1부예배(청년) : 주일 오전11시30분
영어예배(청소년및 대학생) : 주일 오후1시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7시30분
금요기도회(노년) : 금요일 오후7시30분

구역기도회 각구역별 : 금요일 오후8시

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 : 6시30분

주일학교 영아부 : (비메오시설)
어린이 : 주일 오후12시30분
중고등부 : 주일 오후12시30분
장년부 : 주일 오전 11시30분

복음의 다이알

전화번호 : 922-0605를 돌리시면 3분간의 설교를 들으시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일요일 2회 새로 녹음이 됩니다)

○교회에 대한 문의

심방담당장로 : 이창록(241-4869)
당 회 서 기 : 윤여화장로(621-0323)
교회 사무원 : 한예숙(922-3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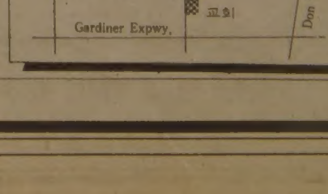
김택규 담임목사약력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특별과정) 수료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신과대학원 졸업(M. Th)
◉서울 대신교회 창설및 목회
◉해병대사령부 군종과장
◉해군본부 군종차감
◉미국 달라스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7년)
◉동교회 목회중
▲성전 건축 완료
▲루이지아나에 지교회(쉬립포트한인교회) 설립
▲북미주 여러 교회에서 부흥회, 제직수련회, 사경회인도
◉달라스 한인교회 교역자협회 회장 역임
◉미연합 감리교회 중남부대회 한인교회 연합회 회장 역임

교회위치 (Calton과 Sherbourne 만나는 곳)

○주소 : 353 Sherbourne St. Toronto, Ontario M5A 2S3

○전화 : (416)922-3863



중앙한인연합교회 선교위원회 드림

◆24일밤 로열·알렉산드라 티어터에서 거행된 지니상 시상식에서 주연여우상의 중국계 여우 래·돈·청과 도날드·서덜랜드가 나란히 포즈를 취했다.

지니상 수상자 발표

캐나다 영화계의 오스카상

23일밤 토론토 시내 로열·알렉산드라·디어터(Royal Alexandra Theatre)에서 거행된 캐나다 영화산업계의 최고 권위상인 지니·어워즈(Genie Awards)시상식에서 피터·오브리엔씨가 제작한 작품 〈회색여우〉(Grey Fox)가 7개부문 상을 휩쓸었다.

캐네디언·시네마·아카데미가 수여하는 지니·어워즈는 캐나다판 아카데미상으로 불리우는 상으로 미국영화계에 눌리어 제빛을 발휘 못하는 캐나다의 영화예술인들이 캐나다 영화를 장려하자는 취지아래 4년전 제정된 상이다.

다음달 토론토 극장가에서 상영될 영화 〈회색여우〉는 늙어가는 열차강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날밤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조연여우상(재키·버로우즈), 최우수 감독상(필립·보르소스), 최우수 각본상(존·헌터), 최우수 미술상(빌·브로디)을 받았다.

영화 〈불을 찾아서〉(Quest For Fire)는 에드몬톤 출신의 중국계 여배우 래·돈·청(22, Rad Dawn Chong)에 주연여우상을 안겨준 것을 비롯, 의상상, 편집상등 5개상을 수상했다.

토론토 대학 재학도중 헐리웃에 진출, 60년대 세계적 명성을 굳힌 도날드·서덜랜드는 작품 〈Threshold〉에서 닥터 토마스·브레인역으로 최우수 주연남우상을 차지했다.

7개 부문후보로 올랐던 빠삐영화 〈택시에서의 하루〉(Une Journee En Taxi)는 아깝게도 1개의 상도 못타냈다.

LA올림픽 티켓 4월부터 예매

84년 LA올림픽티켓이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예매가 실시된다.

LA올림픽조직위원회(LAOOC)의 존·프란센공보관장은 『84년 올림픽티켓은 과거 어느 올림픽대회보다도 공정하게 처리한다』면서 『약5백만장을 미국내에서 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예매티켓을 위해 LAOOC측은 개인문의에 따라 주문양식(Ticket Order Form)을 발송하고 또한전 전국주요 티켓판매처에서도 주문양식을 배부하여 준다.

이주문양식은 한권의 팜프렛으로 되어 있으며 84년 올림픽23개종목(21개정규경기와 2개시험경기)의 전체경기등급별좌석과 입장식·폐회식티켓으로 구분되어 있다.

프란센공보관장은 『모든 사람은 티켓주문에서 한종목당 3가지 좌석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티켓주문양식에 해당경기티켓을 기입한 후 총요금을 개인수표, 모니오더를 동봉하든가 크레딧카드번호를 적은 "다음" 부착된 반송봉투로 LAOOC로 보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예약이 확정된 사람들의 티켓은 내년 올림픽경기전인 6월중 특별우편으로 해당자들에게 발송된다.

총티켓중 약2백90만장은 1매당 10달러선이며 입장식과 폐회식은 약40달러선이고 기타 입장권가격은 18달러선으로 정해져 있다.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책종류 환영함
토 한국일보
(416)533-2361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상업건물및 주택 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964-6834(B)
226-0375(R)
643 Yonge St.(3rd fl.)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식회사

캐나다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캐나다인 8명중 1명이 캐나다 여권을 소유하고 있음이 최근 통계에 나타났다.

캐나다외무성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여권발급업무가 급진적으로 상승해왔는데 당시 오타와에 하나밖에 없는 여권사무실에서는 년간 총 64,638건의 여권을 발급한데 비해 81년의 경우 총 654,000건의 여권을 발급해 10배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캐나다 외무성은 그간 급증하는 여권업무의 원활을 위해 전국에 여권사무실을 설치했는데, 빅토리아, 뱅쿠버, 사스카눈, 위니펙, 에드몬톤, 칼가리, 토론토, 노스·욕, 해밀턴, 런던, 윈져, 페백시, 몬트리얼, 할리팩스, 후레드릭톤, 센·존스(뉴파운드랜드)등 16개 도시이다.

5년 유효인 캐나다여권 신청절차를 보면 우편국이나 지역 여권사무소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신청서에 신상과 사유를 기재한 후(보증인 필요) 여권용 사진 2매, 캐나다시민을 증명할 증빙서류, 신청료 $20을 제출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2시간내에 발급받게 된다.

모든 표기는 공식용어인 영어나 불어중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는 여권담당자들이 재발급의 사유와 적격여부를 감식한 후 재발급을 받게 된다.

이들은 불법입국, 불법여행등을 위해 발급받기 원해 제출한 가짜서류와 각종사범을 색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모든 여행자들은 방문국의 법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캐나다여권 지참자들은 세계 어느나라든지 어렵지 않게 여행할 수 있으나, 간혹 그렇지 못할 경우 재외 캐나다공관에 연락하면 큰 도움을 얻게 된다.

또한 여행자들은 외무성, 여권사무소, 재외공관에 비치되어 있는 「즐거운 여행(Bon, Voyage)」라는 책자를 얻어 여행의 길잡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책자에는 여행 해당국에서 할수 있는 일, 해서는 안될 일등의 각종 정보와 풍속, 환전관계, 재외 공관 주소등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캐나다는 현재 전세계 약 120개 지역에 재외 공관을 두고 있다.

「Half Back」제도 대성공

"윈타리오로 책 반액까지 할인"

작년 11월1일부터 시작된 윈타리오·하프·벡·북·프로그램(Wintario Half Back Book Program)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프·벡」프로그램이란 캐네디언 작가의 책을 살 경우 책값의 절반까지 온타리오주정부 복권공사가 발행하는 윈태리오(Wintario) 티켓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된 제도이다.

추첨까지는 당첨되지 않은 윈태리오복권은 휴지나 다름없었지만 캐네디언 작가의 책을 살 경우 한장에 50센트씩으로 계산되는 제도가 생김으로써 서민층 독자나 캐나다 출판계 양쪽이 모두 득을 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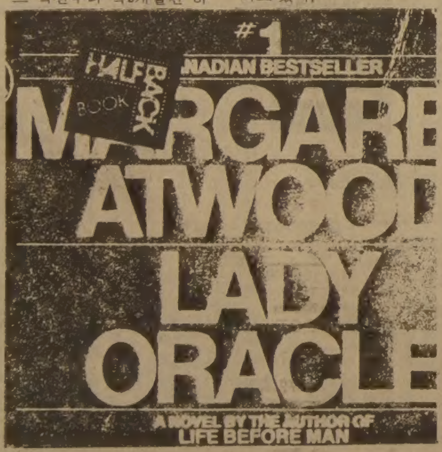
캐나다 출판계는 미국출판계에 눌려 수년전까지만 해도 출혈을 면치 못하다가 최근 캐나다문화의 아이덴터티를 정립하자는 운동이 학계와 지식층에서 일자 다소 밝은 전망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1년간 「하프·북」으로 사용된 윈타리오 티켓은 총 100만달러정도라고 밝힌 온타리오주 시민권 및 문화성 브루스·맥카프리장관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이런 혜택제도가 성공을 거두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이제도는 크게 기대할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출판회사인 맥클렌드·앤드·스튜아트·반탐(McClelland and Stewart Bantam)회사의 재·맥클렌드씨는 "특히 지난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약2개월간 하프·벡·북의 성과는 대단했다"고 말했다.

서점에 가면 「하프·벡」(Half Back)이란 표식이 찍힌 책이 있으며 이책에 한해 윈태리오 복권으로 책값을 충당할 수 있다.

현재 온태리오주에서는 180도시에 500개 이상의 서점이 하트·북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 병 헌

임시 총회 소집공고

해밀톤·볼링톤 한인실업인협회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일시 · 1983년 4월7일(목) 밤11시
장소 · 945 UPPER JAMES ST. (& MOUNTAIN) HAMILTON., ONT.
안건 · ①사업보고
②기타 토의사항

해밀톤·볼링톤 한인실업인협회
회장 조용구

〈확장이전개업〉

금번 저희 빅·세븐 선물센타는 좀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하여 오는 28일(월)부터 교민여러분을 모시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봄을 맞아, 새로운 기분으로 성심성의껏 봉사 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예전과 같이 계속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영 철 올림

새주소 : 660 BLOOR ST.W.
(내고향통닭집 옆)
PHONE: 533-7966

취급품목
◎LONDON FOG 바바리 ◎여자용 물세무 코트 ◎중국길림성 혈녹용, 야생녹용, 생녹용 ◎고려인삼제품(즉석에서 분말로 만들어 드립니다)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산삼 ◎사향 ◎경명무사 ◎우황 ◎나트륨유카

빅*세븐무역선물센타

HEMLO금광의 전망은?

WALL STREET JOURNAL에 의하면 온타리오주 THUNDER BAY, LAKE SUPERIOR 북쪽에 위치한 HEMLO지역의 금광은 남아프리카 금매장량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금광의 전망과 개발에 관련된 회사주식동향을 아시고 싶은 분은 직접 전화 또는 아래의 쿠폰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읍니다.

캐나다및 미국주식 취급10여년 경험。
공인증권상담인 김기석 960-3851

NAME
ADDRESS
CITY
PROVINCE POSTAL CODE
TEL(B) (R)

Midland Doherty Co
KEY S. KIM
2 BLOOR ST. E. 30FL.
TOR. ONT. M4N 1A8
(TEL)(416)960-3851

權총장·李총무 留任

民正개편 王相殷중앙위議長도

政策委의장 鄭石謨씨

金瑢泰대변인 유임 下位黨職 全黨大會후 발표

◇王相殷의장

◇權翊鉉총장

◇鄭石謨의장

◇李鍾贊총무

◇金瑢泰대변인

民正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은 黨대표위원을 更迭한데 이어 22일하오 黨憲에 따라 신임 陳懿鍾대표위원의 提請을 받아 중앙위의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등 黨4役과 대변인등 주요黨職에 대한 개편을 단행, 정책위의장에 鄭石謨의원(公州·論山)을 임명했다.

全대통령은 오는 29일의 全黨대회이후 구성될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중앙위의장에 王相殷현중앙위의장을 내정하고 權翊鉉사무총장, 李鍾贊원내총무, 金瑢泰대변인은 모두 유임시켰다.

이에 앞서 全대통령은 신임 陳대표위원에게 任命狀을 수여한후 黨職者들이 제출한 一括辭表를 접수했다.

民正黨은 사무차장, 정책조정실장등 나머지 黨職에 대한 개편은 29일의 全黨대회 이후에 단행하며 4월10일로 任期가 끝나는 국회의장단및 常任위원장등 국회 要職에 대해서는 4월11일의 임시국회 開會직전에 내정할 방침이다.

이날 黨職개편내용을 발표한 金대변인은 『기타 黨職은 陳대표위원이 黨3役과 상의하여 당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있는 人士를 기용, 임명하게 될것』이라며 『기타 黨職은 全黨대회이후에, 국회職은 4월11일로 예정된 임시국회개회직전에 내정하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王중앙위의장=▲釜山출신·63세 ▲日本同志社大商科卒 ▲協成海運대표이사 ▲1·2期統代의원 ▲釜山駐在 영국명예영사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權翊鉉총장=▲慶南山淸출신·49세 ▲陸士卒(11期) ▲保安司정보처장 ▲三星精密전무 ▲제2무임소장관실 보좌관(次官級) ▲民正黨慶南道支部위원장

◇鄭정책위의장=▲忠南公州출신·53세 ▲서울法大卒 ▲內務부치안국장 ▲江原지사 ▲忠南지사 ▲내무차관 ▲10代의원 ▲民正黨忠南支部위원장

◇李鍾贊총무=▲서울출신·47세 ▲陸士卒(16期) ▲陸士교수 ▲駐英國대사관무관 ▲中情기획조정실장 ▲立法의원 ▲民正黨사무차장

◇金瑢泰대변인=▲大邱출신·47세 ▲서울法大卒 ▲美하버드大修學 ▲조선일보정치부장·편집국장 ▲慶北道支部위원장

商工委 空轉

民韓, 金부총리 出席요구로 激論

국회는 22일하오 商工委를 열어 金東輝상공, 徐相喆동자부장관으로부터 수입자유화정책과 국제原油價인하에 따른 국내油價반영문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야당의원들이 金俊成부총리의 출석을 요구해 하오7시현재까지 停會를 한등 空轉을 계속했다.

회의벽두 야당의원들은 『油價가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때 경제 책임장관이 출석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한다』며 金부총리의 출석을 요구했다.

특히 民韓黨은 金부총리의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로 ▲油價인하분에대해서 지금정부 부장관의 설명만으로는 설득력이 없고 ▲油價인하의 下落분중 유보된 70%의 사용용도를놓고 상공부와 동자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수입자유화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산하의 연구기관과 상공부, 기획원간의 의견이 엇갈리고있기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이나와 통일된 기본방침을 설명할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通貨 平價재조정…프랑貨 2·5%切下

마르크貨 5·5%切上

【브뤼셀聯AP=聯】 유럽 通貨制度(EMS) 평가재조정 문제를 놓고 사흘동안 격론을 벌였던 歐共體(EC) 재무상회의는 21일 서독마르크貨등 5개통화를 평가절상하고 프랑스프랑貨등 3개통화를 평가절하하기로합의했다.

이로써 마르크貨의 강세와 프랑貨의 약세에서 비롯된 EMS체제의 붕괴위기는 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EC재무상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최종모임을갖고 영국과 그리스를 제외한 EC 8개회원국통화로 구성된 EMS 평가재조정문제를 논의한끝에 EMS內 基軸通貨인西獨마르크貨를 5.5% 평가절상하고 프랑스프랑貨를 2.5% 평가절하하는 한편 나머지 6개통화들도 모두 평가를 재조정했다.

이날 평가재조정에서 마르크貨이외에 네덜란드 길더貨가 3.5% 덴마크 크로네貨가 2.5% 벨기에 프랑貨및 룩셈부르크 프랑貨가 각각 1.5%씩 평가절상됐으며 이탈리아 리라貨와 에이레 파운드貨는 각각 2.5%및 3.5%씩 평가절하됐다.

원貨 下落勢

1弗 7백60원上廻

유럽통화제도(EMS)의 전면 재조정에 따라 세계전역에서 美달러화및 국제금리가 급등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원貨가치가 크게 하락, 달러당 7백60원선을 넘어서고 있다.

달러貨의 강세로 원貨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게하락, 22일현재 집중기준율이 전일에 비해 1원50전이 오른 7백60원40전을기록, 처음으로 7백60원선을넘어서기시작했다.

民正 黨憲개정안

代表위원任期존속

民正黨은 22일 中央執行위원회내에 常任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조정실장이 정책위수석부의장을 兼任토록 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黨憲개정안을 확정, 23일 公告한후 29일의 全黨대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21일의 中執委심의를 거쳐 22일 黨총재의 裁可를받은것으로 알려진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黨의 의결기관역할을 해온 中執委내에 대표위원, 중앙위의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등 黨5役을 당연직으로, 나머지5명을 임명직으로 하는 中執委상임위를 신설, 제반黨務와 정책사항등에대한 의결권을 갖도록했다.

그런데 民正黨은 임명직 中執委상임위원장에 총재비서실장, 사무차장, 대변인등을 임명할것으로 알려졌다.

이 改正案은또 당초 삭제할것으로 알려졌던 대표위원의 任期條項(2년)을 그대로 존속하는한편 약간명의 顧問을 두도록돼있는 현행黨憲을 고쳐 상임顧問도 두도록 했다.

社會漫評

"우리는 住宅문제나 거저거저…"

15차 韓·美安保협의회 내달 14일 美서 개최

한국軍 現代化·聯合방위 토의

제15차 韓美年例安保協議會議가 오는 4월14일과 15일 이틀동안 美國 워싱턴 포트매내어에서 개최된다고 22일상오9시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韓國측수석대표로 尹誠敏국방장관이, 美國측수석대표로 캐스퍼·W·와인버거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의 구체적인 의제는 공식발표되지 않았으나 △韓國에대한 북괴의위협 △양국군 현대화계획 △安保지원문제 △군수문제 △韓美연합사령부의 활동상황 △양국간의 軍事協力에관한 전반적인문제가 토의될것으로 알려졌다.

이회의에서는 또 제14차회의에서 토의됐던 제반문제를 재검토하고 지난30년간 韓半島에서 침략을억제하고 東北亞의 평화와안전에기여해온 韓美聯合방위노력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토의될것으로보인다.

★해설2면

韓美安保協議會議에 앞서 제5차 韓美軍事委員會議가 4월13일 같은 장소에서 韓國합참의장 金潤鎬대장과 美國합참의장 존·베시 대장의 공동주재로 열린다.

이 軍事委員會議에서는 韓美聯合軍司令部의 정책방향이 마련될것으로 보인다.

韓·말聯頂上 나란히 全斗煥대통령이 22일 來韓한 아마드 말레이지아 國王과함께 공항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는도중 환영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있다。

오늘하오 韓·말聯 頂上회담—

아마드·샤國王 來韓

아마드·샤·말레이지아國王내외가 全斗煥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5일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하기위해 아프잔왕비와 함께 22일하오4시 말레이지아 항공편으로 來韓했다.

아마드 국왕내외는 이날金浦공항에서 全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3府要人, 各界대표, 駐韓외교사절들의 迎接을받고 환영식에참석, 의장대를사열한후 숙소인 신라호텔로直行, 旅裝을 풀었다.

아마드國王은 23일상오 청와대를 예방한데이어 하오에는 全대통령과 韓·말레이지아 頂上회담을갖고 양국간의 우호증진및 經濟협력강화, 그리고 太平洋頂上 회담문제등을협의하며저녁에는全대통령내외가 청와대에서 베푸는만찬에 참석하고 민속공연을관람한다.

이에앞서 아마드國王은 이날상오 숙소에서 金相浹국무총리를 접견한데이어 국립묘지를참배하며 낮에는 經濟4團體長이 공동으로 베푸는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마드국왕의 訪韓은 81년7월 全대통령의 아세안5개국巡訪에대한 答訪으로 수하르토인도네시아대통령과 프렘泰國수상에이어 세번째이다.

아마드국왕의 訪韓에는 숨레이만문교장관을 비롯한 16명의 공식수행원등 82명이 수행했다.

아르헨등 3國大使 全대통령에 信任狀

全斗煥대통령은 22일 상오 청와대에서 알프레드·폰스·베네테즈 駐韓아르헨티나 대사, 쉐유치(薛毓麒) 駐韓자유중국 대사및 프란세스코·몬테리시 駐韓로마교황청대사로부터 각각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全대통령은 또 安在禎 스위스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社告

제40期 見習記者 1차 합격자 발표

2차試驗 28~29일 상오9시 本社13층

한국일보 제40기견습기자모집시험에서 1차합격자가 다음과 같이 결정 되었습니다. 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2차시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견습기자=28일(月) 상오9시까지 한국일보 13층에 집합. 시험과목은 논문과 면접.

▲코리아타임스견습기자=29일(火) 상오9시까지 한국일보13층에 집합. 시험과목은 영어회화, 영문받아쓰기와 면접.

▲日刊스포츠견습기자=29일(火) 상오9시까지 한국일보13층에 집합. 시험과목은 논문과 면접.

▲사진견습기자=29일(火) 상오9시까지 카메라를 휴대하고 한국일보13층에 집합. 시험과목은 실기테스트와 면접.

◇1차 합격자

<한국일보>
17, 54, 55, 76, 88, 89, 244, 247, 370, 426, 446, 502, 526, 563, 611, 627, 718, 726, 728, 729, 782, 884, 971, 1027, 1115, 1118, 1131, 1172, 1299, 1509, 1726 (이상31名)

<코리아타임스>
3012, 3013, 3040, 3042, 3065, 3095, 3119, 3125, 3139, 3201, 3215, 3237, 3247, 3252, 3254, 3255, 3330 (이상17명)

<일간스포츠>
1113, 2036, 2044, 2065, 2067, 2072, 2121, 2187, 2197, 2221, 2290, 2360, 2415, 2483, 2488, 2530, 2650 (이상17명)

<사　진>
2137, 2705, 2713, 2714, 2734, 2745, 2751, 2753, 2756, 2776, 2803 (이상11名)

—한국일보社—

보리·코너즈 招請테니스

4월6일 하오7시반 잠실체육관 특설코트

會員券 예매중

◇입장료
▲A석권=1만원(매진)
▲B석권=5천원(2층)
▲군경·학생권=2천5백원

◇예매처
▲신스포츠백화점(을지로2가) 776—5555, 722—1042 ▲용가로(사보이호텔옆) 778—7158 ▲필립스안경(스카라극장옆) 266—8558 ▲제일스포츠(여의도) 782—1144 ▲아놀드파마(구반포) 591—7598 ▲매일스포츠(서울운동장앞) 272—4541 ▲이태백안경(충무로입구) 778—5103 ▲오성테니스(로얄호텔옆) 776—9988 ▲세고비아기타(종로2가) 724—6161 ▲교보문고(교보빌딩지하) 725—6151 ▲반도스포츠(반포특약점) 593—2072 ▲희보스포츠 센타(반도조선아케이드 1층) 28—0881 ▲박스포츠(극동빌딩 아케이드) 273—6006 ▲라이온스테니스센타(라이온스호텔 건너편) 267—6314 ▲동방스포츠(동방생명빌딩내) 752—2421 ▲한국일보사업부 722—1472

보리와 코너즈 한국팬에 편지

豫測할수없는勝負

한국의 테니스 팬들께。

지미·코너즈와는 항상 좋은 경기를 가졌읍니다。예측을 불허하는 접전이었읍니다。

우리는 모두 서울에서의 경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서울의 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즐겨 주시리라 믿고 있읍니다。

여러분의 계속적인 후원을 바라며 서울방문이 즐거움으로 가득찰 것으로 믿습니다。

비외른·보리

서울訪問가슴설레

존경하는 한국국민들께。

저는 서울에서 벌어질 비외른·보리와의 경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테니스는 멋진 스포츠이며 한국에서도 계속발전하리라 믿습니다。무엇보다도 한국에서 경기할 기회를 갖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를 초청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임즈·S·코너즈

특별후원

코오롱스포츠　Slazenger

협찬 월드 테니스·主管 大韓테니스協會

主催 한국일보社·日刊스포츠·韓國放送公社

地平線

근래에 큰 관심을 일으킨 「뿌리」라는 개념은 농업의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농업은 구석기시대 유목민들이 끝없는 유랑에 종지부를 찍고 일정한 장소에 터전을 잡은것을 말한다. 토플러에 의하면 「뿌리를 박고 있다」는것은 한자리에 항구적으로 눌러 앉을 집(家)을 뜻한다는 것이다. 『집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지며, 인간을 과거와 자연에 연결시키는 유대』이기도 하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家父長的인 사회에서 부자관계는 상하·수직으로 맺어졌다. 그래도 갈등은 없지 않았다. 조선초기 명재상이었던 黃喜정승은 많은 일화를 남겼다. 집마당에 서있는 나무에서 마을 아이들이 파밀을 따먹어도 「내것은 남겨두고 먹으란」고 부드럽게 타이를 만큼 너그럽기 그지 없었다. 그렇지만 아들을 대할땐 숨겨진 「가시」가 날카롭기까지 했다.

▼황희정승 「父子의 대화」를 하나 인용한다. 약간 망나니 기질이 있는 아들을 어느날 문밖에 나가 맞아 들였다. 「아버님 웬 일이십니까…。의관 속대를 하시고 저를 맞다니요…」 아버지의 응답은 정중했다. 「내 말을 안들으니 어찌 내집 사람이라고 할수있느냐…。나그네가 찾아오니 예를 갖추는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따끔한 한마디가 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버지가 되기는 쉽다. 그러나 아버지 답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오늘의 청소년들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아버지의 세대가 이해하기 힘든 고민과 갈등이 많다. 따라서 父子사이에 말을 나누고 통하기는 점점 어렵게된 실정이다. KBS의 「아버지와의 對話」란 조사에서도 이사실이 거듭 드러났다(한국일보22일자6면). 1주일에 한두번, 그것도 30분이 고작이라는 것이다.

▼대화의 주제는 진학과 적성, 이성과 친구문제인것 같다. 집안의 뿌리가 점점 약해져가는 느낌이 든다.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낼 「공동의 마당」을 마련, 대화를 좀더 넓혀 갔으면 좋겠다.

한국일보

우리의 理想은 健全한 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종신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gnment Certificate 소유

CASH & CARRY

DOMINION SMALL WARES

MARCH 28 - APRIL 9, 1983		SPECIAL
Mr. Freeze 36ml	400x.5¢	$11.05
Mr. Freeze 75ml	200x10	12.15
M & M Candy 198g 24 count		30.60
Leaf Ball Gum	48x10	3.33 (buy 10 get 1 FREE)
Wrigley's Gum	20x30	3.95
Smiles & Chuckles Fruit Jellies	300g	1.79
Smiles & Chuckles Turtles 400g		4.75
Smiles & Chuckles Turtles 200g		2.55
Ring Pops (50¢ BONUS PACK)	36x25	5.90
Fun Dip (30¢ BONUS PACK)	48x15	4.70
Dinasour Eggs	36x15	3.50
Big Foot	96+4x.5	3.15
Hot Lips	96+4x.5	3.15
Y & S Twizzlers Red & Black	36x10	2.69
Neilson Chunks Chocolate Bar	36x40	8.55
Neilson Rosebud Family	24x99	14.69

47 Orfus Rd.
(도매상 Loeb 근처)
789-7214 매니저 김 근 래

컴퓨터-싸이언스코스
학 생 모 집
(국내·외)

저희 Kanata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즈네스 컴퓨터프로그램과 씨스템 분석의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을 COBOL, RPGII, BASIC, ACCOUNTING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율을 알아보십시요.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MR. WAN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함.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Mary Street,
5th Floor, Toronto, Ontario
Canada M4Y 1P9

美의 새韓半島전략 具體化

—4월의 제15차 韓·美安保협의회

안보「中核」의 한국軍현대화 강조될듯

【워싱턴=李文熙특파원】비록 연례회의이긴하지만 오는 4월14, 15양일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5차 韓美안보협의회가 남다른 의미를 갖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간 韓半島에 관련된 미국의 시각에 몇가지 눈에 띄는 일들이 있은후 처음 열리는 안보회의라는 점이다.

눈에 띄는 일들이란 그 첫째가 한반도가 남북한의 대결이라는 차원을 넘어 西유럽·페르시아灣등과 매우 깊숙이 관련된 對蘇전략상의 중요 균형요소라는 평가가 미국의 방위전략가들에의해 내려지고 있다는 것.

이런 한반도에대한 미국의 방위상의 視點변경은 금년초의 국방방위지침서, 와인버거장관이 의회에제출한 국방연례보고서, 의회에서의 각종 관계관리들의증언에서 그윤곽을 드러내었다.

둘째는 한미간의 유대가 어느때보다 긴밀하고 또 그 긴밀함이 강조되고있는 싯점이라는 점이다. 이달 중순께까지 美上下兩院에서있은 한국에 관한 국무, 국방성의각종증언은 이런점을 가장 잘 설명해준 기회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외교적 유대에서 비롯된것이지만 이에못지않게 강조된것은 방위적결속이었다.

이같은두가지 전제적 상황하에서 양측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 협의할것은 한국에대한 위협의 평가와 분석이다. 미국은 이미 소련군사력 보고서에서, 소련의 극동전력증강의 목적가운데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포함돼있다는점을 분명히밝히고있다.

소련의 전략평가와 북한의 對南위협에대한 미국의 평가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것은 세네월드駐韓미군 사령관의 증언으로, 그는 북한은20개여단이상의 유격특수전부부대를 DMZ, 공중, 해상어느 경로로도 한국에 침투공격을 감행할수있도록 능력을 갖추어놓고있다고 증언했다.

이런 평가와함께 설명된것이 한국측의대응태세이고 이 대응태세란 한국군및 주한미군의 전력현대화였다. 이번회의에서 이 항목은 북한의위협평가와 함께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질 항목이다.

오는 86년에 끝나는 제2차 한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은 무려 1백2억달러가소요되는계획이며 그기간중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할 각종장비는 약32억달러 상당으로 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측의요청은 미국의 對外군사판매차관(FMS)의 원활한 제공이다.

그러나 이런 실무문제를떠나 이번회의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그간 美행정부에의해 집중적으로 설명돼 온 소련의 전력증강, 위협, 한반도의 방위전력상의 중요성 강조등 일련의 일들을 미국측의 방위담당자들과 협의를 가짐으로써 그 핵심을 우리가 좀더 명확히 전달받을수 있는 기회가 될수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회의는 미국의 최근전략방향과 방위정책지침이 구체적으로 설명될수 있는좋은 기회가 될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세계는 지금 交戰중"

45개國이 戰爭관련

3년간 5백만 死亡

【워싱턴UPI=聯】전세계1백64개국가운데 45개국가가 재래전이나 게릴라전에 관련되어 있으며 4백만명이상의병사가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미연구기관의 한보고서가 22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민간연구기관으로 미정부의 방위및 核·군사정책에 대해 주로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왔던 방위정보센터가 발표한 지난3년간에 걸친 무력충돌에관한 24페이지짜리 보고서인 교전중인 세계에서 밝혀졌다.

이보고서는 미국이 20개교전국가들에 대한 주요무기공급국가이며 소련도 13개교전국가에 무기를 공급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기간중 전세계의 무력충돌로 1백만에서 5백만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8개 교전지역에 약50만명의 외국군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놀라운사실은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혈충돌과 국제적 긴장이 가속도로 고조되고 있는 점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이어 세계적으로 대·소무력충돌사례는 약 40건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중동이 10건, 아프리카10건, 아시아10건, 라틴아메리카7건, 유럽3건등이라고 밝혔다.

지니·라로크방위정보센터소장은 고전상태에있는 이같은 전쟁이 여러방법으로 美·소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상당수의 무력충돌은 직접적인 미·소충돌로 확산될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이좋게 만찬회장으로 가는 佛·獨 頂上 콜西獨수상(左)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중앙)이 21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EC 10개회원국정상회담 첫날 회의를 마친뒤 만찬회장으로 가기위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브뤼셀21일AP聯合=聯】

EC頂上회담 開幕

경제難題조정 최대과제

【브뤼셀AP聯合=聯】유럽 경제공동체(EEC) 10개회원국 정상들은 21일 서독과 프랑스간에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됐던 유럽 통화제도(EMS)의 위기가 간신히 타결된 가운데 브뤼셀에서 이틀동안의 제25차 정상회담을 개막, 域內 경제문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의장인 헬무트·콜 서독수상은 4시간반동안계속된 첫날회의서 ▲25세이하의 청년실업자 5백만명을비롯한 1천2백만명의실업자해소▲경제회복을위한 공공및 민간부자촉진▲예산적자감축▲국제금융시장의 활성화등 4개문제를 최우선적인과제로 선정하고 회원국들의 협력을호소했다.

EEC정상들은 域內 경제문제이외에도 東西관계, 폴란드정세, 中東평화문제등세계중요문제들도 협의할 예정이다.

페르시아灣오염 非常사태

이란·이라크戰으로 原油누출

【매내마=聯】페르시아灣연안국가들은 21일 이란-이라크戰으로 파괴된 油田으로부터 原油가 대량 누출, 페르시아灣쪽으로 흘러옴에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 원유는 이란의 주요 석유수출항 하르그섬북부 노루즈지역의 유전지대 2곳으로부터 흘러나온것으로 현재 그 누출량은 약 10만배럴에 달하고 있는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쿠웨이트의 루나통신은 문제의 유전이 이달초 이라크공군기들의 폭격을 받은것으로 보이며 이란-이라크戰이 계속됨에 따라 이란의 원유누출방지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통신은 페르시아灣연안국가들이 석유누출사태를 해결짓기위해 이란·이라크의참석하에 지역환경보호회의를 소집하려고 노력중이나 이라크는 만약 이들 유전지대에 누출방지작업반이 파견될 경우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있다고 전했다.

中·蘇3차예비회담 北京개최 합의

【모스크바AP=聯】제2차관계정상화회담을 끝낸 중공과 소련은 제3차예비회담을北京에서 갖기로합의했다고 중공부외상 錢其琛이 21일 밝혔다.

社說

高次的인 平和防衛

—15차韓·美안보協議에 바라는것

「팀스피리트83」大聯合軍事演習이 막바지 단계를 맞았다. 때를 같이해서 제15차 韓·美安保협의회의 일정이 어제 서울과 워싱턴서 동시발표되어 두나라사이의 共同방위가 크게前進될듯한 전망을 비쳐주고있다.

韓·美年例安保회의란은 곧 양국간 聯合방위체제와 그 구체적 한 형태로 실시되는 팀스피리트훈련시리즈 發展의 모체며 발판이다. 포커스·레티나→프리덤·볼트→팀스피리트76으로 이어진 그 聯合작전훈련의 발자국이 모두 이 협의회의 소산인 때문이다.

空前의 성과를 눈앞에 바라보게된 이번 83軍事연습은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실적을 여러모로 드러내고 있다. 3단계에 걸친 훈련과정이 모두 일찌기 自由진영내에서 볼수 없던「최대규모」로 전개되었다. 내용은 가장 實戰답고 현대전술의 정수를 모은것 이었다.

美軍이 크게 자랑한는 여러가지 현대무기·장비를 등장시켰고 韓國과 인연깊은 歷戰의 부대·병력·지휘팀이 대거 출동되었다. 부대관리, 작전지휘, 전술운용면에서 연합협동은 완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實相은 팀스피리트훈련의 차원이 이미 유사시 韓國방위에 국한되는것이 아님을 잘 시사하는것 같다. 韓半島방위와 東北亞의 安定, 美國安保와의 연계, 더나아가 온세계의 平和를 求하는 보다 큰 戰略的 기여도를 헤아리고 남게한다.

15차 韓·美安保협의회의는 바로 이런 韓半島의 전략적위치와 韓國軍의 존재성을 옳게 평가하면서 그에 상응한 큰進展이 따랐으면하는 기대를 우선 걸어두게 한다. 근래 美행정부와 議會에서 韓國에대한 위협과 平和방위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15차 安保協議의 장소를 美國의 수도 워싱턴으로 정한 초유의 사실에서 그 기대는 한층 부푸는바 없지않다.

구체적인 議題는 아직 안밝혀졌으나 내외군사정세에 따른 威脅요소검토, 韓國내 양국군의 현대화, 對韓安保지원 (방위산업포함), 군수보급, 聯合司의 활동상과 軍事협력문제가 협의될것은 恒例에 속한다. 또 그밖에 전번회의에서 제기됐던 재반 현안문제를 을토의할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간 몇차례 회의에서 다루었던 韓國産방산장비의 수출문제를 비롯하여 對韓방위지원을 위한 借款의 형태와 조건, 極東지구美軍장비의 韓國內 보수관계같은 대목은 아직 부분적인 진전에 그쳤을뿐, 후련한 결말을 못지은 실정같다.

따라서 韓美가 워싱턴으로 옮겨진 만큼 이번 회의서는 韓國軍戰力증강문제와 함께 이런 軍事外交的 과제들이 성과있게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게 첫째의 바람이다.

둘째는 國家戰力단위로서의 韓國軍을 더욱 기능화·현대화시키는 과제를 진지하게 협의 진전시켜 주었으면 하는것이다. 특히 軍事정보와 軍需보급 체계, 군사科學기술및防産능력을 보다 충분히 갖추게 하는 방안을 찾도록 여기 지적해 두고싶다.

아울러 세째, 韓·美聯合방위의 나토式 체제 전환문제도 이제는 깊이 논의해야할 계제임을 밝혀두련다. 앞에 살핀 韓國의 전략적위치나, 소련의 美軍事力 분산기도와 북괴 재침 사주, 極東지구美軍의 타지역 轉進과 북괴의 남침같은 空白상태속의 위기를 내다볼때, 안보中核지대인 韓半島방위부터 나토式化할 필요가 높아진것은 분명하다.

발족이래 韓·美安保협의회의는 양국을 주축으로한 同伴안보·平和방위의 태세와 실적을 계속 확장시켜온게 사실이다. 15차워싱턴會議는 그런 記錄위에 하나더 큰 章節을 보태주기 바라면서 尹誠敏·와인버거 두 수석대표들의 우호적인 노력있기를 격려해둔다.

海外여행 風土개선

—망신觀光 근원적으로 反省돼야

경제규모가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계3위로 자란 일본이지만, 일본사람의 됨됨이가 경제활동의 숫자만큼 덩달아 큰 것은 아니다. 일본사람이 나들이를 나섰을때「섹스관광」의 명예롭지못한 딱지를 붙이게되는 데서 그것을 알수 있다. 세계 제3의 경제대국으로 자란 지금에도 하루 아침에 버릴수없는 문화적, 사회적인 틀이 사람으로 하여금「제버릇」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비슷한 현상이 최근 잇달아 말썽이 된 소위「쇼핑관광」으로 나타나고있다. 스스로「중진국」을 다짐하는 한편에서 우리는 아직도「외국상품」앞에 정신을 잃고, 보석과 사치품앞에 맥을 못추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을 찾는 부자나라의 관광객들이「구두쇠 노릇」을 하는데 비해, 거꾸로 우리가 해외에서뿌리는돈이 헤픈 것이 쇼핑관광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관광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 한국을 다녀간 외국관광객이 쓴돈은한사람 평균 9백57달러였다 한다. 이에 비해 우리 관광객이 갖고 나가는 돈은 1천3백41달러로 추산되고있다. 당국이 지난 1월 해외여행경비 규제를 강화해서 일반여행자에게「추가경비」를 인정치 않기로 한것도 이때문이었다.

이번에 다시 당국은 여행자 휴대품 반입억제책을 발표했다. 단순한 일반 여행자뿐만아니라 해외취업자가 가져오는 짐이나, 해외에서 돌아오는 사람의 이삿짐까지 대상으로 잡고있다.

여행경비의 규제를 강화하고, 짐검사를 강화해서「쇼핑 관광」의 창피스런추태를 어느만큼 막을수 있을지는 두고 볼일이다.

문제는 쇼핑관광만이 아니다. 여행 브로커의 주선으로 유럽여행을 떠난 단체관광객 17명중 3명이 돈이 떨어져 런던의호텔에 묶여있다는 어처구니없는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22일자 11면보도).

부푼 해외여행의 꿈이 개인의 곤욕과 나라망신으로 번진 웃지못할 사건이다.

쇼핑관광을 막자는 행정적규제와 함께 보다 광범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외여행풍토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해외여행풍토의 개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릴수도 없기때문이다. 우선 관광업계가 이런한 풍토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된다.

관광이란 단순한 소비나 레저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활동이요, 평생교육의 한 형태라는 안목에서 해외여행자유화시대를 조직해야된다. 또한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때에는 세계가 한 울타리안에 들고있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보다 현실적으로 적응할수있는 기반을 넓히자는 것이 여행자유화의 한 명분임을 잊어선 안된다.

쇼핑관광의 불명예도, 여행브로커의 무책임한 나라망신도 좋게 말하자면 아직은「우물안 개구리」의 때를 못벗은 탓이라고 봐 넘길수도 있다. 그러나 우물안 개구리의 때는 빨리 벗을수록 좋다. 귀중한 달러를 아끼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몸가짐을 터득하는 길이 무엇일까를 시민과 당국이 다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여행풍토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에서 찾도록 해야 하겠다.

얼굴

鄭石謨 民正黨정책위의장

謙德의 인품…每事에 迫力

서울法大를 졸업하는해 경찰에 투신, 各市道警察국장과 치안국장을 역임한후 江原·忠南지사와 내무차관을 차례로 지낸 경찰·내무행정通. 말이없고 무뚝뚝한 인상과는달리 폭넓고 원만한 對人관계를 바탕으로한 성실한자세로서 30여년간 묵묵한精進으로 官界와 政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번 黨職개편에서 숱한 下馬評을 제치고 일약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된것도 과거의 행정경험과 官界와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喜怒哀樂을 쉽게 나타내지않으면서 일단 맡은 일은 愚直하고 박력있게 추진하는 결단력도 起用의 한원인으로 당내에서는 분석.

忠南지사를 끝으로 官界에서물러나 10代總選에서 舊共和黨후보로 政界에 入門한이래 共和黨사무차장을 지냈으며 11代에서는 民正黨후보로 再選, 忠南도지부위원장직을 대과없이 수행했으며 內實있는지역구관리솜씨는 定評이나 있다. 취미는 테니스. 부인 尹明子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

記者의 눈

국세청의「惡役」

요즘 국세청은 무척 바쁘다.

0순위통장 전매자 추적조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의사·변호사에대한 수입금액조사, 불성실신고법인 표본조사, 호화갈비집 세무조사, 갈색소주병 사용여부조사, 미곡상에대한 조사등등 올들어서만도 국세청이 벌여놓은 각종조사작업은 10여가지에이른다.

그중에는 세수확보라는 국세청본연의 업무에 부합되는것도 있지만 그렇지않은 것들도 많다.

세수는 보잘것없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국세청이「십자가를 지는」경우가 더많다.

최근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각종 조사나 미곡상들에 대한 일제조사가 바로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

국세청이 팔방미인격으로 동분서주하는것은 스스로 원해서만은 아니다.

정부내에서도 만만하게 국세청이라고 생각해선지 혹은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기관이라고 믿어선지 소위「소화작업」은 모두 국세청에 떠맡긴다.

국세청은 부지불식간에 정부내의「惡役담당」이되어버린 셈이다. 사정이 그렇다하더라도 요즘 국세청은 너무「겹치기출연」을 하고있다.

전국의 세무공무원정원은 일반직 기준으로 1만2천3백67명.

세무공무원 한사람이 3천2백30명의 국민을 상대하고있는 셈이다.

이런 형편인데도 각종조사지시는 계속하달되니 과연 일선세무관서에서 조사를 제대로 할수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국민들의비상한 관심속에 계속되고있는 0순위통장전매 조사의 경우 처음에는 2천여명의 직원을 동원, 기세를 올렸으나 잔잔한 잡음과 함께 철저한 끝내기도못하고 결국 인원부족으로 상당수의 세무공무원을 제자리로 되돌려 보내야했다.

반대로 각종 조사활동이 모두 실효를 거둔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처방없이 덮어놓고 세무조사만 강화한다고해서 모두가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더욱 곤란한 발상이다.

비단 세무행정뿐만이 아니라 모든행정은 강경책만으로는 소기의성과를 거둘수없다.

특히 경제행정은 둑을쌓고 물의흐름을 가로막는것보다는 물길을 터주고 흐름을 유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국세청의「惡役」은 어느정도 자제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朴永喆경제부기자】

金仁建차장 出國

東京음악제 취재

「주간女性」金仁建차장은 일본 東京에서 개최되는 제12회「동경음악제」를 취재보도하기 위하여 22일 하오 JAL機편으로 출국했다.

人事異動

內務部 ▲釜山市감사실장 金振煥 ▲釜山市보사국장 朴淳台 ▲〃산업국장 徐東振 ▲議政府시장 陳滿鉉 ▲忠州시장 洪舜基 ▲慶南도기획관리실장 朴鍾澤 ▲釜山市도시계획국장 崔海友 ▲濟州도기획관리실장 全昌壽

文敎部 ▲慶北大사무국장 河泰鉉 ▲全南大〃 姜基洪 ▲忠北大〃 姜永善 ▲慶尚大〃 朴浚烈 ▲禮山농업전문대학장 尹用健(교수) (21日字)

統一院 ▲기획관리관 姜壯大

法制處 ▲제2국법제관 安昌洙

山林廳 ▲조림국장 鄭泰鳳(조림국보호과장) (22日字)

援護處 ▲관리국장 李千雨(운영국장) ▲운영국장 李完秀(공보관) ▲공보관 黃利潮(光州원호청장) ▲光州원호청장 柳應馨(관리국장) ▲釜山원호청장 金健中(공보관) ▲국립원호원장 朴參圭(釜山원호청장) (23日字)

文化放送 ▲TV편성국 편성기획부장 金萬龍 (21日字)

每日經濟新聞社 ▲전문이사겸주필 金在鳳 (22日字)

中小企業銀行 ▲(庶務部)長 李成洙 (21日字)

政局往來

◆두公主에「서울온기분 어떠냐」

全斗煥대통령 내외는 22일하오 來韓한 아마드·샤 말레이지아 국왕내외를 金浦공항에서 영접한후 숙소인 신라호텔까지 안내하고 약10분간 환담.

全대통령은『지난81년 말레이지아를 방문했을때 환대해준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건넸고 영부인 李順子여사는『公主님들도 앉으시라』며 수행한 두 공주에게 同席권유.

全대통령이 두公主에게『서울에 온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아마드國王은 두공주를 대신해서『아마쇼핑하러 밖에 나갈 생각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웃음이 터졌다.

이날 金浦공항에서 국왕의숙소인 신라호텔에 이르는 연도에는 수많은 人波가 나와 양국기를 흔들며 아마드국왕의 訪韓을 열렬히 환영했는데 全대통령이 두공주에게『환영인파를 보았느냐』고 묻자 아마드국왕은 아프잔왕비에게『아마 1백만명은 나온것같다』고 어림하기도.

◆黨대표는政策위의장4寸이아니다

22일상오9시20분께 黨舍에 출근한 陳懿鍾신임民正黨대표위원은 첫 執務를 당무 보고청취로 시작했다.

이날아침 鍾路區付岩洞 자택으로 찾아온 친지와 지역구인사들 賀客들을 접견하느라 평소보다 30여분 늦게 출근한 陳대표는 7층 정책위의장실에서 李相宰사무차장을 불러 전당대회준비에관한 보고를 받은데 이어 10시부터 權翊鉉사무총장 李鍾贊총무와함께 黨憲개정내용 전당대회준비과정등을 협의.

陳대표는 또 인사차 밀려드는 소속의원및 외부인사들을 수시로 만나면서 대기하고있던 보도진들을 불러들여 갖가지 질문에 유머를 섞어가며 재치있게 답변하는등 솜은 정치관록을 誇示(?).

그는『내가 대표위원이 되고보니 대표위원을맡게하고그만둘것이라는 오해가 생겨나 黨憲에있는 대표위원의 임기조항을 다시 살렸다』며『왜내가 엄마안하고 그만둘것이라고 쓰느냐』고 슬그머니 핀잔.

陳대표는『당총재에게 주요당직자 제청을 복수로 할것이냐』는 질문에『그것은 대표위원에게는 작은 질문』이라며『적어도 나는 대표위원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것이니 이제는 정책위의장 4촌쯤으로 생각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여 폭소가 터지기도.

"환영人波 보았느냐"에 "1백만명은 나온것 같다"

◆民韓,「4月국회對策案」에 猛攻

22일의 民韓黨당무회의는 총무단이 작성한「4월임시국회대책案」을놓고, 다수의 당무위원들이 林鍾基총무를공박하여 한동안說往說來.

이날林총무는『10월에 있을 IPU총회 준비때문에 夏期임시국회를 열기 어려워 4월 임시국회 會期를 1개월정도로 잡아 院內대책을 세우겠다』고 보고하자 辛相佑부총재는『지난번의 지구당개편대회에서 政治議案의 처리를 위한 강력한 원내 투쟁을 公約했는데 4월 임시국회는 간단히 끝내고 또한차례 임시국회를 열어 政治議案을 매듭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吳洪錫·金承穆의원등은『총무단의계획은 계류중인 政治議案의처리를 사실상 釋散시키는행위』라고 비난.

잇따른 공격으로 守勢에 몰린 林총무는『5월말이나 6월초 임시국회를 다시 열수있도록 民正黨측과 접촉하여 다시 보고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철회.

◆홍보요원인 長官보고 못듣겠다

油價인하대책등을 다룰 예정이던 22일의 국회商工委는 與野가 金埈成부총리의 출석문제를 놓고 시작과 동시에 停會.

회의벽두 金順圭(議政), 李元範의원(民韓)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油價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때 경제책임장관이 마땅히 나와야한다』며 金부총리의 출석을 요구.

李의원은 특히『動資部는 경제기획원의 一方정책을 대변만 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홍보요원으로 轉落한 주무장관들의 보고는 들을 필요가없다』고 주장.

야당측의 잇단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오자 李台燮위원장은 停會를선포, 의견조정을 모색했으나 접근점을 찾지못한채 하오늦게까지 場外舌戰만 장시간 계속했다.

民正黨의 鄭善昊간사는『야당이 상공위 소집을 요구해놓고 정부보고 청취를 거부하는것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한 반면 民韓黨의 柳在熙 간사등은『뻔한 들러리행위인데 정부정책을 합리화시켜줄수는 없다』고 출석을 거듭 주장.

停會가 장시간 계속되자 李위원장은 金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이미 經科委에서 자세한 보고를 했기때문에 더이상 할말이없다』는 통고를받은뒤 民韓黨의 林鍾基총무에게 소속의원들의 참여를 설득해줄것을 요청했으나 林총무는「상공위 소관」이라고 냉담한 반응.

1983년도 조합원 정기총회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차년도 조합원 정기총회가 정관 제3조 1항 및 제3조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리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ㅁ 때 1983년3월31일(목) 오후7시

ㅁ장소 한인신용조합사무실 641A BLOOR ST. W.

ㅁ의제
1. 출석호명 또는 등록
2. 전회의록 채택
3. 이사회 보고
4. 업무보고
5. 대출위원회 보고
6. 감사위원회 보고
7. 정관개정 (개정안은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8. 사업계획 및 임원선출
9. 기타
10. 폐회

※회의참석시 통장을 지참, 혹은 구좌번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토한인신용조합이사회

목사 고시공고

미주 한인장로회 총회 목사고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목사 고시에 응시하실분은 서류를 구비하여 절차를 밟아 응시하심 바랍니다.

1. 고시자격 미주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교인(L.A. CHICAGO, NEWYORK) 졸업자, 장로회 정규신학대학 졸업자로서 무흠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27세이상 남자로서 목사의 사명감 있는자.
2. 고시일정 1983년5월18일(수) 오후3시~9시
3. 고시장소, 총회장소인 토론토 영락교회당
4. 고시위원및 과목시간

위원	김재광목사	최이열목사	이관숙목사	최광수목사	방신학목사	최양선목사
과목	구약	신약논문	교회사	설교제출	교회정치	논문
시간	오후3시~4시	오후4시~5시	오후6시	4월30일까지	오후7시~8시	서류와같이제출

★고시위원 전원 면접 오후8시~9시

5. 논문제목,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 관한연구 ○신앙, 교회생활, 선교를 칼빈의(200자원고지 25매)교회론과 비교하고 현대미주한인장로회에게 주는 의미를 고찰할것.
6. 신약논문제목 : 사도바울의 기독론, 사도요한의 기독론 ○제목중에서 택일할것.
7. 설교제목 : 은혜를 받은자 눅1:26~38 200자원고지 15매 (213) 733-3440, 733-9089
제출할곳 : Rev. KWHNG SOO CHOI 1359 W. 24Th St. L.A. Ca. 90007
8. 서류및 논문제출시일 : 1983년 4월20일까지 기일엄수할것, 원고지를 필히쓸것.
9. 제출서류 : 1. 목사고시청원서 1통(소정양식) 2. 이력서1통 3. 명함판사진2매 4. 대학및 신학대학 졸업증명서및 성적증명서1통 5. 노회장추천서1통 6. 고시응시료 $50
10. 제출처 : Rev. Yang Sun Chol 고시위원서기 최양선목사
16 New Terrare Rd. # 4 Brookline Mas.02146 (617) 734-8454

미주한인장로회 총회
총회장 이기덕
목사고시위원장 방신학

미주한인장로회 총회 소집공고

하나님의 은총이 본총회 산하 교회위에 충만하심 기원하오며 제8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함을 공고하나이다.

●시일 : 1983년 5월 17일(화) 오후 7시에서 19일(목) 정오12시까지
●장소 : 토론토 영락교회당(김재광목사 시무) 126 O'CONNOR DR. TORONTO ONT, CANADA
●전화 : (416) 759-2006

미주한인장로회 총회
총회장 이기덕
서기 최광수

JAL·美공군기 衝突모면
어제 釜山上空서 百m까지 접근

【東京=聯】 釜山 상공에서 21일하오 일본항공사(JAL) 소속의 DC8기와 미공군의 C141수송기가 동일고도에서 1백m까지 근접하는 니어미스사태가 발생했으나 JAL기가 급선회함으로써 일대 참사를 모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JAL이 22일 밝힌 바에 의하면 승무원 8명, 승객 1백56명을태운 濟州발 나고야행 전세기가 21일하오1시09분께 釜山동쪽 18㎞상공(고도 8천8백50m)을 비행중 전방에서 같은항로로 접근중인 미공군의 C141수송기를 발견했다.

순간 야마모토기장(47)이 급강하선회하여 충돌은 모면했으나 양기의 수평거리가 1백m에 불과하여 급강하선회 조작이 조금만늦었더라도 일대참사를 야기할뻔 했었다는 것이다.

이지역 상공은 大邱관제센터 관제를 받고있는데 JAL측에 의하면 大邱관제센터는 「관제상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한다.

JAL전세기는 제주도에 2박3일 여정으로 나고야시 단체관광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부상자도 없이 21일 하오2시07분 나고야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李圭光씨에 刑執行정지
慢性췌장염등 건강惡化
서울地檢

서울지검은 22일 李哲熙·張玲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1억원이 확정된 전광업진흥공사사장 李圭光씨(58)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검찰은 李씨가 입원하고있는 서울大병원담당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및 검사의 임검과 만성췌장염등으로 형을 집행하기에는 너무 건강이 나빠 이같은 결정을내렸다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해 5월18일구속돼 지난8일 형이 확정됐는데 지난해 12월17일 보석결정으로 풀려나 서울大병원에 입원했다가 龍山區 漢南洞 자택에서 치료를 받던중 대법원 확정판결직후인 지난 11일 다시 서울大병원에 입원했었다.

현사소송법 4백71조1항은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수없는 염려가 있는때」에는 검사가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형집행정지를 할수 있게 돼있다.

폐쇄된 淨水탱크에 中學生 3명窒息死

【淸州】 22일 하오1시께 충북 槐山郡槐山邑新基里 마을뒷산에 폐쇄된채 방치된 상수도정수탱크 속에서 중학생 3명이 숨진채로 발견됐다.

이들 3명의 학생은 이 마을에 사는 신우철(15·모중3년) 신완철(15·〃) 신승철군(15·〃)등 사촌형제간으로 일요일인 지난20일 하오7시께 집에서 숯과 양초등을 갖고 나간후 돌아오지않자 가족들이 찾아 나섰다가 이날 폐쇄된 정수탱크에서 숨진시체로 발견한것.

경찰은 이들이 깊이 3m, 너비 5m의 콘크리트정수탱크속에서 숯과 양초를태운것으로 미루어 일산화탄소에질식돼 숨진것으로 보고있다. 【聯】

專攻醫、대학원못간다
保社部 "환자진료 지장" 法개정안마련

전문의자격을 얻기위해 專攻醫로 수련중인 사람은 의과대학 대학원과정을 밟지못하게 된다.

보사부는 22일 專攻醫로 수련중인 의사가 박사학위등을 밟기위해 대학원과정을 밟는것은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인적자원의 낭비가 되는등 의료행정상의 문제가 있다고보고 전문의 수련규정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다.

한편 보사부는 전문의 자격시험 규정도 바꿔 1차(필기)및 2차(실기및 구술)로 나누어 실시하며 ▲외국에서 수련의 자격을 체득한자 ▲국내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수련병원등 수련기관에서 4년이상 교육경험을 가진 사람은 1차 필기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特急列車도 통학권
鐵道廳、4월1일부터 30%할인

철도청은 4월1일부터 장거리통근자및 통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보통열차에만 발매해오던 정기승차권을 특급열차에도확대실시키로했다. 정기승차권은 1개월분과 3개월분으로 2종류인데 1개월분 최저요임(1백3㎞)은 통근권 5만4천6백원, 통학권 3만2천5백원으로 특급정규요금의 30%와 50%를 각각 할인한요금이다.

이같은 특급정기승차권 발매는 각선마다 특급운행횟수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져 2백㎞까지는 통근·통학이 가능해졌기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한편 주요통근구간의 소요시간은 서울—天安간이 1시간10분, 서울—鳥致院 1시간30분, 서울—大田 2시간, 城北—春川 1시간47분, 東大邱—釜山 1시간31분이다.

◇特急·定期券의 運賃

구분 \ 구간		서울~天安(98㎞)	서울~鳥致院(126·6㎞)	서울~大田(167㎞)	城北~春川(88㎞)	東大邱~釜山(118㎞)
특급운임(1인·석)		1천3백원	1천6백원	2천1백원	1천2백원	1천4백원
1개월	통근	5만4천6백원	6만7천2백원	8만8천2백원	5만4백원	5만8천8백원
	통학	3만2천5백원	4만원	5만2천5백원	3만원	3만5천원
3개월	통근	16만3천8백원	20만1천6백원	26만4천6백원	15만1천2백원	17만6천4백원
	통학	9만7천5백원	12만원	15만7천5백원	9만원	10만5천원

豫備軍、훈련장서 亂動
30代、교관人質잡고… 20분만에 잡혀

【全州】 22일 하오3시께 전북高敞郡興德面 예비군교육장에서 훈련을받던 예비군전복기씨(33·전북高敞郡高敞邑邑內里388)가 교관 김광태대위를 인질로잡고 카빈총을 난사하는등 20여분동안 난동을 부리다 긴급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이날 훈련장에서 사격연습을 위해 실탄6발을 지급받자마자 장전한뒤 김교관을 위협, 대대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김교관을 인질로삼고 高敞읍내로 5백여m 들어오다 신흥교부근에서 김교관을 돌려보낸뒤 공포 2발을 쏘는등 혼자 난동을 부렸다.

긴급출동한 경찰은 신흥교부근에서 전씨를 포위, 20여분간 대치하다 민간인으로가장한 高敞경찰서 星山파출소소속 황일규경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 전씨를 덮쳐 검거했다.

선박침몰 바다오염 船長·船主입건

【群山】 群山지구 해양경찰대는 22일 침몰선박 자사·호선장 유리시즈·퀸토씨(36·필리핀)와 선주인 일본 고바오묘 세인트선박 대표 고바야시·도시씨(小林利42)등 2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聯】

비뚤어진 國校生들의 호기심
外製학용품 人氣
수입自由化물결에 너도 나도
"國産도 質좋은데 왜 사주나"

◇서울시내 모국민학교의 학용품 검사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외제학용품들. 어린시절부터 외제선호사상에 길들여지게 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外製선호 경향이 날이 갈수록 심화될것같다。국산품애용을 몸에익혀야할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오히려 어른 빰치게 外製학용품을 좋아하고 다투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경향은 수입자유화 조처이후 일부학용품이 수입됨에 따라 더욱 확산될조짐까지 띠고있다。많은 학교가 주1회씩 학용품조사를하고 있지만 「물결」을 막기가 어렵다。

교육전문가들은 학용품 메이커부터 정신을 차려야겠지만 쓸만한 국산도 많이 있는만큼 학부모들이 분별력을넣어주어야 한다고 충고하고있다。

충남도교육위가 지난 15일 大田시내 초·중·고학생 3백명을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만년필을쓰는 학생의 23%가 외제를 사용하고있었고 외제연필을 사용하는학생도 4%나 됐다。

또 서울D국교 6학년X반의경우 반수이상의 어린이들이 외제지우개를 사용하고있었다。

특히 어린이들사이에「향기나는지우개」로 불리는 日製지우개는 국산에비해 값이 4~8배나 비싸지만 철없는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 크게 유행하고 있다。

2백원짜리서부터 8백원까지하는 외제지우개는 국산과 질적 차이는 거의 없지만 디자인이 예쁘고 향기가 은은해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S국교의 경우 학용품검사 실시후 학교에서 외제 학용품을 쓰는 어린이들은 거의 없지만 집에서는 외제를 쓰는 어린이들이 많다。

이학교 4학년X반 趙모군(9)은 『친구들 가운데 5천원짜리 연필깎기가달린 외제필통을쓰는가 하면 3천원짜리 외제 제도용샤프를 갖고와 자랑하는 친구도있다』면서 『집근처 상가에있는문방구에가면 외제샤프가 그득쌓여있다』고 했다。

어린이들이 선물로 주고받는 생일카드도 국산은 찾아보기 어렵다。

B회사에서 만든 1백~2백원짜리 국산카드는 문방구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는반면 3백원에서 5천원까지 하는 외제카드는 가게마다 하루10여장씩이나 팔리고있다。

서울S국교 6년 李모양(11)에 의하면 친구들생일날이면 으레 문방구등에서산 외제카드를 선물로 주는게유행이라면서 외제는 종이가좋고 그림도 예뻐서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시켜 팔리고 있는 외제학용품들은 문방구점보다는「선물의집」으로 불리는 곳에서 주로 팔리고 있다。

C회사에서 수입해 주로 공급하고 있는 지우개와 카드는 C회사체인점을 통해 팔리고 있는데 이곳의 경우 고객의 절반이상이 국민학교 어린이들이다。

K쇼핑센터 체인점에는 하트형지우개、연필깎기가 달린 지우개、연필치우개、기차등 1백여개의 외제지우개와 외제카드들을 진열해놓고 팔고있다。

이가게 점원 金모양(28)에 의하면「고객의 절반이상이 어린이 고객인데 어린이들이 먼저 외제를 요구해 하는수없이 파는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외제선호에 젖어들자 일반문방구점은 고객을 외제취급점에 뺏겨 고전하고 있다。

서울 江南區盤浦洞 Y문방구 주인 尹모씨(34)는『요즘 국민학교어린이들 가운데는「선물의집」을 문방구점으로 아는 어린이들이 많다』고 지적하고『문방구점에서 7백원에 살수 있는 어린이용 국산지갑을 1천2백원을 주고도 굳이 선물의집등에서 산다』고 말했다。

尹씨는 또 샤프등의 경우도 국산과 외제가 질적 차이가 있다해도 3~4배 비싼 외제가 실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사실 어린이들은 고장으로 못쓰는경우보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값비싼 학용품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어린이들의 무분별한 외제학용품 선호경향에대해 서울[illegible]국교 [illegible]교감(45)은 『학교교육이 국산품애용을 부르짖고 있지만 수입학용품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소비주체가 상품지식이없는 어린이들인 학용품의 경우는 외제를 전시·판매하는것 자체도 문제가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松田국교 崔潤洪교사(45)도『국산제품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굳이 수입을 개방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외제병에 젖게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한편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전무 金洙坤씨(49)는 어린이들의 비뚤어진 외제선호 경향을 바로잡기위해서도 학부모들이 앞장서 어린이들에게 국산품애용사상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朴珍列기자】

李喆洙씨 保釋결정
옥살이10년만에… 보석금 25만달러

◇李喆洙씨

【샌프란시스코支社】 살인누명을쓰고 10년째 옥살이를해온 재미교포 李喆洙씨(30)가 21일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았다.

캘리포니아주 스탁턴지법 샌호킨법정(재판장 피터·세이어즈판사)은 이날 李씨변호인이낸 보석신청을 즉석에서 받아들이고 보석금을 25만달러로 결정했다.

이에 스튜어트·헬론변호사는 李씨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감안할때 보석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 이를 낮춰줄것을 요청하자 세이어즈판사는 오는28일 보석금인하청문회를 열고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李씨후원회측은 李씨를 즉각 석방시키기위해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보석결정후 어머니 李美來여사와 柳在乾후원회 회장은 재판부의 특별허가로 李씨와 30분간 면회했다.

李씨는 옥살이중 78년에 저지른 살인(제2사건)에 대해서도 지난1월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으로부터 원심파기 판결을받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원심재판지인 샌호킨카운티 구치소로 지난16일 이감됐었다.

趙治勳、NHK盃 차지
오오다께 半집差 눌러

【東京=宋孝彬특파원】 지난 17일 棋聖타이틀을 쟁취하여 기계 천하통일을 이룩한 趙治勳 棋聖·名人·本因坊·十段(26)은 21일 日本공영NHK방송이 주최하는 NHK杯쟁탈토너먼트 바둑대회 결승에서 오오다께(大竹英雄)9단을 반집차로 누르고 우승(상금2백만엔)했다. NHK杯는 제한시간 5분에 한수마다 30초이내에 두어야하는 초속기바둑. 이로써 장고파인 趙棋聖은 속기에도 능함을 보여주었다.

등교길 國校生 버스에 넷死傷

【釜山】 22일 상오 7시50분께 釜山市北區毛羅洞 평화가스앞 횡단보도에서 등교하던 毛羅국교1년 양영순양(8)과 노희숙양(12)등 4명이 공항여객소속 부산5자3147호 버스(운전사 서정수·41)에 치여 양양은 숨지고 노양등 3명은 부상, 병원에 옮겼으나 중태다.

노양등은 이날 교통보조원인 이마을 새마을 지도자 강정석씨(46)의 신호에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정지신호를 무시한채 달려온 사고버스에치여 변을당했다.【聯】

5行뉴스

◇濟州 카페리 운항停止

【釜山】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객실운임 초과징수문제로 말썽을빚은 부산—濟州간 정기여객선 동양고속 페리소속 카페리3호(1천32톤)에 대해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운항정지처분을내렸다.【聯】

◇서울大生7명 抗訴기각

서울형사지법 항소7부(재판장 李鍾樸부장판사)는 22일 李在哲피고인(22·서울大토목공학과4년)등서울大생 7명에 대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기각, 원심대로 징역 1년에서 1년6월을 각각선고했다. 李피고인등은 지난해9월16일 학생회관 등지에서 「한일안보경협을 거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반정부유인물 1천8백 여장을 뿌리며 교내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찻집女主人 살해범에 無期

【釜山】 釜山지법 제5형사부 徐廷友 부장판사는 22일 影島찻집 여주인 살해사건의 범인 金春烽(23·釜山市東區凡一2洞12) 黃五中(34·釜山市南區門峴2洞479의26)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趙三來(22·釜山鎭區田浦1洞415)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氣象臺의 넉살
中央기상대 관측사 李熙薰씨
"잘해야 본전…오래는 살겠죠"

등대(燈臺)는 바다에만 있는게 아니다。땅에도 있다。낮밤이 따로없는 뭍의 燈臺手— 바로 중앙기상대다。

기상대는 1년내내 항상 가슴을 죄며 지낸다。예보는 잘해야 본전이고 틀리는 경우 비난바가지가 쏟아지기때문이다。변화무쌍한 날씨가 가물면『왜 가무느냐』、추우면『왜 추우냐』고 시비조로 나오는데는 할말이없다。

그러다보니 기상대직원들은 송구해 하면서 산다。죄스러운 기분을 떨치지 못한다。

오늘(23일)은「세계기상의날」。이날만큼은 기상대직원들도 1년에 처음 허리를 펴본다。이날을맞아 기상대는 금년의 표제로「기상관측자(觀測者)」를 택했다。금년을 기상관측자로 선정한 이유는 기상관측이 모든기상의 기초적인 자료라는 점에서다。

기상관측자는 말그대로 기상을 관측하는 사람。그중 李熙薰씨(31·사진)는 좀 유별난 관측을한다。기상위성사진을 수신하고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일을 맡았다。

나이답지않게 베테랑인 李씨는 매일 기상위성과 대화를 하고있는셈이다。그의 대화상대는 일본의 기상위성 GMS2호와 미국의 노아6·7호。이들위성은 한반도는 물론 중공、일본을 포함한 극동전역의 기상사진을 李씨에게 보내준다。李씨는 이를 판독、우리나라의 날씨예보에 보탬을 주고있다。

『예보란 아무리 정확성을 기한다고해도 1백%란 바랄수없읍니다。그래도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정확성이 높아졌읍니다。위성기상 탓이지요』

그는 홍수나 가뭄 또 태풍은 예보할수있으면서도 이를 막는기술이나 예방책이 없음을 한탄한다。

李씨는 또 날씨만큼 변덕이 심한것도없다고 지적한다。도대체 天氣라는것은 하루에도 1천㎞이상을 달려가면서 갖은 못된짓(?)을 다하고있으니 아무리 예측을잘해도 틀리게 마련이라는 주석이다。

『욕을많이먹는 사람일수록 오래산다는 말이있죠。그런점에서선 아마 기상대사람들이 長壽할것만은 틀림없읍니다』기상대 사람들은 넉살도 좋은 모양이다。【徐泰熏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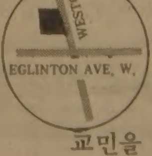
SHANGHAI
레스토랑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334 SPADINA AVE.
596-7311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532-1054

한국 가구의 전당
KIM'S ART GALLERY

◎옥돌가구
◎한국고전가구
◎동양화
◎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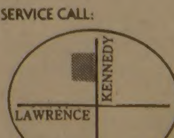
◎나전칠기
제작·수리
◎맞춤전문
OPENING HOURS
MON—FRI: 10:00—9:00
SAT: 10:00—6:00

교민을 위한 본 한국인의 가구공장에서는 언제나 최대의 신용과 친절을
바탕으로 항상 여러분께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읍니 김석환올림

1198 WESTON RD.
TORONTO TEL : 247—3226

1286 WESTON RD.
TORONTO TEL : 243—0233

OUT OF THIS WORLD
CARPET CLEARANCE SALE
SAVE UP TO 70%
카펫세일
FREE INSTALLATION
FREE UNDERPAD (스폰지 무료)
FREE DELIVERY (무료 배달)
FOR FREE SHOP-AT-HOME SERVICE CALL:
757-2811



STEWARTS CARPET LAND
1200 KENNEDY ROAD
SCARBOROUGH, ONTARIO

"사파타! 半年을 별렀다"

張正九, 26일 大田서 執念의 설욕戰

"11萬弗 챙길일만" 챔피언 느긋 / 張"초반부터 파고들며 집중타"

◇작년 첫 대결때의 '친구' 지난해9월 첫대결때의 張正九(右)와 사파타. 도전자 張은 『세차게 몰아붙이겠다. 두번실수는 하지않겠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사파타역시 만만치않다.

프로복싱

『대전료(11만달러)를 챙길 일만 남았다』(사파타)『6개월전의 한(恨)을 기필코 풀겠다』(張正九) 26일 大田 충무체육관에서 벌어질 WBC라이트플라이급 타이틀전을 앞두고 챔피언 일라리오·사파타(25·파나마)와 동급 4위의 도전자 張正九(20)는 서로 승리를 장담하며 마지막 전력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일상오 한국에도착, 서린호텔에 여장을 푼 사파타는 21일부터 극동증권 앞체육관에서 가볍게 워밍업을 했다. 168㎝의 장신으로 스피드가 뛰어난 사파타는 스트레이트와 어퍼컷이 매우 예리하다. 아마전적 32승4패를 기록하고 19세때 프로로 전향한 사파타는 80년 3월 일본 東京서 나까지마·시게오를 물리치고 챔피언이 된후 8차방어에 성공했다. 사파타는 82년 2월 우루수아에게 타이틀을 빼앗겼으나 우루수아를 물리치고 새왕자가 된 일본의 도모리로부터 지난해7월 다시 타이틀을 탈환했다. 지금까지 22승(13KO)2패를 기록하고 있는 사파타는 『張은 스피드가 뛰어나고 강펀치보다는 집중타를 퍼붓는 선수다. 지난해 張과 맞붙어 이긴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리는 나의것』이라고 자신만만한 태도.

張正九의 가장 큰 약점은 신장의 열세. 사파타보다 4㎝이상 작다. 아마전적 34승2패를 기록했으며 프로전적은 20승(9KO)1패. 지난해 사파타와 대전하기전까지 18전승8KO로 상승세를 탔다가 타이틀전에서 제동이 걸렸다.

세계타이틀에 도전하는 선수는 보통 2~3개월전에 훈련캠프를 설치, 강훈련에 들어가는데 張正九는 6개월전 사파타에 고배를 마신뒤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해왔다. 특히 金鐵鎬와함께 숙식을한 워커힐아파트는 주변에 로드웍 코스등 좋은 훈련조건을 갖추었다.

張正九는 지난 2월 타이틀매치 전초전에서 필리핀의 티토아벨라를 2회KO로 물리쳐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다.

張正九는 파고드는 연습을 많이 했으며 사파타의 스피디한 스트레이트를 피하기 위해 상체를 많이 흔들면서 집중타를 날리는데 주력해왔다는것.

張正九는 지난번 사파타에게 패한 이유로 체력열세를 꼽았다. 막판에 체력이 떨어져 실점, 패배했기 때문에 체력보강에도 노력했다.

이번 대전은 WBC의 새 규정에따라 12라운드로 대전횟수가 줄어들어 초반부터 세차게 밀어붙일 계획이다.

공개스파링은 23일 하오 2시 극동중앙체육관에서, 룰미팅(경기규칙협의)및 타이틀매치 조인식은 25일 하오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심은 루디·오르테가씨(미국) 부심은 리처드·스틸(미국) 두안·포드(미국) 살바도르·플렌세시아씨(멕시코)등이다.

【金仁圭기자】

李太燁 한골넣고 두골도와

國民銀 대포알 슛 2發등, 패기의 海龍 격침 4-1

韓電도 강호 雄飛깨고 14強에

대통령盃축구 9일째

◇"태클 씨름" 企業銀行과 商業銀行의 접전。企銀FW劉永彬이 대시하는 순간 商銀선수가 뒤에서 태클하고있다。企銀이 沈教鳳 柳東春의 득점으로 2-1로 이겼다。

韓電 企業銀 國民銀 慶熙大가 22일효창구장서열린 제31회 대통령배쟁탈 전국축구대회 9일째 결승토너먼트 1회전경기서 雄飛와 商業銀·海龍을 각각 꺾고 14강이 겨루는 결승토너먼트 2회전에 합류했다. 國民銀行과 海龍의 대전은 근년에 보기드문 빅게임이었다. 1만5천여 관중이 열광한 가운데 國民銀은 대포알같은 슛을 연속 터뜨려 그라운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이번 대회 예선전서 조2위로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한 國民銀行은 이날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 패기만만한 海龍을 맞아 팽팽한 경기를 펼치던 國民銀은 전반31분 李太燁이 페널티에리어 우측서 센터링 한는듯 하다 그대로 날린 30여m 롱슛이 골네트를 갈라 선제골을 기록했다. 李太燁으로서는 이번 대회 첫골이었다.

國民銀은 여세를몰아 계속 공격, 전반36분 문전에서 李瑾吉이 머리로 떨어뜨린 볼을 白聖辰이 30여m의 롱슛, 골문좌측에 꽂혀 1점을 추가했다.

돌파력이나 주력이 돋보인 海龍도 파상적인 공격을펼치다 전반 40분 한때가 우르르 國民銀골문을 향해 들어가며 金鶴守가 문전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준볼을 文敏鎬가 가볍게 밀어넣어 한점을 만회했다.

후반들어서자 國民銀의 공격이 두드러진 반면 국가대표 朴英洙가 지키는 海龍의 골문은 위기에 시달렸다.

후반9분과 35분 朴英洙의 선방으로 海龍은 위기를 모면했지만 후반40분 國民銀의 千秉浩가 좌측코너부근서 센터링, 李太燁이 페널티에리어 우측서 볼을 잡게 옆으로 밀어주자 李台熙가 쏜살같이 뛰어들며 툭 찬것이 골인됐고, 43분 李楽孝가 李太燁의 도움으로 다시 한골을 보태 4-1로 대승했다.

海龍은 후반들어 金鶴守·李相來·文敏鎬·白鉉善이 4차례나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못해 참패했다.

한편 企業銀은 商業銀을맞아 전반11분 沈教鳳의 문전헤딩슛으로 리드를 잡았으나 전반29분 商業銀 朴仁成에게 헤딩으로 동점골을 허용, 팽팽한 경기를 펼치다가 후반5분 柳東春이 왼발로 결승골을 터뜨려 2-1로 승리했다.

韓電도 예상을 깨고 강호 雄飛를 1-0으로 물리쳐 지난해 코리안리그서의 패배를 설욕했다.

韓電은 전반11분 林承根이 우측서 코너킥, 페널티에리어 정면에있던 姜在哲이 볼을잡아 논스톱으로 때려 절묘한 결승골을 뽑았다.

◇제9일전적 ▲결승토너먼트 1회전

한전 1(1-0 0-0)0 웅비
국민은행 4(2-1 2-0)1 해룡
기업은행 2(1-1 1-0)1 상업은행
경희대 3(3-0 0-1)1 대전한남

作戰누른 방망이

實業야구、浦鐵감독없이 5승1패

지난해 1년동안 6~8위의 하위권에서 맴돌던 浦鐵이 연일 맹타를 휘두르며 우승을 노리고있다.

浦鐵은 22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실업야구 1차리그 9일째 경기서도 전날 對商銀전(안타15개)의 여세를 몰아 2루타 4개를 포함한 14안타를 때리며 農協을 11-6으로 일축했다.

작전보다는 폭발력있는 방망이로 감독부재의 浦鐵은 이날로 4승1패인 韓電과의 경기(25일)가 우승향방을 결정지을것같다.

浦鐵은 앞으로 우승고지까지 2게임을 남기고있는데 록, 단독선두로 나섰다.

浦鐵은 1、2회에 農協에 3점을 내주면서도 꼬물거렸으나 4、5회말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그러나 4、5회말 봇물터지듯 이 쏟아진 9개의 안타로 간단히 전세를 뒤집었다.

4회말 2사후、선수겸 코치인 5번 辛鉉碩과 6번 柳相浩의 연속2루타로 포문을 연 浦鐵은 農協수비진의 에러2개와 8번 金哲敏 9번 曺國鉉의 연속안타의 뒷받침을 받아 5-3으로 앞섰다. 浦鐵은 5회말에도 안타 4개와 수비에러를 묶어 4점을 추가, 일찌감치 승부를 굳혔다.

한편 商業銀行도 초반3번 金永稷의 홈런등으로 雄飛에 3-0까지 앞섰으나 투수진의 열세로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11-4로 역전패, 3승3패로 정상권에서 멀어졌다.

◇제9일전적

상업은(3승3패)	021 100 000	4
웅비(2승3패)	004 041 11×	11

▲홈런=金永稷(3회·상)

농협(1승3패)	210 000 030	6
포철(5승1패)	000 540 20×	11

▲홈런=金男洙(2점·8회·농협)

三美트리오 연속홈런

1회말 鄭求善·金鎭雨·李英求 MBC격파

프로야구 시범경기

在日同胞투수 張明夫가 처음 시범경기에서 완투승을 거두었다. 釜山 1차전에서 역전패후 팀보다 앞서 仁川으로 돌아왔던 三美에이스 張明夫는 22일 仁川 홈구장서 열린 3차전에 선발투수를 자청, MBC青龍의 강타선과 승부를 벌여 9회까지 12안타를 맞아 7점이나 빼앗겼으나 1회말 3번 鄭求善 4번 金鎭雨, 5번 李英求등 동료들의 3연속 홈런포 지원을 받아 9-7로 완투승 했다.

三美는 이날도 상위타선이 맹포화를 터뜨려 1회말 5득점, 기라성같은 스타들을 보유한 MBC타선을 압도했다.

대구경기서는 OB의 좌완 黃泰煥이 절묘한 컨트롤로 三星타선을 농락, OB가 6-2로 낙승했다.

◇22일 전적

◆대구

OB	200 112 000	6
삼성	000 000 020	2

▲홈런=柳志炫(4회·OB)

◆인천

MBC	221 010 100	7
삼미	502 002 0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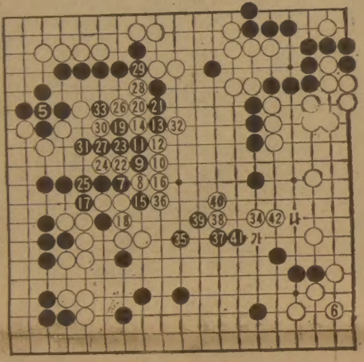
▲홈런=鄭求善(3점) 金鎭雨·李英求(1회 이상 삼미)

533-2361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4期

第12局 第7譜 105~142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河燦錫〈1勝2敗〉
黑(6段) 徐能旭〈0勝2敗〉



白軍 어복을 제압

좌변의 패는 결국 黑5로 잇는데서 해소되었다. 얼핏보면 黑의 성공같고 다시보면 白이 패를 일부러 양보한것 같기도하다. 같은 얘기인데 그런 느낌이 드는것은 아마 白6으로 유일한 큰곳에 선착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觀戰子의 눈에는 좌상 黑5점둘레에 잠복돼있는 白4점이 장차 黑진을 삭감하는데에 어떤 구실을 할것처럼 보인다.

그러자 黑7. 이것도 현시점에서 놓칠수없는 큰곳이다. 손을 빼었다가 白24로 껴붙이는 수를 허용하면 참말로 좌변白진이 납작해진다.

白8에 젖혀 이하 18까지는 으레 이렇게 될것이므로 말할거리도 없다. 그런데 黑19는 어땠을까. 국후평에 따르면 19는「모양」이지만 이 경우 20쪽에서 붙여야 유리했다고 한다. 본보는 白32쪽을 봉쇄당하여 결과적으로 어복일대가 白의 지배권에 들어가 버린만큼 黑이 불만이라는 것이다.

그러고보니 白은 좌변을 젖혔고 白30까지의 버림돌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말할수도 있다. 어쨌거나 黑은 41까지 한번을 확보하여 고 白은 42까지 중앙을 크게 경영했다.

수순중 白34는「가」자리까지 진출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河7단은 『34로 白「가」면 黑「나」로 허를 찔릴까 꺼려했다』며 이정도로 이 있었다고 술회했다. 【二八】

땅끝에서 오다 <14>

金成一 作 / 宋龍 畵

한권의 책 ⑤

문 영실의 문(MOON) 그것은 달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래서 문 영실 유인작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준호의 수첩에는 자주 루나란는 단어가 적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녀가 결혼하여 남의 아내가 되고, 그의 수첩에는 이미 루나의 시간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 일본땅에서 굳이 루나담배를 피우는 것은 바람둥이 입준호에게 어울리지 않는 처량한 일면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는 이따금씩 술에 취하면 버릇처럼

『여자는 마지막 사랑을 위하여 살고, 남자는 첫 번 사랑에 매달려 산다』

는 말을 금언처럼 외곤했다.

『그게 누가 한 말이지?』

친구들이 그렇게 물으면 루나담배 연기를 훅 내뿜으며

『입 준호』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입 준호가 지금 왜 나리따 공항의 승객출구에서 루나담배를 꺼내 피우고 있는 것인가.

…이제 저 문을 열고 이 세원이 나올 것이다. 숙명의 라이벌 이 세원, 국민학교의 반장자리로 시작하여 준호의 모든 타이틀을 선취해버린 이 세원, 결국은 문 영실과 결혼함으로써 완벽한 결정타를 가해왔던 이 세원, 그 이 세원이 지금 저 문으로 나오는 것이다. 어찌 준호가 주머니를 더듬어 담배를 찾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출구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이 이 세원처럼 보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올때마다 그의 가슴은 공연히 두근 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세원, 출세도 좋고 일도 좋지만 네 마누라좀 잘 간수해라. 그날밤… 크리스머스전날밤 네 마누라는 분명히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 제발 그 아름다운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아라)

루나 담배는 다른 담배보다 약간 쓴 맛이 강한게 특징이었다. 준호에게 있어서 달의 여신…그것은 확실히 쓴맛의 추억임에 틀림없었다.

오늘따라 왜그런지 이 세원은 꾸물거리고 있었다. 이미 나오는 승객들이 뜸해지고, 초록색 유니폼의 CPA스튜어디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 세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준호는 담배 한개를 더 태우면서 출구 쪽을 향하여 목을빼고 있었다.

『쳇, 귀하신 몸이 되어서 이젠 느긋하게 나타나시려는가』

다시 삼십분이 지났다. 그래도 그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제서야 준호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비행기를 놓쳤단 말인가. 그렇다면 파리 지사놈들은 뭘 확인하고서 그 따위로 텔렉스를 넣었단 말인가. 비행기를 놓치고 다른 편을 탔다면 정정 텔렉스라도 보내줘야 할 것 아닌가)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지사장이 직접 전화를 받고 있었다.

『접니다. 입대립니다』

『아, 어디서 거는거야? 도착했어?』

『지사장님 그게…』

張吉山 <1697>

黃皙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57〉

시동이는 대탄 시내비골로 가서 한가위를 지냈고, 그의 외삼촌인 오계원과 오경립이 번갈아 다녀갔는데 벌써 이서흡과 동행하여 삭녕 흥성산장 군사에 다녀와는 것이었다. 삭녕 장포 사람들과 연천 사람들은 이제 장군을 중심으로 교세가 늘어날 모양이었다. 시동이와 정원태의 원논으로는 시동이의 혈친으로서 가장 밀접만한 오계립을 검계의 장포 계주로 삼기로 하였던 것이다. 전엔달은 미륵도의 삭녕 삼좌이니 활회에게 일임하면 될것이고, 그들은 미륵도를 내세워 계를 확장하고 그 가운데서 검계의 핵심이 될만한 인원을 가려 뽑을셈이었다. 지난번에 속초로 찾아왔던 이시흥 조무인 이두완은 범여으로나 나이로보아 검계에 들만 하였고, 영평쪽에서는 시동이의 권유대로 기개 있고 호방한 정만일 정호명(鄭好明) 형제를 계로 끌어 들이기로 하였던 것이다.

대탄 시내비골에서 영평읍내까지 삼십리가 채못되는데 강변을 따라서 서쪽으로 곧장 나아가면 멀리 불곡산 머리가 보이고, 드문드문 마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정원태는 김시동의 안내로 정만일에게 찾아가는 길이었다. 김시동과 정만일은 지난번 한양에서 보낸 상번의 군영생활과 하도감 흑방에서 함께 이탈죄의 벌을 받은 뒤부터 죽마고우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다.

시동이가 세번이나 영평에 놀러 갔었고, 정만일은 제형 호명의 집에 다니러 왔다가 시내비골 시동이에게도 들렀었다. 이 이수하도록 살기 힘들 밤고 천대 받는 세상살이에 대하여 포한을 주고 받았고, 시동이가 실상 자신은 녹림당과 한패라고 밝혔다.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발설해 보았는데 예상대로 정만일은 놀라기는 커녕 시동이의 손을 마주잡으며 반기는것이었다.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뜻이나 재주도 펴보지 못하고 촌 구석의 무지렁이로 끝날 바에야, 화적이든 무뢰배든 간에 대적이 되어서 살다간 흔적이라두 남겨야 할게 아닌가』

시동이는 검계와 살주계의 남은 자들이 미륵도의 교세에 힘입어 조정을 뒤엎는다는 계획은 밝히지 않았으나, 그에게 말의 책임이라도 지우려고 넌지시 물었다.

『대적이 되었다가 일을 그르치면 참형을 당할 것이오. 무리가 커져서 관군과 맞서면 역적이 될터인데 일가 구황하여도 좋단 말인가』

정만일은 껄껄 웃더니 갑자기 안색을 바꾸어 선반에서 단검을 내려 시동의 목에다 겨누었다.

『네가 의기를 나눈 동무 사이라더니 감히 누구를 떠보고 희롱하느냐. 지금 관가로 달려가 고변하기 전에 내 칼을 받고 죽어란』

정만일은 단검을 쳐들어 찌를 기세를 보였고 김시동은 다급하여 그의 쳐든 손목을 잡으며 말하였다.

『자네 갑자년의 검계지변을 아는가. 내가 바로 그 계를 짰던 사람이여』

정만일은 단검을 쳐들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픽 웃으며 칼을 내렸다.

『짐작 그럴 것이지. 자네가 여간내기가 아니라구 알구 있었어』

하고나서 정만일이가 얼굴 하나 일그리지 않고서 손가락을 베어 흐르는 피를 술잔에 떨구었다.

『맹세를 어찌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진』

정만일이 내주는 단검으로 시동이도 손가락을 베었고, 그들은 같은 잔에 섞인 피를 조용히 마셨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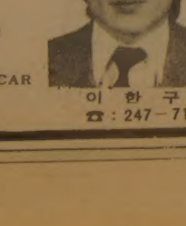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GOLDEN CHINA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Bayview / Keele / CHINA HOUSE / Bathurst / Bloor

비데오게임 머신
⊙24시간 써비스
⊙분배율 50%(기계에서 오는 이익)
⊙정기적으로 기계를 첵크·업하고 교환해 줌.
TRANS AMERICAN
☎ : 636—0906

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HAMAMOTO
Authentic Japanese Cuisine
○일본요리
스시, 사시미 덴뿌라.
○소단체 예약 환영.
○Take out도 합니다.
■술 면허 있음.(LLBO)
Dalecliff Plaza
221 Ellesmere Road, Scarborough, Ontario
(just west of Warden) Telephone: 444-2211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신현희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여성교양생활지
주간 女性
판매처·각한국식품점
지방구독자·3불(우송료포함)
구독신청·한국일보사
533·2361

한국일보

民正대표위원 陳懿鍾씨

나머지 黨職者 금명간 任命

權총장·李총무 留任은 확실

국회要職 29일이후…議長 蔡汶植씨 유력

民正黨총재인全斗煥대통령은 21일 상오 임기가 끝나는 李載濚대표위원후임에 陳懿鍾정책위의장을지명, 이날 하오열린 中央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陳의장을 새대표위원으로 임명했다.

全대통령은 黨憲에따라 陳대표위원의 제청을받는대로 빠르면22일중으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등 당간부들도 임명할 예정인데 權翊鉉사무총장, 李鍾贊원내총무는 유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民正黨은 23일상오10시 중앙당사에서 新·舊대표위원의 離就任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民正黨은 4월11일로 임기가 끝나는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등에 대한 국회직 후임인사도 이미 내정, 오는 29일의 전당대회가 끝난후 발표할 것이라고 金대변인이 밝혔는데 丁來赫국회의장 후임에는 蔡汶植부의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金대변인은 앞으로의 李前대표위원의 去就와 관련, 『李前대표는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총재를 보좌하게될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도 『자유스런 입장이라는 것이 당직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李前대표는 이날 자신의 퇴임을 밝히는자리에서 『나는 지난1월15일의 전당대회가 연기되기전 南在熙비서실장을 통해 대표위원직 사임의사를 밝힌바 있으며 南재실장은 이의사를 총재에게 분명히 전달한것으로 보고받았다』며 『그때 총재는 전당대회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라고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대표위원자리에 머물러 왔었다』고 말했다.

◇新舊대표위원의 악수 물러가는 李載濚대표(左)와 신임陳懿鍾정책위의장(右)이 악수를 나누고있다.

中執委員 일괄辭表

民正黨은 이날하오 중앙집행위에서 代表위원의 경질에 따라 재신임을 묻기위해 10명의 市道支部위원장을 제외한 中執委員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中執委는 이날 黨憲및 강령정책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세부적인 문안정리를 위해 5인 소위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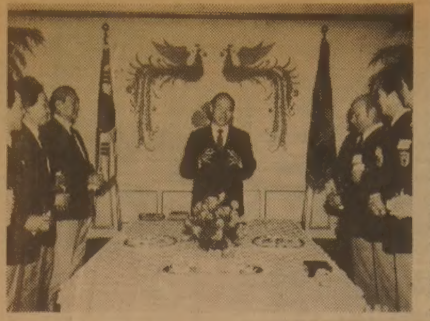
▲黨憲개정5인小委=柳尙昊 尹吉重 李漢東 朴鉉兌 洪九 ▲정강정책小委=羅雄培 吳南載熙 鄭宗澤 李台燮 張聖萬

◆陳懿鍾대표위원略歷

▲全北高敞출신·61세 ▲京城中4年修了 ▲京城帝大졸업 ▲日本高文시험합격 변호사등록 ▲상공부차관 ▲韓電부사장 ▲8·9·11代의원 ▲보사부장관 ▲입법회의의원 ▲民正黨정책위의장

國内油價 50~53% 반영

政府·民正합의 휘발유·燈油값도 내리기로



정부와 民正黨은 21일국제原油價하락에따라국내油價인하폭중 30%만을 국내油價에 반영토록했던 당초방침을 바꿔 50%정도로 늘려 반영키로했다.

정부는 지난18일 국회經科委에서 金竣成부총리의 답변을통해 30%만 반영한다는방침을밝혔고 民正黨도 이를追認키로했었는데 그동안 黨政협의과정을통해 民正黨의 요구로 이같이 재조정키로한것이다.

이날 民正黨의 한관계자는『수출경쟁국인臺灣싱가포르등이 原油價인하폭중 상당부분을 油價인하에 반영키로했기때문에 50%이상을 국내유가인하에 돌리면 우리상품의 對外경쟁력이 높아진다는데 정부와 民正黨은 의견을같이했다』고 밝히고『원유가 인하폭중 50~53%를 국내유가에 인하반영하고 나머지는석유안정기금과 關稅등으로 흡수케될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석유수출국기구(OPEC)의유가인하로인해 年5천억원정도 原油수입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油價반영비율을 50~53%로 올리더라도 2천5백억원 정도를 석유안정기금등으로 흡수할수있다』며『따라서 이 2천5백억원으로 延拂수출이나 플랜트수출및 댐건설등에 충당할수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어 나프타와 벙커C油만 인하토록 했던방침을바꿔 휘발유·등유·경유등도 인하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職場이 第2家庭돼야"

全대통령, 「商工의 날」 致辭

全斗煥대통령은 21일 공장새마을운동이 外形的인 展示효과에만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았나하는점등을 되돌아봐야 할것이라고 지적, 『우리는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공장새마을운동이 하루속히 농촌새마을운동과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해 우리民族史에 길이 남을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고 정착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공장새마을운동 前進대회및 제10회 商工의날」기념행사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이와같은 노력은 우리경제가 당면하고있는 어려운국제환경을 극복할수있는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는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우리경제가 수출과 성장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고도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을개발하도록 수출구조의 質的향상을 기해 나가야 한다』는것이라고 말하고『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공장새마을운동을 완전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일이 그 기본이 돼야할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어『그러기 위해서 상공인 여러분은 기업의 사회성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기업인像을 정립해 고도산업사회에 대처할 능력을 길러나가는데 私心없이 앞장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특히 상공인들은 직장의 제2家庭化운동을 실효성있게 추진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더욱힘쓰고 의식개혁을 솔선수범하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직장풍토를 만드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며,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기업을 함께가꾸어 나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를공동으로 해결하는 건설적인자세를 갖추어 나가야하겠다』고 덧붙였다.

體育會 日本지부 任員등 접견歡談

全斗煥 대통령은 21일 하오 청와대에서 대한체육회 일본支部의 蔡洙仁 중앙본부회장(67)등 임원 27명을접견하고 다과를 베풀며 환담했다.〈사진〉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체육은 국민단합과 정신력강화, 그리고 외교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의 근대화를통해 체육강국을 이룩해나가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자리에는 李源京 체육부장관과 鄭周永 대한체육회장이 배석했다.

팀스피리트83 訓鍊 韓美지휘관에 만찬

全斗煥대통령은 21일 저녁 팀스피리트83훈련에 참가한 韓美軍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치, 만찬을 베푼뒤 민속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만찬자리에서『한국과 미국은 한世代를 넘는 長久한 시련에 걸쳐 두나라의 공동목표인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위해 언제나 마음과 행동을 같이해왔다』고 밝히고『그러한 빛나는 전통에 따라 韓美연합군은 침략주의적인 공산집단의 위협에 대처하고 전쟁을 억지하려는 간절한 소망과 공동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지금도 이곳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명완수에 임하고있다』고 말했다.

말聯國王 오늘 來韓

하지·아마드·샤말레이지아國王내외가 全斗煥대통령의 초청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

아마드國王은 23일 청와대에서 全대통령과 韓·말레이지아 정상회담을갖고 양국간의 우호증진방안및 말레이지아의 룩·이스트정책(東方重視정책)과 관련한 기술협력문제를 협의한다.

아마드국왕은 金相浹국무총리를 예방하고 經濟4團體長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는 한편 玉浦조선소등 산업시설과 陸士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아마드 국왕 訪韓일정

▲22일=來韓(하오4시) ▲23일=국무총리 접견, 국립묘지 참배, 頂上회담, 경제4단체장주최 오찬, 외교단접견, 청와대만찬및 민속공연 ▲24일=玉浦조선소 시찰 ▲25일=陸士시찰, 한국이슬람교현황 브리핑청취및 예배, 現代그룹 방문, 駐韓말레이지아대사관 신축현판식참석 ▲26일=離韓(상오 10시30분)

油價 再引下가능성

사우디産등 基準價이하로 去來

"北海産내리면 20弗까지폭락"

【런던=聯合】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석유상들에의한 29달러의 새油價체제가 합의된지 1주일도 채못되어 새로운 유가인하가 불가피할지 모른다는 조짐들이 여러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OPEC석유상들은 런던회의에서 OPEC史上 처음으로 공시가인하를 단행, 기준유가를 배럴당 34달러에서 5달러 낮춘 29달러로 책정하고 산유량상한선도 하루1천7백50만배럴로 축소조정했다.

그러나 활기를 잃은 세계석유시장으로 OPEC의 실제 1일산유량은 이보다 훨씬 낮은 1천3백50만배럴수준을 맴돌고있는 실정이어서 새산유상한선마저 충족될수 있을것인지 크게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일부 과격한 OPEC회원국들이 그들에게 배정된 개별산유쿼터를 존중할것인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임을 감안할때 세계석유시장에 대한 가격통제력을 OPEC가 다시 장악할수 있을것인지는 현재로서 회의적이다.

중동경제조사誌(MEES)는 OPEC의 기준유가 15%인하에 뒤따라 새로운 유가인하전쟁이 발생할것이냐의 여부는 영국이 북해산원유가를 내리느냐에 달려있다고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이 석유전문지는 OPEC가 최근 합의한 새유가체제의 특징이 非OPEC산유국의 어떠한 시장교란요인에대해서도 집단적인 대응입장을 취하기로 했다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영국북해석유공사(BNOC)가 배럴당 30달러 또는 그이상의 가격선을 유지할수 있는 경우 OPEC의 유가안정계획은 성공을 거둘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MEES는 BNOC가 그같은 수준을 지키지못할 경우 세계유가는 단기적으로 하한선을 예측치 못할정도로 곤두박질쳐 배럴당 20달러까지 폭락하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세계석유전문가들이 OPEC의 새유가체제를 불안요인으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같다.

▲英國의파운드貨는지난주말外換시장에서北海産원유의 배럴당 30·50달러가 나이지리아産 동질유가에 비해 높기때문에 이가격이 인하될것이라는 기대때문에 폭락, 사상최저인 1·4875달러에 거래되었다.

▲OPEC의 油價인하를 불법적인 것이라고 비난하는 이란은 自國産원유가를 최고 2달러까지 낮출것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석유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韓電사장 朴正基씨 韓重사장 成樂正씨 政府內定

정부는 21일 韓國電力사장에 朴正基 韓國重工業사장을, 韓國重工業사장에는 成樂正 韓國電力사장을 각각 전보키로 내정한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등 5國서 原油價인하 通報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고있는 멕시코에 이어 말레이지아·브루네이·에콰도르·리비아·이집트등 5개국이 원유가격을 배럴당 최고 5달러에서 최소 2달러씩 내려 공급하겠다고 국내관련정유회사를 통해 통보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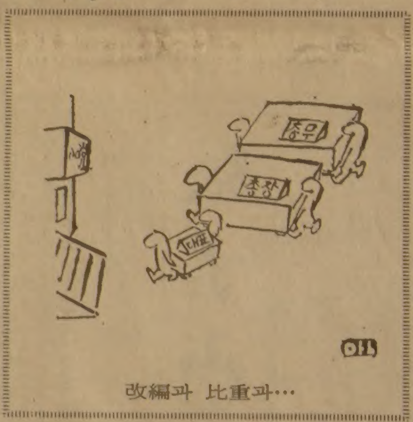
에콰도르는 오는 4월1일부터 인하가격을 적용하고 나머지 4개국은 2월1일 또는 3월1일부터 적용하는 등 소급적용시기는 각각 다르다.

21일 동자부에따르면 멕시코에이어 말레이지아는 배럴당 5달러 70센트를 내려 2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브루네이는 배럴당 5달러를 인하, 1월28일부터, 이집트는 배럴당 2달러를내려 3월1일부터, 에콰도르는 배럴당 2달러를 내려 3월1일부터 각각 소급적용하겠다고 통보해왔고 리비아는 배럴당 5달러의 인하만을 통보해왔으나 적용 시기는 밝히지않았다.

그런데 계약물량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원유도입 물량의 85%를 차지하고있는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인도네시아는 이날현재 통보해 오지않았으나 이번주내로 통보해올것으로 보고있다.

동자부는 이 4개국으로부터 인하폭과 적용시기를 정식으로 통보를받는대로 본격적으로 통보를 받는대로 본격…

社會漫評



改編과 比重과…

地平線

금세기 들어서 알려진 세계최고의 살인발생률은 1970년 멕시코에서 있은 10만명당 46·3명의 비율이다. 그리고 살인전수로서 가장 많았던것은 이른바「대폭동」시대(1945~62년)의 콜롬비아로서, 그 17년간에 30만명이 희생되어 매일 48명이상이 피살됐던 셈이다. ▼또 인구가 많고 따라서 범죄발생률이 높은 곳으로 이름있는 뉴욕시의 경우는 1972년 7월 어느 1주간에 58명이 피살된것과 같은해 8월 어느날 하루에만 13명이 죽은것을 살인기록으로 꼽고있다. 1년간의 기록으로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서 1973년 인구 1백50만명중 751명이 살해된 것이었다. ▼이에반해 살인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말티후공화국이다. 1965년에 독립을 한 다음 자국민에 의한 살인사건은 한건도 없다한다. 또 히말라야산속의 작은왕국인 시킴에서도 아직 살인사건은 없으며 칼리훌룸(?)섬의 혼자지방서 역시 1천9백년 이후 제바다 사람에의한 살인은 전혀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안본부의 피살자통계에따르면 78년에는 10만명당 2·1명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조금 더 높은수치가 아닐까 하는것이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미국은 4·5명이어서 우리의 약 갑절이고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등 북구 여러나라선 1명미만이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극악한 범죄가 우리 생활둘레에서 빈발하는 추세인터에 근자엔 살인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동기마저 뚜렷치 않은듯한「살인을 위한 살인」사건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지난 17일에 발생한 서울강동구의「독살음료살인사건」이 바로 그보기이다. ▼통상적으로 살인은 성적 내지 사회적 금전적인 충격을 계기로 내재했던 심리의 갈등이 일시에 폭발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다. 그러나 이번 독살음료살인은 은밀히 그리고 치밀한 계획아래 선의의 제3자의 목숨을 앗는 극악한 범행인듯 하다는데서 괘씸하기 그지없다. 기필코 체포하여 우리사회의 법망과 천망이 함께 건재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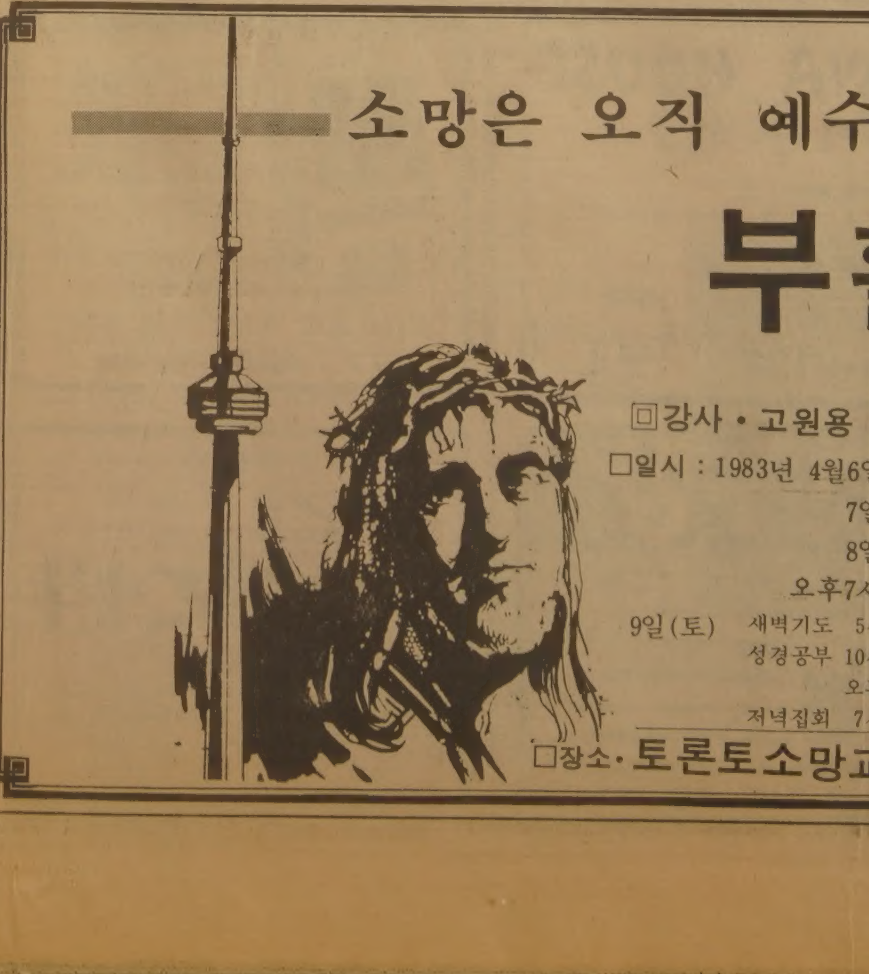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소망은 오직 예수

부활절 대부흥 성회



□강사·고원용 목사

□일시 : 1983년 4월6일(수) 7일(목) 8일(금) 오후7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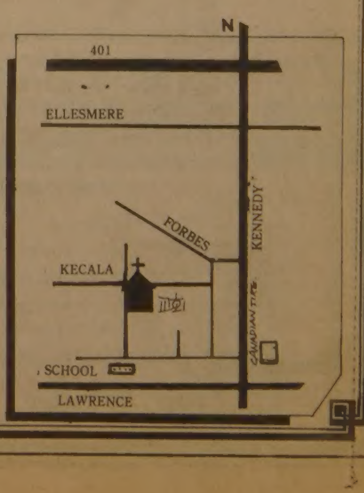
9일(토) 새벽기도 5시30분 성경공부 10시30분 오후 2시 저녁집회 7시30분

고원용 목사

학 력 : 숭대 철학과, 장로회신학대학, 미국 훌러신학교 선교학 석사및 박사학위과정 이수

경 력 : 한국에서 15년간 장로교회 시무, 현재 미국 밸리제1장로교회 담임 국제I.M.A. 선교회 국제 총무

□장소·토론토소망교회 35 KECALA RD. SCAR. ☎ 752-9727, 752-9860



社　說

與圈개편과 새進路
—黨職人選·黨憲개정에 생각함

길은 안개 속의 秒읽기를 방불케하면서 政街주변에 숱한 관측과 설왕설래 下馬評을 교차시켜오던 與圈改編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21일 民正黨의 中央執行委가 소집된 가운데 代表위원을 비롯하여 黨5役을 포함한 黨要職者 전원의 사표가 제출되자, 우선 새代表위원에 陳懿鍾전政策委의장이 지명되었다고한다. 나머지 中央委의장·事務총장·政策委의장·院內총무등 要職人選은 절차상 새代表위원의 제청을 거쳐 黨총재이기도한 全斗煥대통령이 곧 임명하게 될 것이다. 하나 改革主導·핵심基幹 黨職者들은 계속 유임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與圈의 國會要職개편은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늦어도 4월초까지는 발표될것으로 보인다. 單任精神·순환補職·地域안배등을 고려하는 대폭개편이 예견된다.

民正黨은 또 오는29일 무려 1만2천여명 참석리에 개최하리라는 全黨대회 준비에 매우 부산하다는데 21일의 中央執行委는 그 黨大會에 상정할 黨憲개정안을 채택 했다는 소식이다. 보도된것처럼 中央執行委내에 黨5役을중심으로 常任委를 신설한다는것은 政策決定에서의 集權的 幹部會議體를 연상케하나 동시에 實務面의 分權化도 고려된것같다. 현재 2년으로 되어있는 代表위원의 任期조항을 폐지한다니 連任의 말썽이 없을듯 싶지만 언제든 교체가 가능하다는 일면도 있다.

어차피 與圈은 創黨2년을 결산·일단락짓고 새進路를 책정하는 全黨대회를 앞두고 85년 總選도 겨냥한는 새「라인·업」을 선보인 셈이다.

그 要職개편은 黨총재의 統治理念과 핵심主導力層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單任정신을 어느정도 살리는 과정에서 新舊및 老壯和合과 地域안배를 통해 국민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것으로 풀이된다. 陳대표위원의 등장은 구시대의 野圈출신인데다가 地域的背景에 보는 均衡감각을 고려한것으로 관측되거니와 그 성품은 원만·유연·착실하다고 알려져있다.

그동안 與黨의 黨職개편을 점치는 다양한 추측과 說往說來속에 자주「親政體制」의 강화란것이 전망된바 있었다. 하나 創黨과 執權의 2년을 결산하며 새 進路를 모색 천명하게될 마당에서 民正黨이 각별히 유의할것이 있다. 요는 구與黨의 前轍을 밟지 않는 새型의 與黨다운 自體確認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改革主導力層의 강화에 부수되기 쉬운 구시대적 權威主義와 카리스마的 領導方式의 재연에 대한 自戒·自制이다. 民主主義의 土着化가 제5공화국의 國政指標로 제기된가운데 이를 先導할 與黨은 黨內民主主義의 창달에서 모범을 보여 마땅할것이다. 구시대의 與黨이 人物과 權力에만 주로 의존한 끝에 人的 領導體制에 어떤 변조가 생기자 一朝에 흔들리고만 사례는 결코 되풀이될바 아니다.

그점 이번 黨憲개정에서 中執委에 常任委를 둔것은 조직적 主體性유지를 위한 좋은 고안일수 있겠다. 實務面의 分權化지향도 긍정되거니와 與黨의 官僚機構化를 예방하자면 이 또한 黨內民主主義의 부단한 발양에 의하여 뒷받침될 필요가 생각된다.

나아가서 與黨이 創黨2년을 결산하는 싯점에서 구폐의 재연을 예방하려면 일반 국민대중의 政治參與를 조직화하는 성숙된 단계로 발전적인 移行을 다짐수 있어야 할것으로 믿는다.

與黨은 이번 要職개편과 全黨대회 준비를 계기로 삼아 一陣新風의 새活力을 일깨우면서 국민속에 뿌리를 박은 새型의 政黨으로서 自他共認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政黨의 力量은 결국 대중의 자발적 지지의 기반에 의하여 가름되기 때문이다.

政治·經濟의 파트너
—아마드 말聯國王을 歡迎한다

동남아에서 우리와 관계가 가장 깊은 나라의 하나인 말레이지아에서 全斗煥대통령의 초청으로 아마드국왕이 닷새동안의 한국방문을 위해 오늘 도착한다.

지금까지 말레이지아의수상이 한국을 찾기는 두번, 국왕의 한국방문도 이번으로 두번째가 된다.

이것만으로도 말레이지아가 동남아에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나라임을 알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두나라가 당면하고있는 정치적상황이 공통된기반을 이루고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지아가 원주민인 말라야족을 중심으로 화교와 인도계를 합쳐 인종적으로 복합사회를 이루고있음은 잘 알려진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말레이지아는 우리와 함께 중요한 두가지의 공통된 경험과 현실여건을 갖고있다.

지난 한때 두나라는 모두 야만적 일본군국주의의 말발굽에 상처를 입었고, 지금에 와서는 안팎으로 심각한 공산세력의 위협에 맞서고있다.

말레이지아가 공식적으로는 비동맹을 표방하며 남북한 동시수교정책을 택하고있지만 북한과의 실질적인 교류관계는 사실상 없는 것도 이런 현실에서 나온 결과였다.

안으로 밀림지대에서 공산 게릴라와 싸우고있는 말레이지아는 특히 베트남공산화이후 對共방파제로서의 비중이 커가고있다. 소련의 강력한 뒷받침을 배경으로 1백만이넘는 군대와 1천5백대의 탱크, 5백대의 항공기로 무장한 공산베트남에 대해 말레이지아는 비동맹권안에서도 가장 강경한 외교정책을 펴고있다.

뿐만아니라 풍부한 자원수출국으로 경제근대화작업에 바쁜 말레이지아는 또한 우리와 떨수 없는 경제적파트너의 입장에있다. 세계최대의 천연고무, 야자유 생산국이자 주석매장량을 갖고있는 말레이지아는 우리에게 열대산나무나 앞으로 천연가스에이르기까지 중요한 원료공급국이다.

무역의추세는 우리가 1억8천4백만달러 못미치는 수출과 4억7천2백만달러 가까운 수입으로 3배가까운 적자를 보여주고있다(80년도). 그러나 70년대에 평균 7·8% 82년도에 5·9%(추정)의 성장률을 보여 개인소득 1천6백78달러(80년)수준인 말레이지아는 앞으로 중요한 무역파트너가 될것같다.

81년 全대통령의 東南亞5개국 순방 당시, 이미 韓·말聯간에 맺어진 友好·協力관계와 더불어 이번 아마드국왕의 한국방문은 오랜 세계경제불황속에 다가서고있는 경기회복 조짐에 때맞춰 두나라 서로의 이익을 다짐할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것이다.

더구나 말레이지아는 지금「동쪽을 보자」는 운동을 펴고있다. 동북 아시아의 예를 따라 경제근대화를 하자는 캠페인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근대화의 모델을 일본에 두고있는 캠페인이지만, 또한 우리가「동쪽」에 들어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하티르수상이나 주니드 지역개발상이 한국과의「산업적동맹」을 강조하고, 한국의 개발모델을 배우자고 주장해온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두 나라가 숨가쁜 국제경제무대에서 동반자 관계를 더욱 깊이해야할 중요한때가 지금이다. 아마드국왕의 서울방문에 두나라가 다같이 기대를 거는 이유라고 하겠다. 거듭 환영의 뜻을 표해둔다.

美·蘇정상회담 용의
레이건會見 "아무條件없이 年內에"

【런던AP·UPI=聯】레이건미대통령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판단만서면 유리·안드로포프 소련공산당 서기장과 금년중 아무런 조건없이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자 영국의 선데이·타임즈와의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美·蘇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제만은 사전에결정되어야 할것이라고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금년중 안드로포프와의 회담을 예상하고 있느냐는 선데이·타임즈의 위싱턴특파원 헨리·브랜든기자의 질문에『당장은 그같은 계획이 없으나 美·蘇정상회담은 가능하다』면서『우리 두사람은 항상 접촉을 갖고있으며 양측에게 유익한정상회담이 될수있는 의제를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이건대통령은『단지 안드로포프와 알고지내기 위한 회담은 원치않는다』면서『양국 정상이 만난후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높아지기때문에 그러한 성격의 회담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어 제네바의 유럽배치중거리 핵미사일제한협상과 관련, 자신의 제로옵션 (零의선택) 계획이 서방의 목표이지만 이같은 최종목표에 도달하기위해 어떠한 합리적인 다른제안이나 온다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말했다.

蘇정권弱化 극비지령
레이건, 경제압력등 행사

【워싱턴UPI=聯】레이건 미대통령은 최근 경제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소련정권의 약화를 노리는 극비지령을 내렸다고 미 NBC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국가안보결정지침 75호로 명명된 이명령이 대소차관과 무역을 대부분 보류시켜 소련이 강경외교정책을 완화하게끔 소련체제내부의 압력을 가중시키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방송은 최근까지 백악관의 고위관리로 일해온 리처드·파이프스 하버드대학교수가 국가안보결정지침 75호 계획을 입안하는데 참여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이 지침은 미국의대소곡물판매문제를 특별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파이프스교수는 NBC뉴스와의 대담에서 미국이 기술 지원이나 저렴한 차관을 소련에 제공하고 소련의 천연자원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외화획득을 늘려주는것은 결과적으로 소련체제유지와 정책을 지원하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印、또流血사태
아샘州議會 개원앞서 32명사망

【뉴델리AP·UPI=聯】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유혈폭동으로 3천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인도동북부 아샘주에서 주의회개원을 하루 앞둔 20일과 19일 양일간 나룻배습격, 폭탄폭발등 유혈사태가 재발, 최소한 32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했다고 인도의 UNI통신이 보도했다。

이밖에도 다랑지역의 여러 마을과 아샘州의 다른곳에서도 소규모 충돌사건이 벌어져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샘주 학생협회는 인도독립후 최악의 유혈폭동속에서 실시됐던 주의회선거결과에 따라 구성된 주의회가 개원되는 21일 비협력시위및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18일밤 주도가우하티에서는 공용건물에서 5건의 폭발사건이 발생, 가우하티를 진동시켰고 3개마을에서 초가 1백여채가 불에탔다.

泰、下院해산…早期총선
野"조용한 쿠데타" 비난

【방콕=聯】푸미폰·아둘야데즈 타이국왕은 19일밤 프렘·틴술라논다수상의 건의를 받아들여 하원을해산하고 오는6월12일로 예정됐던 총선을 약2개월 앞당겨 4월18일 조기실시한다고발표했다。

이들 하원해산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이번조치가 조용한 쿠데타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오는4월의 조기총선은 4월21일로 폐기될 단일선거구제도하의 구선거법에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기총선실시에도 불구, 군부의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헌법의 이른바 임시조항들이 4월21일 자동적으로 폐기될지의 여부는 분명치않다.

프렘수상은 군부의 정치적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는 헌법조항들을 개정하려는 군부측노력이 좌절된뒤 군부쿠데타등 정치적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키위해 푸미폰국왕에게 조기총선을 건의한바있다.

◇수상물망에 오른 들로르 佛재무상 19일 EEC 財務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EEC 보르세트館에 들어서는 자크·들로르 佛재무상에게 사진기자들이 몰리고있다. 그는 곧있을 改閣에서 수상물망에 오르고있다. 【브뤼셀19일AP聯=聯】

佛、곧 대폭改閣
새首相에 들로르財相 유력

【파리AP聯=聯】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미셸·조베르대외무역상이 전격사임한 가운데 금명간에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미셸·보젤 엘리제궁대변인은 20일 미테랑대통령이 오는23일 전국TV연설을 통해 개각을 발표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정치소식통들은 연개각이 단행될경우 들로르재상이 모로와현수상의 후임으로가장유력시된다고말했다。

한편 프랑스정부안에서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중도그룹을 이끌고 있는 미셸·조베르 대외무역상은 이날 자신이 지난17일 사임했다고 밝히고 자신이 사임한것은 정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견 수렴하되 국민에 迎合하지않아"
陳懿鍾 民正黨 대표위원 인터뷰
대화에 力點…野와도 충분히 토론

『정치경륜도 적고 일솜씨도 없는 사람이 重責을 맡아 잘해낼지 염려스럽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身命을 바쳐 일하겠다』

新任 陳懿鍾 民正黨대표위원은 21일하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표위원 임명同意를 받고난뒤 지난1년여동안 몸담고있던 黨舍7층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들을만나자 상기된 표정으로 소감부터 먼저 밝혔다.

陳대표는 미리 계획된 소감과 앞으로 黨을 이끌어나갈 運營方向을 소상히 피력하면서『李載濚前대표가 黨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여 黨조직을 정비하고 黨勢를 확장한는데 功이컸다』고 치하하고『앞으로 당원자와 소속의원이 서로 협조하여 당무를 처리해나가는 과정에서 黨은 힘을 발휘할수있기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黨內민주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黨內민주주의의 실천방안으로 모든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해야할 일이 있으면 서로 활발히 논의하고 일단 黨論이 확정되면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과거에 있었던 일부 百花齊放식의 토론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앞으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政局을 운영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對話에 역점을 두겠으며그과정에다소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서로 토론을하여 최소한의 공약수를 발견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야당과도 얘기할때는 충분한 대화,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하나밖에 없는 결론을 내리지않도록 조심할 생각입니다』

—黨운영방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民正黨은 국민으로부터 受權받은 정당이고 국민에대한 책임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무리나 억지는 부리지 않겠지만 국민에 迎合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것입니다。또 黨政협조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전에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財經通이자 정책의장출신답게 정책을 통해 집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국민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理想에 치우치거나 충격적인 정부시책이 나오지않도록 충분한 黨政협조를 하겠다』며 實名制파동등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집권정당대표로서 소신을 밝힌다면。

『무엇보다 역사적召命感을 갖고 개혁의지가 뿌리를 내리도록 계속 추진하겠지만 청렴정치 대화와 和合의 정치를 통해 국민의 신임과 사랑을 받는 黨을 육성하겠읍니다』

—새체제를 親政체제니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뜻으로 그런 말들하는지모르나 총재께서는 생각보다 黨內사정을 소상히 알고있기때문에 새삼스럽게 親政체제등의 얘기를 거론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소 격앙된 어조로『黨이 누구누구가 중심이되어 있다는 말은 있을수없으며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총무등 모두가 각각 맡은 분야가 있고 서로 협조해야할 일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陳대표는 이어 기타 黨職人選에관한물음에『人事란말 그대로 나혼자만의 권한이아니고 내가 提請형식을 밟을지라도 총재께서 소속의원모두를 잘알고있다는 것을 留念해달란』며『나도 공무원도 해보고 큰회사 重役도해봤기 때문에 人選의 원칙에 대해서 잘알고 있다』며 입을다물었다.

—소속의원들이 疎外感을 갖고 있다는데 대해。

『앞으로 소속의원의 소외감을 줄이도록 대화와 토론의 기회를 항상 갖도록 노력하겠다』

陳대표는『대표위원지명소식을 언제 들었느냐』는 질문에『그런 것은 묻지않아야 하는데…』라고 웃음을 지은후『나는 내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으며 앞으로 黨대표로서 성실히 業務를 수행하겠다』는 말로 대신한후『나이도 들지않았느냐』고 웃었다.

陳대표는 앞으로의 對野자세, 국회에 계류중인 정치議案처리방안등에 대한 질문에는『오늘 얘기를 모두 하면 앞으로 할 얘기가 없어지는 만큼 시간을 좀 달라』고 웃으면서 손을 내저었다.

【李以春기자】

記者의 눈
과잉發想

말썽 많은 아파트투기과열을 방지하는 대책의 하나로 學群을 조정하자는얘기가 관계부처에서 나돌고 있다고 한다。

현재 9개로 나뉘어져있는 서울의 고교학군을5、6개로 줄이고 鐘路와 中區등 중심지에 공동학군을 주자는 것이 골자라고 들린다。

평준화거리를 늘려 문제가 되고있는 특정학군을 광역화하면 자녀를「좋은 학교」에 넣기위해 특정지역으로만 몰리는 투기외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묘방이 되리라는 계산인것같다。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없는「채권입찰제」라는기묘한 분양제도와 웬만한 아파트 지역을 모조리 특정지역 (투기억제지역) 으로 묶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는「편법」을 동원해가면서까지 아파트투기를 잡아야하는 어려움은 모두가 납득한다。

「가진자」와 사회윤리를 외면한채 재산증식기에만 혈안이 돼있는 일부「非市民」들의 배만불려주어「없는자」와「착한시민」들에게 위화감만 심어주는 아파트투기는 꼭 뿌리를 뽑아야하겠기에 말이다。

그러나 그대책중 하나로 거론되고있는 학군제조정발상은 교육평준화라는 중요한 시책을 망각하고 있다。

학군제란 학교선택을 주거지역으로제한해학교간의 격차를 없앤다는 교육평준화정책의 근간이다。같은 지역안의 학교에 진학함으로써 학생들은 교통지옥에서 벗어날수있고 따라서 서울의 교통난 완화에도 도움이된다。

9개의 학군을 5、6개로줄이면 학생들의 평균통학거리가 3㎞에서 5、6㎞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된다。평준화에 미치는 여건은 차치하고라도 학생들이 겪게될 통학상의 불편은 2배 가까이 늘어나게되는 것이다。

학군이 넓어지면 자녀들을 이른바 신생일류학교에 진학시키고싶은 욕망을 자극、더 많은 부작용이 생겨날 소지가 있다。좀 멀더라도 대입성적이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는 심리가 작용하게 될것은 자명한 일 아닌가。

그렇다고 그것이 투기억제에 과연 묘방이 될것인지도 의문이다。학군제를 전면 폐지하지 않는한 묘방이되지못할것이 뻔하다。

이런 논리로 교육담당자들과 많은 학부모들은 학군제 조정이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까지 혹평하고있다。

더욱 근본적인 투기억제책은 경제분야에 있다는 것을 경제부처는 깨닫고나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方敏俊기자】

太지역陸軍관리세미나 開幕
20여國참가…「국가발전과 安保」토의

제7차 太平洋지역 육군관리세미나(PAMS)가 21일상오 서울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됐다。

우리 육군과 美國서부지역사령부의 공동주관으로 오는 2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美서부지역 사령관 포레스터중장을 비롯, 美國·濠洲·필리핀등 太平洋지역 20여개국 육군중견간부 1백50여명이 참가,「국가발전과 안보」라는 주제로 토의에 들어갔다。

육군참모차장과 美육군서부지역사령관이 공동으로 대회장직을 맡은 이번 세미나의 개회식에서 黃永時육군참모총장은 기조연설을통해 우리민족의 정통성、경제성장및 육군의 발전과정、국민화합을 소개하고『이번 세미나가 太平洋지역국가들간의 대화·교류협력을 더한층 증대해가는 귀중한 계기가 되어줄것』을 기원했다。

波항공기 1대 스웨덴에 亡命

【크리스티안스타트(스웨덴)AP聯=聯】폴란드항공기 1대가 21일 스웨덴남부에 있는 크리스티안스타트마을에 착륙했으며 이비행기의 승객12명이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고 스웨덴의 TT통신이 현지경찰 발표를 인용보도했다。

크리스티안스타트 마을은 폴란드北端에서 2백40㎞떨어진 지점이다。

人事異動

건설부

▲尹奇老(한국도로공사감사)▲金慶林(한국토지개발공사감사)▲金桂鎬(산업기지개발공사이사)▲梁源明(한국토지개발공사이사)(21日字)

政局往來

◆선진국에선 체육인이 가장紳士

全斗煥대통령은 21일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공장새마을운동前進대회에 참석한뒤 세종홀에서 국내외 商工人및 근로자들과 다과를나누며 기업인과 근로자간의 和合정신등을 강조。

全대통령은『어느 사람이나 행복과 불행은 地位나 금전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상공인들은 근로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근로자는 한군데서 열심히 일하면 重責에 오르고 나아가 큰 기업을 경영하게 될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노력할때 개인과 기업, 나아가국가가발전하게돼선진조국을 이룩할수있게 될것』이라고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이날 하오 대한체육회일본支部 임원들과 환담하는 가운데『선진국에서는 체육하는 사람이 가장 신사이고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되려면 체육발전에 모두들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

◆修練은 野에서 갑부는 與에서

民韓·국민당등 야당측은 21일 民正黨대표위원에 陳懿鍾 의원이 임명된데 대해『야당의 입장을 이해할수 있는 원만한인사라며』대체로 긍정적 반응。

柳致松民韓黨총재는『지난날 新民黨을 같이하던 분으로서 한때는 路線을 함께하기도 했다』면서『야당의 속사정을 잘알기 때문에 잘해나갈것으로 믿는다』고「담담히 期待」를 피력。

柳총재는『금명간 신임 陳대표위원을 만나볼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어려웠던 지난2년동안 할얘기 못할얘기를 모두 나누어왔던 李載濚前대표위원부터 만나볼 생각』이라면서『이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싯점인데…』라고 말끝을 흐리기도。

또 辛相佑부총재는『생산적인 정치를 創出해나가는데 얼마만큼의 의지를 보여줄는지 지켜보고싶다』, 柳漢烈사무총장은『그의 원만하고 모나지않은 성격이 對話정치의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고 陳대표와 친분이있는 林鍾基총무는『修練은 야당에서하고 갑부는 여당에서 했다』면서『야당의 생리를 잘 아는분』이라고 지적。

한편 국민당의 尹錫民총재권한代行은『陳대표가 오랫동안 야당에몸을 담았기때문에 야당의 입장을 이해할 분으로 본다』면서『그분의성격으로 봐서 每事를 순리적으로 처리하고 政局을 원만하게 이끌것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陳民正대표는 野黨을 이해하는분" 民韓·국민서도 期待

◆意見差로 派閥싸움 안되도록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21일 재정위원장을 비롯 사무처와 정책심의회의 신임黨職者들에게 任命狀을수여하면서『평화적 정권교체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전력해달라』고간곡히 당부。

그는 이어『지난2년은 정통야당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는데 주력했으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의구현을 위한 始發點』이라고 말하고『黨의 중추인 일선 당직자들의 노력은 바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목표달성과 정비례한다』고 분발을 촉구했다。

柳총재는『이러한 책임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의견差때문에 자칫 파벌다툼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되겠다』면서『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人和와 團結이 요청된다』고 거듭 강조。

◆民宋、脫黨후유증最小化에분주

金正禮총재직무대행 黃明秀 金正秀부총재등이 집단탈당한뒤 民權黨의 殘留당직자들은 後遺症의 最小化에 苦心。

林采洪부총재는『총재란 전당대회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여의치않자탈당한것은「全部아니면 全無」라는식의 극한적思考』라 비난하면서『27일께부터 4월말까지 개편대회를 치를 것이라고 설명。

또 黨憲에따라 잠정적으로 黨을 맡게된 曺基沆총재직무대행은『어쨌든 남은사람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야당한다는게 어려운것임은 黃의원도 입당때 각오했을 것』이라고 뼈있는 한마디。

한편 民權黨을 탈당한 黃明秀金正秀두의원은『어떤召命이있다면그때가서진로를결정하겠다』고 밝히고『현재로선아무계획이없다』고。

◆외무부、文書點檢계획 無期연기

외무부는 3월부터 각課의 文書점검상태를 點檢하겠다는 李範錫장관의 예고에따라 局長級이상으로 點檢班을 편성했으나 외국 귀빈들의 잇따른 訪韓일정때문에 이계획을 무기연기。

외무부는 지난주 차관이하 국장급이 2人1組가 되어 소관부서가 아닌 他部署를 크로스·체크하도록 점검계획을 짜놓았는데 李昌範中東국장이 누메이리 수단대통령의訪韓준비등을이유로연기를요청해금주부터실시할예정이던日程을연기。

그러나 22일부터 26일까지 말레이지아 國王에 이어 27일부터 30일까지는 에콰도르 수상이, 29일부터 4월1일까지는 스리랑카 수상이 訪韓하는등 外賓들의 訪韓 러시때문에 다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는것。

부동산및사업체

매매알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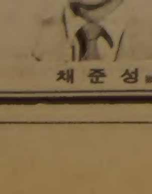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 준 성

〈국제한약상사〉

이 전 개 업

금번 쥬이시 시장안에 국제한약상사(전 안강용한약방)를 설립하고, 이전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와 같이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고 많은 애용 있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특히 작년 1달간 사업관계로 중공을 방문, 각종 한약재를 직수입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 호 권　배상

— 각종 한약재 도산매(도매,소매) 전문점
- 원로 중국 한의사 초빙코 봉사.

〈개업일자〉 2월23일(수)부터
〈장　　소〉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시영파킹장앞)
〈전　　화〉 (B) 593−5238 (R) 759−4012
〈영업시간〉 월~토 : 오전 10시~오후 8시

★SPECIAL 각종 보약재 10−15% 할인
진품웅담, 길림산 녹용, 해구신, 호구신, 우황청심환. 사향, 각종 보약재등…。

신문구독자 10명중 9명이
한국일보를 구독하는 이유는…
그리고 항상 최대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일보가 매일매일 가장 열심히 만드는 일간신문이기때문입니다.

가장 열심히 만드는 신문

"한국일보가 새로와졌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요즘 한국일보는 내용이 좋다."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신문"이라고 말해주는 독자도 적지 않읍니다.

한국일보가 과연 새로와진 것인지, 내용이 썩 좋아진 것인지 장담하고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한국일보가 ▲가장 많은 기자에 의해 ▲가장 열심히 만들어져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독자에게 읽히는 신문임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더한층의 애독을 부탁 드립니다.

「核心체제」현상유지

民正「5役개편」의 背景

人和단결에 力點「權·李」중심으로
政策委 확대개편은 활성화 布石

그동안 숱한 說往說來 속에 화제를 모았던 民正黨의 黨職개편은 대표위원교체에 이어 22일로 核心간부인5役에 대한 人事를 단행함으로써 윤곽을 드러냈다.

黨5役을 제외한 나머지下位당직은 29일 전당대회가끝난뒤에 할 예정이어서 人事熱風은 일단수그러졌으나 당분간 지속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번 民正黨의 黨5役의개편은 한마디로 당의 얼굴인 대표위원만을 바꾸는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다.

지금까지 首腦部인 5役을 구성했던 5人중 李載瀅대표위원이 나가고 그자리에 陳懿鍾정책위의장을 승진시켰기때문에 22일 留任된 王相殷 중앙위의장 權翊鉉사무총장 李鍾贊총무와함께 5人중 4人이 남게된 것이다.

鄭石謨의원이 정책위원장으로 새로 들어선 것은 대표로 승진한 陳의장의 자리를 메우는 성격의 것이어서 金琉泰대변인이 黨5役인사와 나란히 再임명된 것은 黨을 이끌어온 核心的인 體制의현상유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핵심體制의 현상유지는 그동안 黨을 운영해오는데 功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이 그대로 당분간 맡긴다는 기본 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代表위원교체와 政策委의장 補任으로 끝난 民正黨의 핵심 黨職개편은 「現體制유지」로 특징지어진다. 사진은 22일 黨4役의 人事를 발표하는 金琉泰대변인.

王의장은 창당때부터 지금까지 民正黨이 재정난에 봉착할때마다 자진해서 숨은 공헌을 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非정치적이고 순박한 합리적 성격과 인상이 적을 사지않는 감점을 지니고있어 人和를 중시하는 中央委의장으로서 3천여명의 중앙위원을 끌고가는데 적임이라는 판단을 한것같다.

權총장과 李총무의 유임은 앞으로의 당운영에 있어서—과거에도 그랬었지만—그들의 역할이 더욱 커지리라는 예상을 낳게하고 있다.

「李대표·李총장」說이 유력하게 나돌기도 했던 두사람은 陳대표를 「집안 어른」으로 모시면서 人和속에 단결을 다져 나가겠다는 布石이다.

權총장은 작년5월 취임한 이래 침묵속에 超人的인 정력과 특유의 人和力으로 당을 별다른사고없이 이끌어왔으며 후배格인 李총무와 팀웍을이뤄 잡음없이 집권與黨을 리드하는 主役으로서의위치를 굳혔다.

權총장의功은 무엇보다 작년 취임당시 어수선했던 黨內의 不協和音을 가라앉히고, 對話를통한 소속의원들의 疎外感을 어느정도 해소시켜온 점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있다.

이와함께 對野관계에서도 소리없는접촉으로 원만한 정치를 끌어온것으로 평가되고있다.

李총무는 그동안 제한된정치상황에서나마 두번의 11代 정기국회를 원만히 넘겼고 反感을 사지않는 對野접촉으로 협상을 이끌어왔던게 사실이다.

결코 硬直되지않은 柔軟한 성품으로 쉽지않은 對野협상을 요리해왔기때문에 야당측에서도 호의적 반응받아온 利點이 留任을 결정하게된 요인으로 풀이되고있다.

사실 원내총무로서 李씨이외에 代打를 찾을수가 없는게 民正黨人事의 현실이고보면 그의留任은 어쩌면 불가피했는지도 모른다.

鄭石謨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된것은 뜻밖의 人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鄭의장의 경우는 경찰및지방행정에 관한 경륜등 그의 행정적인 능력이 평가된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의장이란 정책적인 브레인이기보다는 정치적인 감각을가지고 정책위 산하의 그많은스태프를움직여나가는 행정능력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鄭의장의 人選은 그런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정책위는 새黨憲개정안에서 상하기구를 확대하는 내용이기때문에 행정능력의 필요성은 더욱 切實한것이다.

金琉泰대변인은 작년 5월 權총장과함께 「入城」했는데 그동안 당운영에서 적지않은 기능과 역할을 해온것으로 알려지고있다.

黨職중 가장 힘들고 번거로운 「苦役」으로 알려진 대변인직을 무난히 해내 원하면 상임위원장자리로도 갈수있었으나 「苦役」에 다시 도전했다는 後聞도 있다.

이번 黨職개편의 스타일을 보면 단계적으로 단행한다는 특징을 엿볼수있다. 모든 黨職과 국회要職까지 한꺼번에 모조리 쏟아놓던 종래와는 스타일이 사뭇 다른것이다.

民正黨은 21일 대표위원인사를 먼저 했고 다음날인 22일 4役과 대변인의 인사를 단행했으며 그이하의 당직은 전당대회이후에 한다는 日程을 잡아두고있다. 이는 전당대회준비에 참여하고있는 일부 黨職者의 입장을 고려한 측면도 없지않다. 그래서 財政(金融)·災害대책·평화통일 위원장과 사무차장, 정책위부의장 정책조정실장 정책연구소 간부등은 전당대회이후에 순에가서 하는등 단계적인日程이다.

그리고 국회의장 부회장과 각상임위원장등 국회 要職은 현직자의 임기가 끝나는 4월10일에 가까이가서 斷行할방침이어서 그야말로 人事의 퍼레이드가 연속될 전망이다.

앞으로 남은 하위직의 개편에 대해서는 黨5役의 小幅개편으로 보아 小幅으로점치는 견해도있으나 黨5役이 小幅이었기때문에 오히려 대폭이 될것이라는 반대해석도 있다.

국회상임위원장등이 거의 전부 바뀔것이라는 전망은쉽게 할수있지만 下位당직의개편방향은 현재로서는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黨5役의 인사와 함께 최종결론이 난 黨헌개정안은현재 法的 근거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黨의의사를 결정하는 主役을 해온 黨職者회의를 공식기구로 制度化한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될수 있을것이다.

지금까지 운영관습으로 보면 대표위원 (중앙위의장은빠진)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사무차장 대변인등 5~6명의 핵심간부들이 모이는 당직자회의에서 사실상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왔던게 사실이다.

이러한 기능을 黨憲상의기구로 公式化하여 常任委라는 이름으로 常設化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黨에서 是非가있었던 대표위원의 임기(2년)문제는 결국 손대지않고 그대로 두기로 결론을 내렸것은 2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黨代表의 실적을 점검해보는것이 일리가있다는 관단에서 나온것같다.

黨憲상 임기가 명시되어있는 黨職은 총재이외에 대표위원과 원내총무가 있다.

원내총무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하기때문에 국회 常委長의 임기(2년)와 맞추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사무총장이 한손에 쥐고있던 黨務정책 院內문제를 분리 독립시킨것은 기능의 分業化라는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예상되어온 것이다.

정책위에 부의장을 10명으로 늘리고 수석부의장이 정책조정실장을 겸하게 한는것등 정책위의 확대개편은 정책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活性化하고 의원들의 정책활동 참여기회를 늘리려는뜻으로 해석된다. 【黃昭雄기자】

메아리

感謝합니다

택시를 탔다가 내리면서 「고맙습니다」하고 인사를 했더니 운전사는 대답이 없다. 무슨 특별히 따로 고마운 일이 있어서라기 보다 외국에 체재하던 때의 버릇이 남아 저절로 인사가 나왔을 뿐이다. 「안녕히 가십시오」 한마디로 족한것을 운전사가 인사를 받지않는 것은 흔히하는 인사가 아니라서 잘 못알아 들었다는 말인지, 잘 듣기는 했으나 이런 인사를 받는 버릇이 되어있지 않아서 얼른 대꾸할 말이 생각 안났단 말인지, 하여간 인사를 한 쪽만 머쓱해진다. 운전사가 그날 아침에 무슨 불쾌한 일이라도 있었나 싶을수도 있겠지만, 한두번의 일이 아니라 번번이 그랬다. 개인적인 주먹구구식 통계론는 택시 운전사 열사람중 두어 사람정도만이 응답을 해주었다. 저쪽에서 먼저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해 오는 사람은 스무명에 한명이 될까말까다. 운전사가 대답을 피하는 것은 느닷없는 감사에 당황해서라고 생각해야 옳겠다. 그렇다면 왜 고맙다는 말이 그렇게 당혹스럽게 들려야 하는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때, 백화점에서는 점원들이 물건을 사가는 손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대개하지만 웬만한 상점이나 시장같은데서는 주인이 고객에게조차 감사의 표시를 잘 하지않는다. 물건을 사가는 손님이, 주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법은 거의없다. 식당에서 식사를하고 나올때도 마찬가지다. 주인에따라 손님에게인사를 하는 사람도있고 안하는 사람도있다. 그러나 손님쪽에서는 대부분 안한다. 버스에서 가끔 학생들이 노인들에게 좌석을 양보하는것을 본다. 더러는 고마와 하는수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노인들이 아무말도 않고 비켜준자리에 털썩가서 앉는다. 젊은이가 노인에게 좌석을 양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굳이 감사해야할 필요가 없다는투다.

이렇게 우리사회에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귀하다. 日常化되어있지않다.

택시운전사나 가게임자나 식당주인이 자가차나 자기집을 이용해주는 손님에게 감사해야 하는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고맙습니다」라는 말한마디에 語訥(어눌)하다. 하물며 손님이랴.

택시를 타거나 가게에서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한것은 돈을 주는 일이니 이쪽에서는 고마와 해야할 까닭이 없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 돈을내고 얻는것은 감사해야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돈을 지불하는것을 무슨 큰 施惠로 오해한다. 서비스가 더 값비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갈길이 급할때 택시를 태워주고 물건이 필요할때 그물건을 제공해주고 배가고플때 밥을 먹여준데 대해서는 고마운줄을 모른다.

金聖佑
<編輯委員>

어느 경우거나 주인은 물론이거니와 손님도 고맙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활이란 은혜의 연속이다. 말끝마다 고맙다고 해야 옳다.

「요구는 뜨겁고 감사는 차다」는 독일 속담이 있다. 우리는 항상 달라고만 보챘지 쉽게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에 인색한 것은 비겁한 일이다. 용기가 없는 것이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지는것인줄 아는 사람들, 자기에게 무슨 약점이 있어서 용서를 비는것과 마찬가지라는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란 말을 발음하지 못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감사에 궁색하다. 감사할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다. 독일 속담을 하나 더 들자면 「보리와 感謝는 좋은 땅에서만 자란다」. 감사가 잘 자라지 않는 우리 땅은 薄土다. 이薄土를 기름지게 일구는 일이 意識개혁의 길이다.

세상에 지나쳐서 좋은 것은 感謝밖에 없다. 감사는 마음의 음악이라고 한다. 아무리 들어도 싫증나지 않는 말은 「고맙습니다」한마디 뿐이다. 아무리 되풀이해도 닳지 않는말은 이 한마디다.

通關이「빽빽」해진다

달라진 海外여행자 稅關검사

高價品 3점이상은 稅金중과·정밀조사
外國人에"까다로운 한국"인상 안심을지…

一波가 萬波를 부른다고. 하찮은 전기밥통의 반입을 둘러싸고 빚어진 자그마한 소동이 요란한 충격과 함께 관세행정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관세청은 까다롭고 더디다는 평판이 높은 공항의 통관업무를 개선, 여행객의 불편을 덜어주고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소리높이 외쳐왔다. 작년 4월 관세청이 내놓은 통관업무개선방안은 가방을 벌려놓고 여행자의 휴대품을 하나하나 뒤지는 축수검사를 지양하고 물건의 포장상태를 파손하지않고 여행객으로부터 내용품에 대한 설명을듣고 간단히 검사하는 간이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관세청은 또 50만원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30%의 일률관세율을 적용, 세관업무를 간소화시키고 관세사후납부제의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처로 여행자의 짐검사에 소요된 시간이 평균5분에서 2분으로 줄어든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전기밥통의 과다한 반입이 물의를 빚기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강경으로 선회하던 공항의 통관정책은 마침내 초강경으로 변모한 모습을 드러냈다.

관세청이 「여행자휴대품 반입억제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내놓은 통관행정지침은 확실히 과거의 통념으로는 상상도 할수없을 만큼 강경하다.

종합대책은 우선 여행객이 휴대품을 많이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기위해 여행객의 신분에 따라 통관검사절차를 달리할 방침이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별도검사대에서 검사를 받도록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을 가져오는 공직자는 청와대와 총무처에 보고하기로했다. 특히 양주와 양담배는 아예 통관을 불허하는등 빡빡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일반여행자(내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통관관리제도를 도입①휴대품의 무게가 30kg을 넘는 경우 ②전기밥솥, 전축, TV, VTR, 카세트, 자동차부품등 여행자용품으로 볼수없는 휴대품을 가져올경우 ③카메라·시계·모피의류·귀금속·녹용·웅담등 국내시가10만원이 넘는 고가품을 3점이상 가져오는 경우는 해당품목뿐 아니라 휴대품전부를 공항주재세관이 아닌 서울세관(金浦의경우)과 부산세관(金海)으로 옮겨 정밀검사하여 무거운세금을 물리는것은 물론 휴대품과 다반입자는 외무부와 소속단체장에게 통보키로했다.

해외취업자는 휴대품무게가 40kg이상이거나 고가품이 4점이상인 경우 특별통관관리를 한다.

◇공항의 통관검사는 까다롭고 번잡한 절차。이제 규정을 위반하면 서울세관 혹은 부산세관으로 옮겨져 더욱 까다로운 검사를받아야한다.

페리편으로 연10회이상 국내에 드나들면서 상용으로 휴대품을 과다하게 반입한 사실이 있는 재일교포는 감시대상자로 지목하여 별도검사대에서 정밀검사하고 아울러 외무부에 통보하여 비자발급을 제한토록 한다.

외국인(교포포함)이라도 자주드나들면서 휴대품을 과도하게 많이 들여온 사실이있는 1천12명은 그명단을 컴퓨터에 수록하여 검사·검색을 특히 정밀하게 함과 아울러 미행감시를 한다. 뿐만아니라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출입국관세사범및 연12회이상 입국자로서 입국목적이 불분명한자도 要注意관리대상에 넣는다.

종합 대책은 해외근무자의 이사물품도 과도하게 가져오지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사짐의 무게를 제한하고 가져올수 없는 물건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확인을 철저히 할방침이다. 만일 공관장의 확인을 받지아니한 물품과 정해진기준을 초과한 물품은 통관을 불허함은 물론 관계기관과 소속장에게 통보키로 했다.

또 외제반입품이 상품화되어 시중에 나돌지 못하도록 비밀아지트·고급주택지 주변상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배후조종자와 판매조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은 물론 주요도시외곽검문소·우범시장진입로·주요터미널등에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특히 범법행위자의 종류에 따라 50만원(초범)~1백50만원(누범)이상의 외제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혹은 알선하는자는 현장에서 구속하고 밀수품 구매자도 명단을 작성,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확실히 종합대책은 매우 고압적이고 강경한 시책임에 틀림없다. 관세청이 이처럼 초강경시책으로 대응할수 밖에 없었던것은 뒤집어보면 그만큼 해외여행자의 휴대품반입이 과다했다는 사실을 반영한것. 그런 의미에서 얼마간 물의와 말썽의 소지를 안고있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던 관세청의 충정을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수없는 것처럼 아무리 휴대품반입을 어제할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물의와 말썽을 낳아서는 안된다. 종합대책은 또 많은 문제점과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통관검사를 완화하려던 시책이 강경책으로 선회한데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겠다. 1년전까지 통관검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세행정을 이끌어온 것은 해외여행 자유화시책에 따라 여행객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외래관광객에 대해 한국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것으로 설명되었다. 이제 과거보다 더욱 까다롭게되면 여행객의 불편은 어떻게 될까. 과연 한국의 이미지는 개선될 수있을까. 국제공항은 그나라의 관문이다.

우리나라의 관문에서 부터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방법은 없을까. 또 관세당국은 통관절차를 완화하면 사태가 어떻게 악화될지 예상하지도 못했는가. 관세행정당국자는 사태를 오판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게가 많거나 고가품을 들여왔다해서 다른 휴대품까지 모두 영치하여 세관을 옮겨가면서 검사를 강화한것은 좋게 말하면 과잉방어요, 나쁘게 말하면 행정권의 남용이다. 해외여행을 오래하다보면 신변용품만으로도 30kg이 넘을수도 있다. 어떤 가방은 가방무게만도 10kg가량 되는것도 있다.

우리의 오랜관습에 비추어보면 친지에 대한 선물만으로도 10만원이상 쇼핑하는수가 많다. 또수출입기별공고에따라 상당한 고가품도 수입이 자유화되어있다. 이런것들은 정당한 절차에따라 과세하면 됐지 여행객에게 특별한 불편을 주어가며 단속하는것은 정당한 처사라할수는 없다.

관세청측은 혹시 휴대품반입을 예방하는 조처라 할지모르지만 그게바로 과잉방어다. 더구나 우리나라 특유의 말단기관의 과잉단속을 둘러싼 잡음을, 관세청당국은 잘듣고 있는지 묻고싶다.

문제점을 제기하면 당사자인 관세청측은 혹시 휴대품의 과도한 반입을 방치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그런흑백논리를 전개하면 개선이 있을수 없다. 극단에 흐르지 말고 조급하게 서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주기 바란다. 【朴炳潤기자】

◇매클로크孃의 요염 美容강사이자 모델인 커렌·매클로크양(21)의 요염한 포즈。낚산타기、수영、스코시(테니스의일종)를 즐긴다는 매클로크양은 최근 고향을 떠나 명성과 부를 찾아 스토브리지에왔다고。 [스토브리지(英)21일AP=聯合]

海外토픽

수百萬마르크被害

★西獨세계적博物館에 불

서독에있는 세계최대과학·기술박물관에 20일 불이나 수백만마르크상당의 전시품들이 못쓰게됐다고 21일 경찰이 발표。

경찰대변인은 화재가 박물관 지하에있는 자연과학전시관에서 발생, 건물을 받치고있던 강철기둥이 그열로 약해지는바람에 소방관들이 이 전시관안으로 들어가지못해 피해는 더욱 컸다고 설명。 【[illegible]】

粉乳업계서 압력

★母乳장점설명 檢閱받아

유엔아동구호기금(UNICEF)특사로 필리핀을 방문중인 스웨덴배우 리브·울만양은 모유의 장점을 설명한 자신의 TV인터뷰내용이 분유가식제조업자의 압력을받아 보도검열을 받게됐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파렴치한행위를 만천하에 공개하겠다고 격분。

울만양은 최근 필리핀국영방송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던 모유에관한 회견내용이 다국적식품기업 네슬레와 제휴한 필리핀유아식회사 필리프로의 사주로 왜곡된데에 큰충격을 받았다고 지적。 【AP】

점보機 벼락맞아

★꼬리부분만잘리고 無事

승객 2백37명을 태우고 뉴욕을 출발, 스코틀랜드로 가던 노드·웨스트·오리엔트 항공사소속 보잉747점보제트기가 에이레상공에서 두번이나 벼락에맞았으나 꼬리부분이 떨어져나갔을뿐 더이상의 화는모면했다.

여객기가 예정대로 에이레 샤논공항에 무사히착륙하자 승객들은 섬광과함께 뇌성벽력이 울렸으며 동시에 기체가 기우뚱했다고사고순간을 회상하면서 안도의한숨을 내쉬었다。 【海】

"이민교회와 가정 생활"

〔가정문제에 대한 교회의 사명〕

Panel Ⅰ 가정문제에 대한 분석
사회자 : 조 성 준(사회사업가)

1.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가정문제의 문제점
유 시 홍 (정신과 의사)
2. 가정조직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
이 인 숙 (학자회 총무)
3. 청년문화 문제의 검토
김 보 경 박사 (임상심리학박사)

※반응 : 김 의 명 (사회사업박사과정)

Panel Ⅱ. 가정문제에 대한 교회의 사명
사회자 : 조 경 자 목사

1.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
최 등 영 (내과의사)
2. 이민가정에 대한 목회
박 희 민 목사 (목회신학박사)
3. 기독교가정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김 상 호 목사(목회신학박사)

※반응 : 김 지 일 박사 (임상심리학박사)

Ⅲ. 초청강연 : 강사 함 성 국 목사
(구약신학박사·북미학자회장)
"2천년대의 한인 이민교회"
사회자 : 이 상 철 목사
(명예신학박사)

때 • 1983년 4월 9일(토)
오전10시~오후9시
장소 • 한 인 교 회
69 William St. Weston

재캐나다 기독학자회 회 장 : 김 희 섭 부회장 : 박 희 민 총 무 : 김 상 호

大學「學事경고」강화된다

文敎部 성적아닌 석차로 相對평가

一定率대상…「脫落충격」완화

올 탈락생 예상보다적어 전국서 6백20명선

대학의 內規로돼 있는「학사경고제」가 學則으로 바뀐다。이는 지금까지 절대평가로 운영돼오던「학사경고제」를 상대평가로바꿔 학생들에 대한 대학의징계권을 강화하는등 대학의자율성을 제고시키려는것이다。또 이 학칙으로 강화된「학사경고제」는 현재 대학가를 압박하고있는 졸업정원제의 짐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려는 정책적인 배려가있는것으로 풀이돼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학사경고제」는 성적불량 학생을상대로 除名에앞서 경고형식으로 이뤄지는 대학당국의 징계권이다。

▲한편 문교부가 잠정집계한 결과 지난2월말 졸업정원제에의한 강제탈락자는 예상외로 적어 전국 각대학에서 모두 6백20명선인것으로 처음 밝혀졌다。

21일 문교부가 마련한「학사경고제」운영강화 방안에 의하면 각대학이 제적(제명)의 사전절차로 매학년말일정점수이하의 학생들에게 내리던 학사경고를 석차상 일정비율이하로 바꿔 운영키로한다는것이다。

이는 종전의 절대평가제를 상대평가제로 바꾸는 것으로 학생들은 성적과 관계없이학과및 계열의 모집단위 범위안에서 학년별로 각대학이결정한석차에서일정비율이하로 떨어질경우 학사경고를 받게된다。각 대학의사정에따라다르지만 대부분 학사경고가 2~3회 중복될경우 제적(제명) 당하게된다。문교부 관계자에의하면 지금까지 졸업정원제에의한 강제 탈락방법보다는 대학이평소의 엄격한 학사관리를통해 탈락자를 정할수있게 유도하고있으나 일부대학의경우 성적기준에 넘는다는 이유로 제적자를내지않음으로써 졸업정원제에 의한 탈락자가많아지게되는 모순을빚게 되기때문에 이같은안이 마련된것이라는것。

그러나 실제로 이같은 방안은 탈락의 방법만 다를뿐 모집인원의 30% 중도탈락율은 변함이없는것으로 현행졸업정원제에 의한 강제탈락이 학교내외로 비교육적인 문제를 야기시킬우려가 있다는관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한편 문교부는 이날하오전국대학교무처장과장및 학적과장회의를열고 학사경고제 운영강화를 지시하면서『졸업정원제의 뜻에따라 평소학사경고로 학생의 면학을계속 촉구해야함에도 어떤대학에서는 이를 철저히지켜 중도탈락자를모두 학업성적 부진으로 처리하고있는데반해 일부대학에서는 학사경고제운영이 부실해 학사경고처분이 전혀없다』고 지적했다。

문교부는 또 대학에따라 졸업정원제의 학년별 탈락율과 중도 수료방법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하고 학년별 탈락률은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탈락될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이 다르다고 지적, 탈락율을 신중히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李鍾九기자】

휴대품 過多반입용의 1천2백명

電算化…감시·追跡강화

關稅廳서 종합대책

관세청은 21일 내국인은 물론 해외동포를 포함한 휴대품 과다반입용의자 1천2백명을 전산처리,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국내에서의 미행감시를하는것등을 골자로한「해외여행자 휴대품반입억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대책에 따르면 해외동포로서 연간 10회이상 빈번히 입국하면서 휴대품을 과다하게 반입한 사실이있는 사람에대해서는 일반입국자와 구별, 별도검사대를 지정, 정밀검사를통해 신변 일상용품이외의 휴대품은 일체 통관불허하고 이들의 명단을 작성, 외무부에 통보하여 비자발급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의 경우 (교포포함)라도 연간12회이상 입국한자로서 1회이상 과다반입한자와 연간6회이상 입국한자로서 2회이상 과다반입한 사실이 있는자등은 리스트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검색을 강화하고 미행감시반을 편성 운영한다는것。

관세청은 또 해외근무자들이 이사물품을 너무 많이 가져오지못하도록 오는 7월1일부터 반입한도(중량및 물품기준)를 제정운영하고 공관장확인제를 도입, 확인을 받지않은 물품은 통관을 불허함과 동시에 그명단을 관계기관의 소속장에게 통보키로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내국인 일반해외여행자가 30kg이상 휴대품을 가져오거나 전기밥솥등 여행자용품으로 볼수없는 휴대품을 가져온경우, 귀금속·웅담·녹용·모피의류등 싯가10만원이상 고가품을 3개이상 반입한경우는 모두 특별통관처리대상자로 지정, 휴대품을 공항에서 통관시키지않고 서울세관(김포공항)으로옮겨 정밀검사를해 무거운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有實樹 많이심도록

山林廳, 한달간 범국민植樹운동

산림청은 21일부터 한달동안을 범국민식수운동기간으로정하고 이기간동안 고속도로와 국도, 시가지의 가로수로 각, 밤, 은행나무등 유실수를심도록 적극권장하고 도시와 직장주변에는 무궁화심기운동등을벌이고 각 자연부락도 정자나무심기등으로 생활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는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산림청은 올해 식수운동기간중 3백44억원을 투입, 5만8천ha에 유실수와 장기수등 1억7천여만그루를 심고 2천7백만그루의 올림픽 식수, 8만그루의 도시가로수를 심을 예정이다。

敎師파면 再審키로

全州 德津고교사건

【全州】 속보=6명의교사를 징계파면한 全州德津고교의 학교법인 星林학원은 22일상오 德津중학교에 있는 법인사무실에서 재심위원회를 열기로했다。

盧秉吉이사장은 재심위원회에서 이들교사에 대한 징계파면이 부당하다고 결정되면 그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聯合】

◇江山을 푸르게 — 화단과 화분을 손질하는 손길따라 봄이 숨쉬고 산과 들에선 植木의 기쁨속에 봄이 깃들고있다。산림청 임업시험장 2백여직원들은 春分이자 국민식수기간 (3월21일~4월20일)의 첫날인 21일상오 城南시 下大院洞산에 3천여그루의 잣나무를 심었다。 【權周勳기자찍음】

침몰선서 原木유실

선박충돌 위험

【群山】 속보=지난19일 침몰한 자사호에 적재돼있던원목 1천여본이 해상에 떠다니고있어 사고위험을 안고있다。

21일 群山지방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북沃溝郡미성읍 飛鷹島 서남방1마일 해상에서 침몰된 자사호의 적재원목을 확인한 결과 총적재량 1천3백36본중 침몰된 선체내에는 3백여본만 남아있을뿐 나머지 1천여본은 유실된채 해상 또는 수중에 떠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원목들은 1본당 중량이 2~3톤에 달해 선박들이 충돌할 경우 해상사고의 위험이 크다는것이다。

항만청은 이들 원목들이 주로 古群山열도와 飛鷹島변산반도 연안에 떠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한주측에서 사소속 인양선 디포호(144톤)등 2척과 함께 원목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聯合】

선원10명 屍體찾아

【群山】 속보=전북沃溝郡미성읍飛鷹島앞에서 지난18일 폭풍으로 침몰된 파나마 선적 원목선자사호 실종선원을 수색하고있는 群山 해양경찰대는 21일하오2시현재 실종선원 12명가운데 로날도·에이·짐파야(38)와 조세·비·야펠로(46·4등기관사) 2명을 제외한 10명의표류시체를 찾아냈다。 【聯合】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용돈안준다고 형과 다툰후

조카목졸라 殺害

【龜尾】 경북 구미경찰서는 21일 형과 다툰 앙심으로 나이어린 질녀를 목졸라 죽인 이옥모씨 (24·善山郡海平面金湖洞)를 살인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일하오 3시께 평소 용돈을 잘주지 않는다고 형 경모씨 (34)와 다툰뒤 집밖에서 놀던 질녀 승애양 (7)을마을뒤 대나무밭으로 끌고가손으로 목졸라 죽여 나무잎으로 덮어두고 달아났다。 【聯合】

沈沒한 백능호선원 수색작업 성과없어

【木浦】 속보=해경木浦지구대는 20일 지난17일 상오11시께 新安郡荏子面飛禽島북방8·5마일 해상에서 침몰한 전남靈光선적 제1백능호 선원 (29·선주 박국현·40)의 선원 10명에대한 수색작업을 위해 해경비정 1척과 경찰경비정 2척등 모두3척의 경비정을 동원했으나 아무런 성과를거두지못했다。 【聯合】

5行뉴스

◆東學革命 89주년기념식 =21일상오11시 鍾路區慶雲洞 중앙대교당에서 동학혁명 89주년기념식을 거행했다。

李永福교령은 기념사에서 『동학혁명의 정신인 민족자주성회립과 인간성회복에 힘써 평화사회를 이룩하여 계승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孔子탄생기념 춘기석전 =공자탄생 2천5백34주년 기념 춘기석전이 20일상오10시 서울鍾路區 明倫洞3街53 成均館내 문묘에서 李載瑞 成均館長, 曺佐鎬 成均館大 총장과 유림대표및 주한외국대사등 2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봉행되었다。

이날 유림회관에서는 특별기념강연회로 文德守 弘益大 사대학장의 「유교와 휴머니즘」이란 주제강연도있었다。

◆司法府 공직자부인 硏修 =사법부상 정립을위한 사법부고위공직자부인 연수교육이 21일상오10시부터 서울江南區 瑞草洞 법원공무원교육원 강당에서 열렸다。이날 교육에는 在京지구법관 부인 전원과 이사관급이상 사무직간부부인등 4백46명이참석, 하오4시까지 경제강의와 정신교육등을 받고 계몽영화등을 감상했다。

사법부공직자부인 교육은 서울외에도 釜山 大邱·光州·大田등 4개지구에서 이날일제히 실시됐다。

브로커가 모집한 유럽 단체觀光客

旅費떨어져 런던서 발묶여

出國비행기표만 끊어줘… 17명중 3명

해외여행브로커가 유럽단체관광객17명을 모집, 편도비행기표만끊어 출국시켰다가 여비가떨어져 이중3명이 영국에서 발이묶여 귀국하지못하고있다。

21일 업계에따르면 경기도 政府에 사는 여행브로커方모씨는지난2월중순유럽단체관광객 17명을모집, 홍콩경유 런던행 항공표만 끊어 출국시켰는데 현지에서 돈이떨어지자 14명은 지난3월초순귀국했으나 金양록씨, 朴기수씨등 3명은 런던의 한 호텔에서 오도가도못하고 21일현재 묶여있다는것。

이같은 사실은 김양록씨의 가족이 이들단체여행객의비행기표를 대행해서끊어준 서울파고다여행사(中區茶洞87·대표 任仁赫·31)에 호소해옴으로써 밝혀졌는데 여행브로커 方씨는 지난 10일께 파고다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이들을 데려올 방법이 없느냐고 의논해왔었다。

그런데 교통부 조사결과 파고다여행사도 여행알선업 등록절차를 밟지않은 미등록 여행사임이 밝혀졌다。

대표 任씨에의하면 지난2월초순 평소 안면이 있는方씨가 영국까지가는 17명의단체항공권을 부탁, 인가받은 여파나여행사에의뢰, 이들의 표를끊어주고 2월19일 이들을 대만까지 인솔해주고 자신은 돌아왔다는 것이다。그러나 任씨는 方씨가 어떤방법으로 여행객을 모집했으며 여권발급경위등은 알수없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같은 무분별한 해외여행알선으로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등록된 여행사만이 단체여행객을모집, 해외로 내보낼수있도록 관광사업법으로 규정하고있다。

五松會 사건 5번째 公判

【全州】 五松會사건관련 피고인 9명에대한 5회공판이 21일상오 전주지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李補煥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안대찬부장검사의 공소사실에대한 직접심문이 있었다。

다음공판은 오는4월4일。 【聯合】

大法院 원심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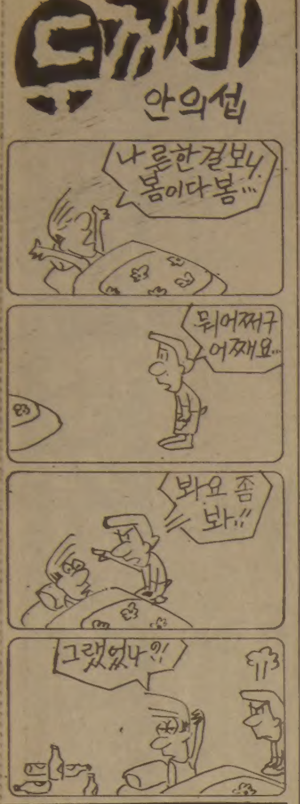
제3자失火로 投宿客 피해

호텔 損賠책임없다

대법원민사부는 21일 뉴서울호텔 화재사건과 관련, 盧炳年씨 (光州市西區일곡동360)등 일가족10명이 뉴서울호텔과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제3자의 실화로 투숙객이 숨졌을경우 호텔측에 고의에가까운 중대한 과실이없는한 손해배상책임은 호텔측에는 없고 불을낸 사람에게만 있다』고 밝히고 뉴서울호텔에 패소판결을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光州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뉴서울호텔 (서울中區太平路1街)에서는 지난79년2월6일밤 311호실에서 당시 한국은행이 행원채용시험 문제지를 등사하던중 임시고용원 최기원의 잘못으로 불이나 306호실에서 잠자던 盧씨의 아들 盧道燮씨 (당시23·光州고속 서울점직원)가 질식해 숨지자 盧씨등 10명이 뉴서울호텔과 한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건물이 제3자의 실화로 불이나 세를들거나 투숙한사람에게 손해를입혔을경우, 건물주인은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히고『화재당시 호텔측이 수동경보장치와 구내방송으로 대피안내를 했고 같은층에 있던 투숙객 7명은 숨진 盧씨를제외한 6명은 창문으로 대피할수 있었던점으로보아 호텔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렵다』며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며느리와 不和 비관해온

50代여인 自殺屍로

20일 낮12시께 서울江南區盤浦1동주공아파트31동110호 姜正順씨(36·회사원)집 문간방에서 姜씨의 어머니 姜元順씨 (58)가 숨진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姜씨의 머리맡에 신경안정제가 놓여있었고 약봉지에 「며느리가 말을 시켜도 대답도 하지않아 심심하다。쉽게 죽는방법을 연구해야겠다」는 내용의 글이 쓰여있는 점으로 미루어 자살한 것으로 보고있다。

숨진 姜씨는 해방전 여고를 졸업한뒤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유부남을 만나 아들 姜씨를 낳았는데 그후 자신에게 인정시켜주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었다。

姜씨는 10여년전부터 술을 자주마시고 신경안정제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해 왔었고 자식부부와 사이가 좋지않아 늘 이를 비관해왔다는 것이다。

同一犯소행단정 探問수사

카바레 연쇄毒殺劇

서울江東카바레연쇄독살극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1일 카바레여자화장실에서 두번째 발견된 유산균음료수병에서도 첫번째와동일한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통보받아 동일인에의한 범행으로 단정, 수사를 펴고있다。

경찰은 이카바레종업원 申東燦씨 (26)가 지난17일 마시고숨진 첫번째 유산균음료수는 B社제품으로 제조일자가 15일, 두번째발견된 음료수는 H社제품으로 제조일자가 16일이었음을 밝혀내 범행하루전에 각각 구입, 미리 준비한 독극물을넣어 카바레 화장실에 놓아둔것으로보고인근 구멍가게와 독극물취급상점을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있으나 21일현재 사건해결의 실마리를찾지못하고있다。

경찰은일단 이업소에 불만을품었거나 카바레측에 환멸을느낀나머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한 연쇄살인극을 피한범행으로 보고있다。

한편경찰은 40대여인이 유산균음료수병을 맡겼던 옷보관소가 카바레와는 별도운영, 제일처음 金모씨 (45·여)가 운영하다가 陳모씨 (50·여)를 거쳐 지난1월 현재의 金모양 (19)에게 넘어갔는데 첫번째 운영자 金씨가 최근 권리금1백50만을 카바레주인에게 요구, 자주찾아왔다가 번번이 거절당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 이사건과의 관련여부를 함께 수사하고 있다。

가정집서 가스터져

7명 重輕傷

【大邱】 20일 하오 6시30분께 경북 漆谷郡東明1洞 김연자씨 (30·여) 집에서 프로판가스가 폭발, 김씨의딸 최문지양 (11)과 때마침 지붕을 고치던 이동네 유지근씨 (48)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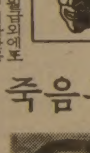
「우리는 罪囚…」

鷺室아파트 관리소장 朴承喆씨

외로운 할머니 죽음부른「斷絶의 壁」

아파트관리소장 朴承喆씨 (59·사진)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일이 즐겁고 인생이 아름답다고 느껴왔다。鷺室1단지의 7·5평과 10평짜리 1천여세대를 돌보는일이 그의 소관인데 대부분은 독신자거나 신혼부부여서 임꼬나 개미가 드나드는것같아 싫지가 않았다。

朴씨는 아들3형제 다 사회에서 한몫을하며 짝지어 나갔고 5년전 부인과 단둘이 여기에 만년을 보낼 둥지를 만들었다。아스팔트위를 조깅도하고 공무동 자전거에 매달고 페달을 힘껏 밟으면 마음은 둥둥떴다。월급외에도 연금이 나오는데다 커다란욕심도없어 부러울게 없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파트가 피돌처럼 느껴졌다。그렇게 열심히 자전거로 순찰했는데도 1백10동 7·5평짜리에서 외로운 할머니가 자살, 그 시신이 한달만에 발견된 것이다。인정이 메마른 뉴욕이나 파리등 서양에서나 일어나는 일인줄 알았던 그에게 이 사실은 소름이 끼치는 「충격」이었다。

싸늘한 아파트숲이 갑자기 싫어지고 손자들이 보고싶어졌다。콘크리트벽속에 갇혀사는 한가구 한가구의 「생활」이 새삼 궁금했다。윗집, 옆집과도 대화 한토막 없이 사는 모습도 새삼 이상하게 보였다。인간의 배타성과 폐쇄성을 처절히 느낀다。

그러다보니 젊은독신녀가 사는 7·5평짜리 새장같은 아파트앞에 밤이면 고급승용차가 세워져있는것을 보고는 구역질이 나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입주자의 요청에따라 수도꼭지 하나를 고치러 직원을 보낼 때도 꼭 2人1組로 보내야 마음이 놓였었는데…。독신이 많고 새댁이 많으니 「오해」의 소지도 많았던 것이다。

게다가 아파트가 빤히 보이는 곳에 학교가 2개나 있어 신경이 꽤나 곤두섰었다。그래서 나이어린 학생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주는일이 없도록 노력도 했는데…。

朴소장은 아무도 모르게 자살한 할머니가 자꾸 생각난다。우리 모두가 囚人인가。새봄에는 아파트의 두꺼운 콘크리트벽을 헐어버리고 작으면 작은대로 아기자기한 대화를 한번쯤 나눠보자。 【蘇熙漢기자】

科學時論

효과적인 地震對策 세워야

한반도도 安心못해…研究所설치등 시급

◇李基和교수

최근 梁山斷層에서 활발한 미진활동이 발생하고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게되었다. 원래 단층과 지진활동과의 관계는 바늘과 실과의 관계와 같아 대부분의 지진들이 이미 존재하는 단층에서 발생하며 단층이 없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새로운 단층을 생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단층과 지진활동과의 이러한 명백한 관계가 국내에서 여러가지 이유로서 현재까지 널리 인정되지 못했었다. 梁山단층이 활성이라할때 과거 慶州부근에서 발생한 과괴적인 지진들이 쉽게 설명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서기779년에 慶州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백여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韓半島는 다행히 유라시아板 내부에 위치하므로 일본이나 미국 서부에 비하여 지진학적으로 편안하나 과거의 史料는불규칙하지만 半島內에 외국의 저명한 지진학교과서에 인용된 정도로 매우 높은 지진활동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한국이나 중국 내부와 같이 板內部에서발생하는 地震活動의 특성은 時空的인 불규칙성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半島內의 지진활동의 추세를 예측하기는매우 어려우나 적어도 地震災害의 측면에서 중요시되는 점은 만일 파괴적인 地震이 발생할경우 그 피해는 막심할 것이 되리라는 點이다. 핵발전소, 고층건물, 대규모 댐등의종설이 불가피한 현실을 생각할 때 地震研究所를 설치하여 지진재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작년 3월10일자 한국일보 지상을통해 몇가지 이유를들어 서울大學校에 일본 東京大學이나 美國 캘리포니아工大,버클리所在 캘리포니아大와 같이 地震研究所를 설치할것을 제의한바있다.

현재 국내 지진연구의가장 큰 문제점은 이 분야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81년 9월에 動力資源研究所의 초청으로 訪韓한 일본의 지진학자 핫도리(服部定育) 박사는 앞으로 10년간에 韓國에 지진학자 박사 30명,석사 70명 도합 1백여명이 양성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지진학자의 양성은 대학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서울大 地質科學科에는 다행히 국내 최초로 地球物理學 專攻이 설치되어 數名의 지진학자와 지구물리학자를 교수로 초빙할수 있는 여유와 地震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교육적 여건이 구비되어 있으며 또한 地震學專攻의 대학원학생을 양성한 실적이있다.

이에따라大學附設지진연구소설치가 우리나라의 지진연구에 生産的일을 지적하고 싶다.

이 제의가 또한 가장 경제적이다.대부분의 연구계획이 大學院生들의 졸업논문과 연결되므로 정부소속 내지는 출연기관에 비하여 훨씬적은 인건비로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수있다. 筆者의 어림 계산으로는 연구소에 연구를위한 지진관측시설과 부대건물 그리고 斷層研究를 위한 地球物理器機등 지진연구소의 기본적인 조건을 구비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이 정부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것 같다.

필자는 금년2월에 地震研究관계로 日本을 방문하였고 구주지방에 위치한 京都大學소속의 아소및 사쿠라지마 火山觀測所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이지방에 東京大學 소속의 火山觀測所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地震問題를 생각하면 할수록 서울大學校에 地震研究所를 설치하는것이 국가적으로 최선의 방도라 생각되며 또 많이 설치된다면 이연구소는 東京大學이나 캘리포니아工大,버클리소재 캘리포니아大의 지진연구소처럼 매우 생산적이고 국가에 기여하는 연구소가 되리라 믿는다.

李基和 (서울大自然大교수·地質科學)

과학英才 키운다

京畿과학高…2개반 60명으로 開校

지난 4일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과학고교인 京畿과학고등학교 (교장 鄭昌基)는 英才학교는아니지만 최근 과학英才교육이 거론되는것과 관련하여 관심을끌고있다. 아직 교사가 완공되지않아 학생들은 경기도 학생과학관 (京畿水原) 시설을 빌어 공부하고있지만 오는 5월말께는 진원 1천8백11평의 교사로 옮겨 수업을 받게된다.

올해 선발한신입생은 모두 2개반 60명. 1개반이 30명밖에되지않아 60~70명이 좁은교실에서 수업해야하는 다른 고등학교에비하면 훨씬 수업분위기가좋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력고사는 물론, 학교장의 추천, 과학적성검사를 따로 거쳐야했다. 지난해 입학지원학생은 경기도지역 중학졸업생 2백18명으로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된 학생들의 학력고사 평균점수는 63·5점.

鄭昌基교장은『입학생들은 이공계통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분명했고 개인차가 매우 적었다』고 밝혔다.

추천·適性검사거쳐 선발
실험·실습위주 교과편성

이들이 배우는과정은 인문고등학교 자연계열의 학과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과학과목을 20단위(주당시간) 더 늘렸으며 실험실습을 강화했다. 특히 과학도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게 하기위해 과학사·전산학·자유탐구등을 추가했다. 鄭교장은『과학지식의 양적인 학습보다는 기초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중점을두어 교과과정을 다양화했다』고 말했다. 孫榮植교사는『획일화된 실험방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서 스스로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자발적인 탐구과정을 중시해서 지도하고있다』고 말했다.

◇과학고교 학생들은 한결같이 실험을 통해 과학원리를 쉽게 이해할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도 실험과정을 통해 과학이론을 쉽게 이해할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崔顯國군 (15)은『시험을 보기 위해 암기식으로 공부했던 중학교시절의 공부에서 실제로 실험을해보니까 이해하기가 쉬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설립된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앞으로 각시도에 설립될 13개 과학고교의 「실험학교」로서의 성격을 띠고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것이 3년뒤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치러야하는 문제로 보인다.【金周彦기자】

기계학회학술강연 26일延大서

○…대한기계학회 (회장 徐廷一)는 26일 하오2시 延大장기원기념관에서재료및 파괴부문 학술강연회를 갖는다.

이날 강연회에서는「파괴역학계수의 실험적 평가」 (朴贊善교수·국민대)등 2회의 강연이 있고 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23일세계氣象의날
올해표제는「기상관측자」로

○…23일은 세계기상기구(WMO)가 정한 세계기상의 날。올해로 제23회를 맞는「세계기상의 날」을 맞아 WMO는 올해의 표제를「기상관측자」로정했다.

「세계기상의 날」은 WMO헌장이 발효된 1950년 3월23일을 기념하기위해 마련된 것으로 1961년 3월23일을 제1회 「세계기상의 날」로 정했었다. 현재 WMO의 가입국은 1백57개국에이른다.

한편 중앙기상대는 이날 일반인에게 기상대 내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인개발「原子力 안전모델」각광

에너지硏 林昌生박사연구

◇고온핵연료로부터 핵분열 생성물이 방출되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커다란 결함을가져온다。사진은 핵연료봉을 용접하고있는 광경。

한국두뇌가 개발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모델이 미국의국가표준으로 채택되었다.

한국에너지연구소 핵연료개발부장林昌生박사(41)가 완성시킨「고온 핵연료로부터의 핵분열생성물 방출률계산을위한 표준모델」이 지난해 11월 미국국가표준(ANS)으로 채택된것。

美서「標準」채택…加·佛도사용

미국원자력학회 표준위원회 (ANS-5·4)의 창립멤버로 활약했던 林박사는 확산이론에 근거하여 수리적 모델을 만들어낸 뒤 미국,캐나다,프랑스,노르웨이로부터 입수한 64종의 실험자료를 정밀분석하여 표준방출 모델을 개발해냈다.

◇林昌生박사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이 일어날 때 생기는 원자핵물질중에는 방사성을 띤것이 많다。이들이 핵연료봉 외부로 얼마나 방출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확보와 핵연료 설계에 매우 중요한 부분。그러나 핵분열생성물의 복잡한방출과정은 그때까지 규명되지못하여 어느나라도 이에관한 표준을 정립하지 못했었다。따라서 林박사의 표준모델이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확보에 크게 기여하게됐다.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도 林박사의 표준모델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평가기준으로 삼았고 미국의 핵연료및 원자로제조회사들도 이를 채택했다。캐나다 원자력공사, 프랑스등 유럽여러나라도 이를사용하기 시작했다.

林박사는 또한 핵연료보호를 위한 새로운 원자력 운전방법을 개발, 실용화하고있다。林박사는 원자로 노심내의 30여곳에설치된 온도측정장치와 원자로안의 압력측정장치를 이용하여 노심안의 가장온도가 높은 5개위치에서 냉각수의 끓음 (비등) 여부를 즉시 알아낼수있는 방법을개발한것。따라서 핵연료가 충분히 냉각되지 않을 때 운전원은 비상노심 냉각수를 주입, 안전조치를 취할수있다。이는 원자로의 평균출구온도를 이용한 방법에 비해 국부적인 비등발생을 탐지할수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드리마일·아일랜드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했을때 운전원들은 원자로안에서 핵연료가 대량 파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시간동안 모르고있었다。이는 종전의 계측장치로는 원자로안에 냉각수가 부족하여 물이 끓고 핵연료가 건조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신속히 알수 없었기 때문。林박사가 개발한 방법으로는 이 과정을 신속히 알아낼 수 있다。

美、3월부터市販
바늘대신 이용
音盤에도 컴퓨터時代
레이저光線을

음반에도 컴퓨터시대가 왔다.

레이저광선이 바늘노릇을하는 디지틀 소형음반 (COMPACT DISC·사진) 이 3월부터 미국시장에서 첫선을 보였다.

CD판은 지금까지 보급되어온 LP판과는 녹음방식이 전혀다르다. LP판은 음파를 마이크가잡아 비닐음반의 홈에 녹음해 놓은 것을 바늘이 홈을 따라돌면서 음을 재생시키는것. 그러나 CD판은 마이크대신 컴퓨터가 음파를 잘아 각음에 번호를 매기고 이번호를 음반의 홈에 녹음,레이저광선이 이번호를 읽고 음을 재생시킨다. 레이저광선이 숫자만을 읽으므로 잡음이 나지않고 판이닳지않는다. 음반의 혁신을 일으킨 CP판은 직경이 12㎝, LP판의 3분의1에 불과해 간편한 이점도있다.

이 음반을 사용하려면 물론 디지틀 플레이어를 써야한다. 그러나 앰프나 스피커는 현재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같은 소매가격으로 플레이어가 8백달러 (64만원) 내지 1천달러(80만원), 음반은 약 17달러다.

이 새로운 음향기는 和蘭의 필립스社와 일본의 소니社가 공동개발한것인데 미국에서 각축전을 벌이고있는것은 마그나복스社와 소니社. 당초에는 올 여름이나 가을에 미국에서 시판하려고했으나 서로 경쟁하여 예정시기를 앞당겼다. 소비자들의 반응을 가름하기는 아직 이르나 일본에서는 지난해10월 시판개시 3개월만에 플레이어가 3만5천대이상 팔리는 호평이었다고 한다.

현단계에서는 시판판매나 다름없어 메이커에서도 플레이어나 음반을 대량공급할 능력이없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음반은 폴리그램社 (필립 도이치 그람모폰 런던등 유명레이블제휴)의클래식과 경음악 35종, CBS·소니의 9종에 불과하다.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양산체제에 들어가면 플레이어가 4백달러선으로 떨어질수있다는 전망이다.【外誌에서】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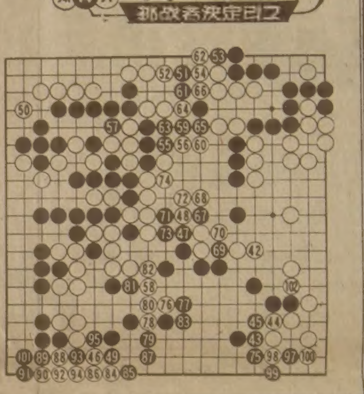
간디、5개부문석권을 英國아카데미賞

독리처드·애텐버러경이 감독한영화「간디」가 20일 년도 英國아카데미賞 5개부문을 휩쓸었다.

聖者 간디의 전기를 그린 이 영화는 간디역으로 출연한 벤·킹슬리가 최우수남우주연상과 최우수영화상 신인상을 수상한것을 비롯, 간디부인역의 로히니·하탕가디가 최우수여우조연상을 공동수상한 데 힘입어 82년도 최우수작품상까지 따냈다.【外】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제14기

第12局第8譜 (142~202)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河燦錫〈1勝2敗〉
黑(6段) 徐能旭〈0勝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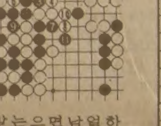


白42로 중앙일대를 장악한 河7단은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확실히 리드한 국면은 아니었다。黑43으로 나머지 큰끝내기를하고 보니 더욱 그런느낌이 든다。그리고 이뒤의 잔끝내기과정이 아슬아슬하다.

좌상白50은 6집。이때 黑51이 절묘했다。평범하게 53에 먼저들어가 白51로되는것에 비하면 선수3집의 차이가 생긴다.

白52가 뼈아픈 굴복이다。이수로 참고도의白2는 黑3이하 11로되어 중앙의 흑타가 크게무너진다。그러나 아직도 白은 미세하나마 얼마간 남는국면。黑으로서는 분발이 요구되는 장면이다。

黑、분전끝에 半집勝



白58이 패착이었다。河7단은 黑51이하를 당한것이 억울하여 냉정을 잃었던 모양이다。58은 63을막아 두었어야 白의승리는 변함이 없었던것이다。일순 黑은 59이하 65,67이하 73 선수로 白집을 줄이고 75。여기서 마침내 승리를 굳히고 말았다。黑103부터는 술술로 미루거니와 黑의 반집승은 끝내 뒤집히지 않았다。96·이음。【二凡】

땅끝에서오다 <13>

金成一 作
宋龍 畵

한권의 책④

어쨌든 준호는 스미에를 자주 만났고, 농숙한 솜씨로 그녀를 다루었다. 그녀는 순한 물고기처럼 몇번 퍼덕거려보지도 못하고 닭겨져와서 준호의 어항에 담겨져 버렸다. 본래 한번 잡힌 물고기는 다시쳐다보지도 않는것이 그의 습성이었지만 스미에와의거래는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준호에게 그만큼 인내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우선 스미에는 일본어에 서투른 준호에게 더할나위 없는 일본어 교과서였다. 그의 일본어는 놀라울만큼 향상의 속도가 빨랐고, 지사장까지도 중요한일에는 준호를 동반할만큼 그는 실력자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스미에는 그가 동경의생리와 습관에 적응하는데 아주 적절한 안내역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로 모든 서비스에 대한 댓가로 지불하는 밤의 포옹은 정말 싸고도 편리한 것이었던 것이다.

물론 스미에가 그에게 기대하고있는 댓가는 그보다 훨씬거창한것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기와결혼을해주고 한국으로 데리고 가서, 그 유서깊고 인정많다는 나라에서 꿈같은 살림을 차려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야심만만한 일본 여자가 비록 이세원에게그 성을 빼앗기는 했지만 겨우 지께의대 부속병원의 간호부따위와 결혼하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적어도… 문 명성보다 더 미인이고 더 머아한 여자와 결혼을 하지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아직 결혼을 하지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웨이트레스가 다가와서

『더 드시겠어요?』

하며 묻고 있었다. 다분히 웃음을 참고있는 표정이었다.

『아』

주스와 우유와 맥주 글라스가 이미 모두 비워져 있었다. 그는 손목의 전자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세시 이십분. 거의 다되어가고 있었다.

『아, 아니 수고했어』

그는 계산을 치르고 식당을 나와서 도착승객 출구쪽으로 걸어갔다. 일본항공의 세관검사도 좀 까다로운 편이지만 평소에 민첩한 이세원이기 때문에 일찍 나올것이 틀림없었다. 이미 JL404의 도착이 게시되고 있었다.

『……?』

누런세관의 사나이가 아직도 출영객들을 뒤적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실내에서도 색안경 선글라스를 쓰고있는것은 손놈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얼굴을 감추기 위함인가. 그는 누구를 출영나온것도 아닌지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살피고 있었다.

출구의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나오고 있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기장과 남자승무원들 뒤로 빨간 유니폼의 JAL스튜어디스들이 나오고 있었다. 화장 탓인지는 몰라도 언거리를 넘어온 여자를 담지않게 싱싱한 얼굴들이었다.

이어서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준호는 주머니를 뒤져서 담배갑을 찾아내었다. 담배 이름은 루나(LUNA)였다. 루나는 영어로 다이아나 (DIANA)、달의 여신(女神)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대개 하이라이트나 세븐스타를 피우는데도 굳이 루나를 피우는것은 그 나름대로 애절한 이유가 있었다.

張吉山 <1696>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56)

『지치부터 우리 계에서는 법회도 가지고 수도기간도 정하여 모임을 끌어 왔소。마침 김서방이 한양에 살면 잔다가 돌아와 새 동무들이 생겼다며 계에 끌어들이기를 청하니 주변에서 모두들 승낙이 되었읍니다. 연천 사념이 일진강빡로 정파강을 통하여 지척이니 장포 사람들은 모두가 사념계에 속합니다. 마침 그곳 법회의 상좌되는 이가 여기 전거사로 오늘 송행의 귀로에 송우에 들르게 되었으니 인연이 든든하네단』

여기까지 말하고나서 정원태는 슬그머니 이시흥 일행을 살펴 보았다.

『세 분이 모두 장포 분이시고, 항리에 가시면 친지들도 많겠지요。원태가 미륵님의 뜻이라 하면 온 세상에 차별이 없고 질병이 없으며 상극이 없는 삶생의 세상을 널리 펴자는 것이지요。그러자 장군사에 의탁한 천거사로 상좌를 삼은 뜻도 잘 아실겝니단』

천거사가 스스로 말하였다。

『저 같은 천출 재인이 어찌 여러분처럼 양민이나 상인이나 할 수가 있겠읍니까。허나 대면님 말씀처럼 미륵님의 뜻이 차별없는 삶생의 도에 있을진, 종사 (宗師) 께서 제게 상념 미륵도 상좌의 일을 맡기셨읍니단』

『아, 그러문요。요새 누가 저자에서 재간 팔았다고 능멸하는 이가 있옵니까。양반도 굶주리면 들병이 술장수가 되는 세상인데, 벼슬아치 팽놓고는 온천지가 천것들인셈이오。더구나 절에서 미륵님 모시려면 하다못해 염불 비나리도 우리보다야 대네들이 능숙하겠지요』

이시흥이 유쾌한 어조로 말하여 잠시 머쓱하던자리가 편하게 풀어졌고, 전섬달이 말하였다.

『달포에 한번씩 흥선산 장군사에서 종사님을 모시고 법회가 열립니다. 이번보름은 명절이라 그믐과 초하루겹쳐서 대란 칠성암에서 큰 재가 올려 집니다。시주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올시단』

『그게 다 절섬 아니오?』

『절선겠 하면 되는게진』

조무인이 걱정스레 말하였다.

『기왕에 믿는 일이라면 병도 고칠까요?』

『죽을 병도 살리지요』

김시동이 자신만만하게 말하였고 조무인 대신에 이두완이가 말하였다.

『이 아저씨 아주머니는 속병이 나서 미음이나 죽으로 연명한지가 오래 되었읍니다』

『우리 삶혼네도 늘질환이 떠나질 않읍니다。무슨 병이든 다 낫는단 말이오?』

이시흥은 믿기지 않는지 전섬달과 정원태를 번갈아 뚜렷거리며 바라보았다.

김시동이 고개를 크게 끄덕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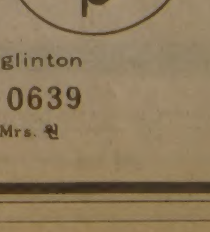
『우리 미륵도의 종사님이나 만신님은 물론이고 신십 깊은 상좌들도 병을 고친다구。역병으로 다 죽어 거적에 싸다 내다버린 사람도 살려내시는걸 이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믿기지 않으면 대법회 큰 재때에 참석해 보아。거기 그 사람이 나온단 말야』

『어이구 살다 보니 별 신통한…그런 조화 속이 있다면 이는 필시 우리 백성들의 가없음을 아신 하늘이 정토를 이루련는 모양일세。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시
(토) 아침10시~저녁 7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광고문의 533-2361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울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울식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성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터의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방관광여행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y) 전화 : 922-8350

구 인

출퇴근하시면서 2개월된 아기 봐주실분 구함.
Weston Rd×Lawrence Ave. W. 지역
전화 : 245-8765 Mrs. 정

30대 애기없는 서양부부가 한국 애기를 입양하고 싶어함.
애기가 어릴수록 좋고 애기를 사랑함.
전화 : 533-0374 Jeri Vrieze

가게 헬퍼구함
2887 Dundas St. W.(keele St. 에서
한블록 서쪽) 내방원함.

경험 있는 여자 풀타임 캐쉬어 구함
다운타운지역 925-0339

Oakville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실
웨이트레스 약간명 구함. 582 kerr St.
전화 : 842-0647 Mr. 김(오후3시 이후)

Sudbury에 있는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전화 : 683-3391 Mr. 김

입주하셔서 가사와 아기 돌볼 가정부 구함.
457-9570

◉경험있는 45세 미만의 여자분으로서
한식요리및 일식요리사 구함.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537-0432
주소 : 658½ Bloor St. W. Tor.

Store helper full-time(입주)과, part-time 독신남자.
살림돌보며 가게일 봐주실 50대(입주) 아주머니
연락주세 요.
가게 전화 : 690-6572
주소 : 2038 Queen St. E. Toronto, M4L 1J4

웨이트레스 1명구함.
전화 : 532-2727

그래픽코스를 수료했거나, 소질있으신 분 구함.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전화 : 251-9587 크로바프린팅

입주하셔서 두아이(5살·7살) 돌봐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실 할머니 구합니다.
전화 : 487-8665(오후 5시이후 전화요망)

도넛츠 가게 일하실분 구함. Midnight 풀타임 또는
주말 파트타임. 다운타운 또는 West 지역
전화 : 222-3877

입주하셔서 가사와 애기 돌봐주실분 구함.
전화 : 266-6355

베커스토아 헬퍼구함. 밤11시~아침7시. 경험있고 영어좀
할 수 있는 분. 261 College St. Tor.
전화 : 979-2545(B). Mr. Gus Doudoumis

당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경험있는 Tire Salesman과 비서를 구하고 있음.
단, Canadian Citizenship 소유자라야 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 Kum Ho Canada Inc.
전화 : 224-2491 (Mr. 박)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 분 구함.
전화 : (R)282-6223
(B)839-8438

5학년 남자어린이 영어지도 해 주실분(고등및 대학생) 구함. Eglinton & Weston Rd. 지역
전화 : 767-5960, 763-4296

일본음식점 웨이트레스 급구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221 Ellesmere Rd.(Warden 서쪽)
전화 : 441-2211 Hamamoto Japanese Restaurant

경험있는 커피숍 카운터 헬퍼구함.
전화 : 438-0403 Mrs. 숙

일본음식점 풀타임 웨이트레스 구함.
4 Avenue Rd. (Park Plaza Hotel)
전화: 960-9035. Katsura Japanese Restaurant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개인지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매 매

한사람이 할수 있는 위치 좋은
아이스크림 도넛숍 팝니다.
전화 : 466-3995 (오후 2시전 전화요)

가정사정상 그로서리 가게를 팔고자함
주매상 $4,000 956 Brimorton Dr. Scarboro.

버라이어티, 기프트스토아 매매
주매상 $7,000. 아스킹 $10만5천(짧은 시간)
(로타리오 머신외 수입) 전화 : 223-8805 Mr.이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침 9시-밤 10시.
전화 : 222-3109

Chicken & Pizza 레스토랑 매매.
주매상 $2,000. 좋은조건에 양도함.
아스킹 $20,000+장비 몰게지. George Town.
전화 : 1-873-1603 Mr. 최

Baskin Robbins Ice Cream 급매
Oakville에 있는 간편하고 안정된 비지네스.
주위환경이 좋은 큰 쇼핑 Mall에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
문닫음. 한주인이 6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 10년.
권리금: $35,000+Equipment(6만불) (조정가능함)
전화 : 월-금 827-0995(11AM~5PM) 토·일 827-7057 Mr. 최

▲Bloor St. 인베스먼트 $179,900
▲Yonge st. 에 위치한 Fruit 스토아
주매상 $5,000. 렌트 $1,400. 가격 $60,000
▲Yonge St. 인베스트 빌딩. $269,900
전화 : 535-1170 박문희(Clara Park)
Royal Trust

좋은 투자의 기회! 13개 배출러. 리노베이트된 벽돌건물
Semi. 다운타운 U of T. 아파트 있는 빌딩. 가구있게 지어졌음
파킹 2개씩 있음. W. H. Bosley Co. —Percy 전화: 486-5777

79년 밤색 VOLVO 스테이션·웨곤 245DL.
AM·FM 카세트. 컨디션 좋음. 가격: $4,900
전화 : 767-5080 Mr. 리

비데오 & Pinball 아케이드 매매
좋은 수입. 짧은 시간.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바람
842-6195. 359 Kerr St. Oakville.

성공한 버라이어티나 Gift 스토아 원합니다. 트라피이 많은 Mall안에 있고 동쪽끝 원함.
전화 : 496-1592 Mr. Lalani

비데오 아케이트 매매
수십가지의 중고 Pineball과 비데오 머신
전화 : 691-8337 Mr. Lee

Gift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짧은 시간(9AM~9PM). 주6일. 좋은 이윤.
로타리오+티켓(월수입 $1,000 이상.). 년매상 14만불.
렌트 $700. 아스킹 $59,000(스탁포함)
전액 Cash 원함.
2438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949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쇼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자녀들의 필수교과서 "WORLD BOOK" 백과사전
총 22권 • Special 가격으로 판매.
문의처 : 533-2364 김 • 767-1702 (오후 6시이후)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칭(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그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
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아파트 세놓읍니다. 교통이 편리한 다운타운 2베드룸과
1베드룸.
전화 : 365-1489(낮) 493-9599(저녁5시 이후)

1 Bed Room 아파트 써브렛
월 $330. 105 West Lodge(랜스다운×퀸)
전화 : 531-5828 Mr. 김

전세(Semi-Det. $650)
Pape 써브웨이에서 1블럭
전화 : 282-0236, 461-2771, 968-6284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잔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충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 -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Bloor & Kennedy 꽃집
결혼, 개업용 화환및 Plant
2194 Bloor St. W. 전화 : 766-0175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숙워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 (Mrs.김)◉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화 : 463-9071 Mrs. 리
812 Queen St. E.(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 (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P.O. 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Big Fish Market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휘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밀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